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CONTENTS

강	제목	페이지
01	인간과 윤리 사상	4
02	유교와 인의 윤리	10
03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19
04	불교와 자비 및 화합의 윤리	26
05	도가 사상과 무위자연의 윤리	33
06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39
07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과 덕 있는 삶	46
08	행복 추구와 신앙	53
09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이성과 감정	60
10	옳고 그름의 기준: 의무와 결과	69
11	현대의 윤리적 삶: 실존과 실용	78
12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85
13	국가와 시민	91
1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98
15	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	105
	실전 모의고사 1회	112
	실전 모의고사 2회	117
	실전 모의고사 3회	122
	실전 모의고사 4회	127
	실전 모의고사 5회	132

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인간의 특성

- ① 이성적 존재: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
- ② 도구적 존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
- ③ 사회적 존재: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
- ④ 유희적 존재: 이해관계를 떠나 재미를 주는 다양한 놀이를 즐김
- ⑤ 문화적 존재: 언어나 기술, 지식 등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함
- ⑥ 종교적 존재: 초자연적 현상과 초월적 존재를 믿으며 살아감
- ⑦ 윤리적 존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규범을 만들어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성찰함

(2) 인간의 본성

관점	내용	대표자
성선설	•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남 •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음	맹자
성악설	• 인간은 이기적이거나 악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남 • 인간이 선한 것은 인위적·후천적 노력의 결과임	순자
성무선악설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 환경에 달려 있음	고자

(3) 인간다움의 실현

- ① 인간다움의 핵심: 도덕성(道德性)
- ②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 필요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2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1) 윤리 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의미	• 어떻게 사는 것이 옳바르고 좋은 삶인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생각 • 바람직한 인간의 삶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것
예시	동양의 유교·불교·도가 사상, 서양의 의무론과 공리주의 등
중요성	•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줌 •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줌 •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

(2) 사회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의미	•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체계적인 생각 •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
예시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중요성	•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이 됨 •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함 •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함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

- ① 차이점: 윤리 사상은 주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고, 사회사상은 주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탐구함
- ② 공통점: 궁극적으로 인간다움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함
- ③ 상호 관련성
 - 개인의 삶과 사회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

자료와 친해지기 인간의 특성에 대한 하위징아의 관점

우리의 시대보다 더 행복했던 시대에 인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감히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라고 불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인류는 합리주의와 순수 낙관론을 숭상했던 18세기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리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인류를 '호모 파베르(Homo Faber: 도구를 만드는 인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비록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파베르라는 말이 사피엔스라는 말보다는 한결 명확하지만, 많은 동물들도 물건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말 역시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간과 동물에게 동시에 적용되면서 생각하기와 만들어 내기처럼 중요한 제3의 기능이 있으니, 곧 놀이기기이다. 그리하여 나는 호모 파베르 바로 옆에,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수준으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를 인류 지칭 용어의 리스트에 등재시키고자 한다.

- 하위징아, "호모 루덴스" -

네덜란드 역사학자인 하위징아는 인간을 정의하는 두 용어, 즉 이성과 사고 능력에 기반을 둔 '호모 사피엔스'와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에 기반을 둔 '호모 파베르'에 놀이하는 인간, 즉 유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를 추가하였다. 하위징아는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인 놀이가 문학, 예술, 철학 등을 탄생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 도덕적인 사람이 모일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나 국가가 정의로워야 그 구성원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큼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임

3 윤리 사상의 역할

(1) 윤리 사상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

- ①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제공: 바람직한 가치관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함
- ② 개인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태도에 큰 영향을 줌

(2) 한국 및 동양 윤리 사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를 개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로 맺어진 통합된 전체로 봄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구별과 차이보다 상호 연관성과 조화를 중시함 • 개인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지만, 개인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봄 →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개인의 인격 수양과 개인과 집단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계약과 규율로 유지되기 보다는 정감이 오가는 공동체를 지향함
현대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3) 서양 윤리 사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구현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 → 때와 장소에 따라 강조되는 구체적인 도덕규범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고 봄 • 인간의 이성과 이성애 바탕을 둔 윤리적 탐구를 중시함 → 인간의 감각적 경험, 감정, 욕망 등에 바탕을 둔 윤리적 탐구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태도와 방법이 토대가 됨
현대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 • 도덕적 삶과 행복, 바람직한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틀을 제공함

4 사회사상의 역할

(1) 사회사상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

- ① 공적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 제공: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큰 영향을 줌
 - 예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사상은 자유 시장 경제 정책 확대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연대성을 중시하는 사회사상은 사회 복지 정책 확대를 중시함
- ② 사회의 제도, 정책, 관습 등에 영향: 사회 구성원 사이에 지배적인 사회사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짐
 - 예 민주주의는 민심을 존중하는 도덕적 정치가 실현되게 하고,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 바탕이 됨
- ③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함
 - 예 현대 복지 자본주의는 인류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함
- ④ 주요 사회사상의 특징과 영향

사회사상	특징	우리 삶에 주는 영향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실현과 인격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함	개인의 자유 신장
민주주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봄	정치 참여 기회 확대
자본주의	자유로운 경쟁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함	경제 활동의 활성화로 풍요로운 삶 추구
사회주의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계획 경제를 주장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노력

(2) 사회사상에 대한 올바른 자세

- ① 어떤 사회사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예 나치즘과 같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치므로 추구해서는 안 됨
- ② 사회사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함 → 어떤 사회사상을 바라볼 때 인간다움과 행복의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훌륭한 국가와 훌륭한 시민

국가가 훌륭해지는 것은 행운의 소관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사람은 세 가지를 통해 선하고 훌륭해지는데, 그 세 가지는 본성, 습관, 이성이다. 훌륭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하며, 훌륭한 시민이 되려면 이성으로 본성과 습관을 통제하여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01

▶ 23057-0001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 이치[理]가 있다. 그 본성[性]으로 말하면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그 권형(權衡)으로 말하면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다. 그 행사(行事)로 말하면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는 쉽다. 하늘은 사람에게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는 권형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는 쉬운 육체를 주었으며, 그 위에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을 주었다. 만일 이 본성이 없다면 조그마한 선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 ① 도덕적 삶을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 존재이다.
- ② 스스로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 ③ 동물처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를 지닌 존재이다.
- ④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하거나 악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 ⑤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덕을 바탕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존재이다.

02

▶ 23057-0002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왕(聖王)이 제정한 예(禮)를 배워야 한다.
- ② 인을 실현하기 위해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시비(是非)를 분별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 ④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 ⑤ 존비친소(尊卑親疏)를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03

▶ 23057-000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영혼을 구성하는 이성은 지혜롭고 영혼 전체를 위한 선견지명을 지니고 있어 지배를 담당한다. 기개는 이성
에 복종하고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성과 기개는 외부의 적에 맞서 영혼 전체와 몸을 가장 잘 지켜 준다. 즉
이성은 결정을 내리고, 기개는 이성의 지휘 아래 싸우며 이성이 결정한 사항을 용기 있게 실행한다. 한편 욕
구는 영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재물에 대해 도무지 만족을 모른다. 욕구는 육체적 쾌락으로 가득하며, 강
대해지면 이성과 기개를 지배하려 들어 마침내 삶 전체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이성과 기개는 이런 일이 생
기지 않도록 욕구를 감시해야 한다.

보기

- ㄱ.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육체를 돌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 ㄴ.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쾌락에 대한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 ㄷ. 영혼의 건강을 위해 이성, 기개, 욕구가 서로 참견해야 한다.
- ㄹ.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 23057-0004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진인(眞人)에 대해 궁금해하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네. 진인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기피하지 않는다네. 세상에 태어났음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네. 무
심히 왔다가 무심히 갈 뿐이라네. 이처럼 진인은 자신을 자연 현상의 하나로 보고, 주어진 삶을 즐
기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일체를 망각하고 자연에 되돌아간다네. 진인은 마음으로 도(道)를 해치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네. 진인은 봄날처럼 온화하여 감정의 움직임은 계절이 바뀌듯 자
연스럽고, 정신은 바깥 사물과 조화를 이루어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네. …(후략).

- 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적 지식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파악해야 한다.
- ③ 만물을 평등하게 보고 어떠한 외물(外物)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 ④ 정신적 가치인 자연의 도와 세속적 가치인 명예를 함께 중시해야 한다.
- ⑤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05

▶ 23057-000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욕구들 중 어떤 것은 자연적이고 어떤 것은 공허하다. 자연적인 욕구들 중 어떤 것은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할 필수적인 욕구들 중 어떤 것은 행복을 위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몸의 고통 제거를 위해 필요하며 어떤 것은 삶 자체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잘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성으로써 이러한 욕구들을 잘 분별하고 절제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① 몸의 건강을 위해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
- ③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
- ④ 개인적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06

▶ 23057-0006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배가 고파 밥을 얻어먹어야 살더라도, 허를 차고 꾸짖으면서 밥을 주면 받아먹지 않을 것입니다. 삶보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고, 죽음보다 싫어하는 바가 있으니 어진 사람[賢者]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부모나 어른을 위해 사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모두 성정(性情)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인의(仁義)와 법도(法度)를 배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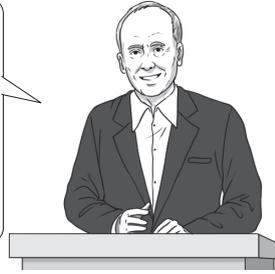
- ① 인간의 본성을 따르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가?
- ② 인간은 도덕 인식 능력과 도덕 실천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 ③ 법도에 의한 교화(教化)를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해 수양에 힘써야 하는가?
- ⑤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양지심(辭讓之心)을 형성해야 하는가?

07

▶ 23057-000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경제 중심의 사회가 낳은 폐해는 심각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일반 시민의 도덕 불감증 등 경제 논리에 가려 어느 정도의 비도덕은 묵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관용이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 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
- ② 공공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실현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③ 심각하지 않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 ④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바탕을 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⑤ 자율적 규범보다는 강제적 규범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08

▶ 23057-000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민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공통된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공동체란 다름 아닌 정체(政體)이다. 따라서 시민의 탁월함은 반드시 정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체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만큼, 훌륭한 시민의 탁월함도 한 가지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단일하고 완벽한 탁월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의 탁월함을 지니지 않아도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모든 시민이 똑같을 수 없는 만큼 시민의 탁월함과 훌륭한 사람의 탁월함은 동일할 수 없다. 훌륭한 시민의 탁월함은 모든 시민이 지녀야 하지만 훌륭한 국가의 시민들이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사람일 수 없는 만큼 훌륭한 사람의 탁월함을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기

- ㄱ. 훌륭한 공동체는 시민적 덕을 갖춘 시민들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 ㄴ. 훌륭한 공동체를 실현하려면 시민들의 탁월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 ㄷ. 훌륭한 시민의 탁월함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ㄹ. 훌륭한 시민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초월하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 도덕의 성립 근거: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

(1) 유교의 등장

- ①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諸子百家)가 등장함
- ② 공자: 춘추 시대에 하·은·주 삼대(三代)의 문화를 종합하여 유교 사상을 정립함

(2) 공자의 사상: 유교의 토대 정립

- ① 인(仁)
 -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 효제(孝悌), 충서(忠恕) 등을 통해 표현되는 도덕적인 마음
- ② 예(禮)
 -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 사회 규범
 -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인을 실현할 수 있음 → 예는 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
- ③ 정명(正名)
 - 명분을 바로잡는 것
 -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 →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다해야 함
- ④ 덕치(德治)
 - 통치자의 덕성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하는 정치
 - 수기치인(修己治人):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 다스려야 함
- ⑤ 분배의 형평성 강조: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함

⑥ 이상적 인간과 사회

군자	•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고자 힘쓰는 사람 • 인의 구현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
대동 사회	인륜이 구현되고 인재가 중용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살핌을 받는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

(3) 맹자의 사상: 도덕적 마음 강조

① 성선설(性善說)

-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四端), 양지(良知), 양능(良能)을 부여받음
- 사단: 누구나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네 가지 선한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인(仁)의 단
수오지심(羞惡之心)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 의(義)의 단
시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 예(禮)의 단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 지(智)의 단

- 양지: 선천적 도덕 자각 능력 →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 양능: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 →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② 수양 방법

- 구방심(求放心):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음
- 과욕(寡欲): 욕심을 적게 가짐
- 존심양성(存心養性):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착한 본성을 기름

③ 정치사상

- 왕도(王道) 정치: 통치자가 백성을 힘으로 다스리는 것[霸道(패도)]이 아니라 인의(仁義)의 덕으로 다스림
- 역성혁명(易姓革命):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통치자는 바꿀 수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공자의 인(仁)

• 재아가 공자에게 삼년상[喪]이 너무 길다고 하면서 1년만으로 상을 마치면 어떠냐고 묻자 공자가 다시 재아에게 물었다. “네가 그렇게 하고서도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하겠는가?” 재아가 자기는 그렇다고 하자, 공자는 네가 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재아가 나가자 공자가 말하였다. “재아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은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삼년상은 세상 사람들이 다 지내는 것이다. 재아도 부모에게서 3년 동안 사랑을 받지 않았더니!”

• 유자가 말했다.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우애로우면서 뒷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뒷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지러운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니 근본이 서면 도가 이루어진다. 효와 제는 인을 이루는 근본이다.

• 자공이 말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널리 은덕을 베풀고, 대중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인에 그치는 일이겠느냐. 틀림없이 성(聖)이라 하겠다. 요임금, 순임금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걱정하셨다. 대저 인한 사람이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가까이 자기에게서 미루어 남의 처지를 비교하여 아는 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도라 할 수 있다.”

- “논어” -

공자는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 인이라고 보았고 모든 행동의 근본은 가족 관계의 윤리인 효와 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자에 따르면, 효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식의 보답이며 인간관계에서 상호 요구되는 인의 실천이다. 형제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은 우애로, 아우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효제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공자는 충서(忠恕)를 제시하였다.

- 유향산 유향심(有恒產有恒心):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만 변치 않는 도덕심을 지닐 수 있음
- ④ 이상적 인간: 대인(大人) 또는 대장부(大丈夫) → 집의(集義)를 통해 길러지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춘 인간
- 집의: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함
- 호연지기: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

(4) 순자의 사상: 인위적 규범 강조

- ① 성악설(性惡說)
 - 인간은 본래 이익과 쾌락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임
 -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偽(위)]의 결과임
- ② 예(禮)
 - 고대의 성왕(聖王)이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
 -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 → 사람들의 악한 성정을 교화하고[化性起僞(화성기위)],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 규범
- ③ 정치사상
 - 예치(禮治): 고대의 성왕이 제정한 예로써 다스려야 함
 - 덕을 헤아려서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맡겨야 함

- ④ 자연관: 공자, 맹자와 달리 하늘을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여겼고,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은 구분된다[天人分二(천인분이)]고 봄

2 도덕 법칙의 탐구 방법: 성리학과 양명학 사상

(1) 유교 사상의 전개

진(秦)나라 시대	법가의 부국강병책이 중시되었고, 분서갱유(焚書坑儒)가 발생함
한(漢)나라 시대	유학이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다시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고, 분서갱유로 인해 소실된 유교 경서를 복원하는 경학과 그 내용에 대한 주석을 하는 훈고학이 발달함
송(宋)나라 시대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재해석하고 불교와 도가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성리학이 등장함

(2) 주희의 성리학 사상: 사물의 이치[理] 규명 강조

- ① 특징: 성리학을 집대성함
- ② 이기론
 - 만물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짐
 - 이는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이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임
 -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될 수 없음

자료와 친해지기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

-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듣게 될 비난의 소리가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是非之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仁)의 단(端)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단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단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智)의 단이다.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 맹자 -
-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며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 공손추가 물었다. “호연지기관 무엇인지요?” 맹자가 대답했다. “말하기가 어렵다. 그 기의 됴됨이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데, 올곧음으로써 기르고 해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된다. 그 기의 됴됨이는 의와 도(道)를 짝으로 삼기에 이것들이 없으면 위축되고 만다. 그것은 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우연히 한 번 나의 어떤 행위가 의에 부합되었다고 해서 호연지기를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하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데가 있다면 이 호연지기는 위축되고 만다. 내가 고자는 아직 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것은 그가 의를 외재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 맹자 -
- 타고나는 본성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교화시킬 수는 있다. 노력을 쌓아 가는 일은 우리가 본시 지니고 있는 버릇은 아니지만 노력할 수는 있다. 노력으로 습속을 바로잡아 가노라면 본성을 교화시키게 된다.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 하고 바꾸지 않는 것이 노력을 쌓아 가는 방법이다. 습속은 사람의 뜻을 바꿔 놓아 오랫동안 그렇게 지나면 사람의 바탕도 바뀌어진다.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 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신명함에 통하게 되고 천지의 변화와 함께하게 된다. - 순자 -
- 사람은 무엇으로 도를 아는가? 그것은 마음으로 알 수 있다. 마음은 어떻게 도를 아는가? 마음을 비우고[虛] 전일하게[一] 하며, 고요하게[靜] 하여 알 수 있다. 마음은 무엇을 저장하고 있지 않을 때가 없으나, 이른바 텅 빈 상태[虛]가 있다. 마음은 이쪽저쪽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없으나, 하나에 전념하는 이른바 전일한 상태[一]가 있다. 마음은 활동하지 않는 때가 없으나 이른바 고요한 상태[靜]가 있다. - 순자 -

맹자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인 사단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고, 사단을 확충하여 사덕에 이르러야 하며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순자는 인간이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라고 보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심성론

- 성즉리(性卽理):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이며, 성에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
-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 본연지성은 순선하나 기질지성은 기질의 맑고 흐린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임 →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함

④ 수양론

거경 공리(居敬窮理)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함
존양성찰(存養省察)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며 반성하고 살핌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함

⑤ 경세론: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원리에 근거하여 정치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추구함

(3) 왕수인의 양명학 사상: 주체의 도덕성 회복 강조

① 특징

- 주희의 성즉리설, 격물치지설 등을 비판하고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함
-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도덕 원리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함

② 핵심 사상

심즉리설(心卽理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마음[心]이 곧 하늘의 이치[理]임 •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음
치양지설(致良知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누구나 천리(天理)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음 •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致良知]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앎[知]은 행[行]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임 •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하나임

③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성리학	양명학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함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일을 바로잡음

(4) 청대의 고증학

등장 배경	구체적인 현실 문제보다 인간의 도덕 문제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분위기 대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을 추구함 •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법론을 중시함 • 우리나라 실학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침

자료와 친해지기 주희와 왕수인의 심성론

- 만약 등불이 성(性)이라고 한다면 밝지 않음이 없다. 기질이 같지 않음은, 등갓에 두꺼운 종이를 바르면 불이 매우 밝지 못하고 얇은 종이를 발라도 그 등의 밝기가 두터운 종이를 바른 것과 비슷하다가 얇은 비단을 바르면 밝아지는 것과 같다. 등갓을 벗기면 등불 전체가 드러나 보이는데, 그 이치가 바로 이와 같다. - "주자어류" -
- 성에 대하여 논의할 때는 반드시 먼저 성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정자(程子)가 "성이 곧 이치[理]이다."라고 했는데 이 설명이 가장 좋다. 우선 이치의 측면에서 말하면, 틀림없이 형체와 그림자조차 없으며 단지 하나의 도리일 뿐이다. 사람에게는 인의예지의 성이 된다. 그러나 그 네 가지에 무슨 형상이 있겠는가? 역시 다만 이러한 도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도리가 있다면 곧 수많은 일들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측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며, 겸손하고 양보하며,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게 된다. 비유하면 약의 본성을 말할 때 '성질이 뜨겁다.' '성질이 차갑다.' 등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약에서 그러한 형상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단지 약을 복용한 뒤에 몸을 차갑거나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이니, 곧 인의예지이다. - "주자어류" -
- 인·의·예·지는 성이요,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정(情)이며, 인으로 사랑하고 의로 미워하고 예로 사랑하고 지로 아는 것이 마음이다. 성이란 마음의 이치요, 정이란 마음의 용(用)이며 마음이란 성정의 주인이다. - "주자문집" -
- 무릇 물(物)의 이치는 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나의 마음을 벗어나 물의 이치를 구한다면 물의 이치는 없다. 물의 이치를 버리고 나의 마음을 구한다면 나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곧 이치이다. 그러므로 효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곧 효도의 이치가 있게 되고, 효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곧 효도의 이치도 없게 된다. 임금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곧 충성의 이치가 있게 되고, 임금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곧 충성의 이치도 없게 된다. 이치가 어찌 나의 마음을 벗어나겠는가? - "전습록" -
-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명(命)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고 했는데 명이 곧 성이고 성이 곧 도이고, 도가 곧 교이다." 내가 물었다. "왜 도를 교라고 합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도라는 것은 곧 양지인데, 양지는 원래 완전무결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한다. 옳고 그른 것은 오직 양지에 의해 판단해야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 양지는 어느 때나 스승이다." - "전습록" -

주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지는 선한 본성이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이치[性卽理]라고 보았고,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心卽理]라고 보았고,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왕수인은 마음에 있는 양지를 자각하고 이를 따르는 치양지(致良知)를 강조하였다.

01

▶ 23057-000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는 인(仁)과 앎[知]이 필요합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앎이란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을 이루는 근본인 효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한 사람은 어려운 것은 먼저 하고 획득하여 얻는 것은 뒤에 합니다.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곧은 사람을 등용해서 비뚤어진 사람 위에 놓아 비뚤어진 사람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기는 하지만 그것에서부터 떨어져 멀리합니다.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아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며, 인한 사람은 정적[靜]이고 아는 사람은 동적[動]이며, 인한 사람은 오래 살고 아는 사람은 즐겁게 삽니다.



- ① 마음이 충(忠)의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효제를 실천할 수 있다.
- ② 인격 수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을 해야 한다.
- ③ 초월적인 존재가 지닌 힘을 이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④ 성인(聖人)은 인하지 않은 사람을 등용하여 인한 사람이 되게 한다.
- ⑤ 인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만 할 뿐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없다.

02

▶ 23057-001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의 귀는 소리에 있어서 동일한 청각을 갖고 있으며, 눈은 색에 있어서 동일한 색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경우에 있어서만 동일한 바가 없겠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동일한 것은 도리[理]이며 의리[義]이다. 성인(聖人)이란 우리들의 마음에 동일한 것을 먼저 체득한 사람이다.

을: 사람의 본성[性]으로 귀는 들을 수가 있고 눈은 볼 수가 있다. 귀는 청력이 있고 눈은 시력이 있는데, 이것은 타고난 것이어서 배워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의(禮義)란 성인이 만들어 낸 것이어서 배우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선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 ① 갑: 양심(良心)을 잃어버린 사람은 선천적 본성이 변화된 사람이다.
- ② 갑: 자신의 본래 마음[本心]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 ③ 을: 타인을 질투하는 사람은 수양을 해도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 ④ 을: 사람이 예의를 배워 지니고자 하는 것은 본성에 본래 예의가 없기 때문이다.
- ⑤ 갑과 을: 사람이 인의(仁義)를 실천하는 것은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03

▶ 23057-00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래 사람에게 스승도 없고 법도도 없는데 지혜가 많다면 그는 반드시 도둑이 되고 능력만 있다면 그는 반드시 난동을 부리는 자가 된다. 반면에 사람에게 스승이 있고 법도가 있고 지혜가 있다면 사물에 바로 통달하게 되고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일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있다는 것은 위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는 것은 큰 재앙이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존중할 것이고, 스승과 법도가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을 존중할 것이다.

- ① 군자나 소인이나 그들의 타고난 본성은 모두 동일한가?
- ② 군자가 권세를 가지고 소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가?
- ③ 인간의 선한 행위는 후천적인 노력[偽]과는 무관한 것인가?
- ④ 사람의 마음은 도(道)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 ⑤ 모든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지만 해가 되는 것은 싫어하는가?

04

▶ 23057-00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명분[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리대로 되지 못하고, 말이 순리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면 백성들은 손과 발을 둘 곳도 모르고 찢쩍매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명분을 바로 세우면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말로 설명하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을: 옛날의 성인(聖人)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바르지 못하며,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군주의 권세를 세워 군림하게 하고, 예의를 밝혀서 교화시키고, 올바른 법도를 제정하여 다스리고, 형벌을 무겁게 하여 올바르지 못함을 금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천하가 모두 잘 다스려지도록 하고 선함으로 모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성왕(聖王)의 다스림이며 예의의 교화이다.

- ① 갑은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바른 정치가 되려면 예악에 맞는 형벌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타고난 성정에 어긋나는 행동은 예를 따른 결과라고 본다.
- ④ 을은 소인은 군자가 되려 하지 않으며 군자가 될 수도 없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통치자는 덕(德)을 닦고 예로써 백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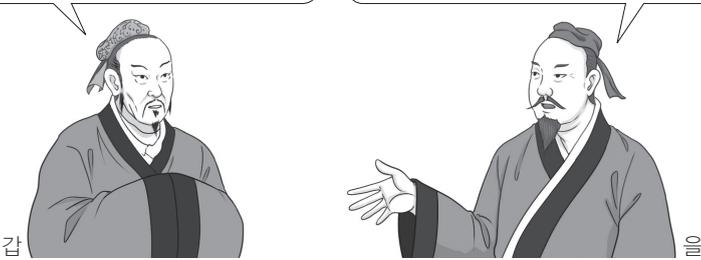
05

▶ 23057-0013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측은(惻隱)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거나, 부끄러워하는[羞惡]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辭讓)하는 마음이 없거나, 옳고 그름[是非]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仁)의 단(端)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단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단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智)의 단입니다.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물고기는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새는 높이 날아가 버리며, 사슴은 기운껏 달아 납니다. 이 네 가지 것들 중 어느 것이 이 세상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의(仁義)의 단이라든가 옳고 그름의 방향은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어찌 제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

- ㄱ. 갑: 사단(四端)을 넓히고 채워서 인의예지의 덕을 실현해야 한다.
- ㄴ. 갑: 경제적 안정[恒産]을 얻으면 선한 마음[恒心]을 유지할 수 없다.
- ㄷ. 을: 성인(聖人)과 달리 보통 사람들은 분별을 통해 자신을 내세우려 한다.
- ㄹ. 갑과 을: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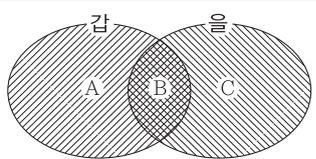
▶ 23057-0014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덕(德)이 작은 자가 덕이 큰 자에게, 현명함이 작은 자가 현명함이 큰 자에게 부러진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힘이 작은 자가 힘이 큰 자에게, 세력이 약한 자가 세력이 강한 자에게 부러진다. 이 두 가지는 하늘[天]의 이치이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한다. 공자께서는 군주가 인(仁)을 좋아하면 천하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다.

을: 하늘과 사람의 구분에 밝으면 곧 그를 지인(至人)이라 말할 수 있다.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지게 하는 것은 하늘인가? 해, 달, 별이 운행되고 있는 현상은 명군인 우임금 때나 폭군인 걸왕 때나 같았다. 그러나 우임금 때는 잘 다스려졌고 걸왕 때는 어지러웠으니,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지게 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다. "하늘이 높은 산을 만들었고, 문왕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렸네."라는 시는 이것을 뜻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인간은 하늘이 내리는 도덕적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
- ㄴ. B: 인간은 예를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 ㄷ. B: 하늘은 아무런 의지도 없으며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
- ㄹ. C: 하늘은 자연 현상이며 인간의 선행과 악행에 반응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7

▶ 23057-0015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돌계단에는 돌계단의 이치[理]가 있고, 대나무 의자에는 곧 대나무 의자의 이치가 있다. 말라 죽은 것은 끊임 없이 낳는 뜻[意]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낳는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썩은 나무는 쓸모가 없어 단지 아궁이에 돌 뿐이니 이는 생명을 가지고 낳는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나무를 태우면 곧 어떤 기(氣)가 되는 것이 또한 나무마다 각각 다르니 이것은 이치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의 본성은 곧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이다[性卽理].
- ②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여 지극한 앎을 이루어야 한다.
- ③ 인간의 기질지성(氣質之性)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다.
- ④ 인간과 사물은 모두 형이상의 이치와 형이하의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 ⑤ 사물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인간의 본연지성과 같이 기질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08

▶ 23057-0016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을 사람과 친구들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

을: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이(理)가 생긴다. 이 측은히 여기는 이는 과연 어린아이의 몸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양지(良知)에 있는가? 어린아이를 따라 우물에 뛰어들지 못할 수도 있고, 손을 내밀어 어린아이를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모두 이른바 이이다. 이것이 과연 어린아이의 몸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양지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보기

- ㄱ. 갑: 측은지심은 고통에 처한 아이를 보게 될 때 형성된다.
- ㄴ. 을: 인간은 양지를 지니고 태어났으므로 더 수양할 필요가 없다.
- ㄷ. 을: 양지는 옳고 그름[是非]을 아는 것으로 아이도 가지고 있다.
- ㄹ. 갑과 을: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야 함을 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9

▶ 23057-0017

대화의 스승은 중국 유교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 정자(程子)는 사물에 있는 것이 이치[理]라고 주장하였는데, 스승님은 어찌하여 마음이 곧 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승: “사물에 있는 것이 이치이다.”라는 말 앞에 마음[心]을 덧붙여 “마음이 사물에 있으면 이치가 된다.”라고 해야 한다. 이는 마음과 이치를 구분하는 폐단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제자: 그렇다면 이치에 맞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 _____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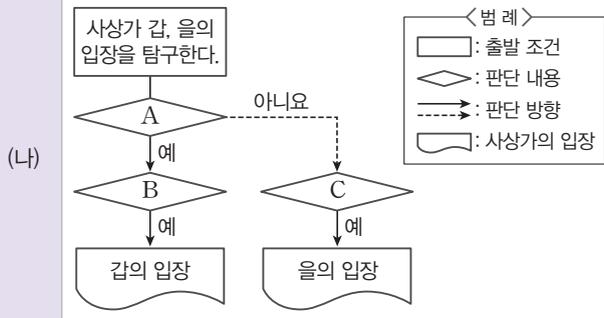
- ① 마음에 있는 양지를 실천하여 인의예지의 사덕을 형성해야 한다.
- ②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도록 천리를 획득해야 한다.
- ③ 마음은 천리(天理)인 성과 감정[情]을 주재하고 통괄[統]해야 한다.
- ④ 마음과 이치가 하나임을 깨닫고 마음 밖에서 의(義)를 찾지 말아야 한다.
- ⑤ 마음의 본체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事]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10

▶ 23057-0018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치지(致知)하려면 필히 행하여야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치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다. 이로부터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본체가 더 분명해지지 않는가? 양지(良知)에 도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을: 배우는 목적은 진실로 행함에 있는데,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 비록 행하고자 하여도 이치에 밝지 않으면 실천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격물치지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보기

- ㄱ. A: 얹이 지극하지 않아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가?
- ㄴ. A: 지와 행은 나란히 나아가므로 선후를 분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 ㄷ. B: 뜻[意]이 선을 행하는 데 있으면 곧 일[事]에서 그 선을 행하는가?
- ㄹ. C: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인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1

▶ 23057-001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성(性)이 선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다만 네 가지 단서[四端]가 선하다는 것을 통해서 그 성이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 단서는 정(情)이고 성은 이치[理]이다. 드러난 것은 정이고, 그 근본은 성이니 마치 그림자를 보고서 형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을: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곧 이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효의 이가 있게 되고, 효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효의 이가 없게 된다. 임금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충의 이가 있게 되고, 충성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충의 이도 없게 된다. 이가 어찌 내 마음 밖에 있을 수 있겠는가?

보기

- ㄱ. 갑: 개별 사물의 이치와 인간 마음 안의 이치는 근원이 다르다.
- ㄴ. 갑: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실마리이다.
- ㄷ. 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본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 ㄹ. 갑과 을: 천리(天理)를 보존하려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 23057-0020

(가)의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마음[心]은 성정(性情)의 주인[主]이다. 성은 마음의 이치[理]이고 정은 마음의 용(用)이다. 인(仁)으로 사랑하고 의(義)로 미워하고 예(禮)로 사양하고 지(智)로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인·의·예·지는 성이고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정이다.</p> <p>을: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그 전체의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인이라 하고, 그 마땅함을 얻은 것으로 말하면 의라 하고, 그 조리(條理)로 말하면 이치라 한다. 마음을 떠나서는 인과 의를 추구할 수 없고 이치도 추구할 수 없다.</p> <p>병: 마음은 이익을 좋아하고 몸은 편안함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의 감정과 본성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성인(聖人)은 사람의 본성을 교화시켜 작위를 일으키고, 작위를 일으켜 예의를 만들어 내고, 예의를 만들어 내어 법도를 제정한다.</p>
(나)	

- ① A: 사물은 선한 마음 안에서 의미를 지니며 실재함을 간과한다.
- ② B: 인간이 시비선악을 판단하는 능력[良知]을 가짐을 간과한다.
- ③ C, E: 모든 존재가 하늘의 명령인 성을 가지고 태어남을 간과한다.
- ④ D: 예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고 분별[別]을 해 주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악한 행위는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탁한 기질의 결과임을 간과한다.

1 한국 성리학과 도덕 감정: 이황과 이이의 사상

(1) 한국 유교의 전개와 특징

① 유교 사상의 수용과 전개

- 삼국 시대: 선진(先秦) 유교를 주체적으로 수용 → 정치와 생활 원리로서 폭넓게 활용됨
- 고려 말: 성리학 수용 → 정치적·사회적 개혁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됨
- 조선 초·중기: 성리학의 발달

② 조선 성리학의 특징

-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공함
- 중국 성리학의 심성론과 관련된 탐구를 심화시킴
- 사단 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비롯한 다양한 이론적 논쟁을 전개함

(2) 이황의 사상: 순수한 도덕 본성의 발현을 강조

① 특징

- 주희의 이기론을 재해석하고 사단 칠정론을 체계화함
- 도덕적 본성인 이(理)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도덕적 실천을 중시함

② 이기론

이귀기천설 (理貴氣賤說)	순선(純善)한 원리적 개념인 이는 존귀하고 선악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현상적 개념인 기는 비천한 것임
이기호발설 (理氣互發說)	이와 기는 모두 발할 수 있음 → 기는 물론이고 이도 온 동성을 지니고 있음

③ 사단 칠정론

- 주희의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理氣不相雜(이기불상잡)].”라는 주장에 주목하여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봄 → 도덕적 원리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려고 함
-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理發而氣隨之(이발이기수지)]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氣發而理乘之(기발이승지)]이라고 주장함 → 사단과 칠정을 구분함으로써 도덕적 기준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함

④ 수양론

-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의 병행을 강조함 → “거경과 궁리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 경(敬)의 주된 실천 방법

주일무적(主一無適)	마음을 한군데에 집중하여 잡념이 깃들지 않게 함
정제엄숙(整齊嚴肅)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함
상성성(常惺惺)	항상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함

(3) 이이의 사상: 일반 감정의 조절과 기질의 변화 강조

① 특징

- 이황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함
- 인간의 도덕 문제와 함께 현실 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임

② 이기론

- 이기지묘(理氣之妙): 이와 기는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과 사단 칠정론

- 사람은 이(理)와 기(氣)의 결합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두 가지는 서로 발용(發用)하며, 발함에 서로가 서로를 따른다. 서로가 발하니[互發(호발)] 각각 주(主)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퇴계전서” -
- 이와 기는 본래 서로를 요구하여 체(體)가 되고 서로를 기다려 용(用)이 된다. 그러므로 이가 없는 기는 있을 수 없고 또한 기가 없는 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취하여 말하는 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역시 나누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마치 성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성에서는 이미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하면서 정에 이르러서는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 - “퇴계전서” -
-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까닭에 마치 하나의 사물인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기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는 무형(無形)이고 기는 유형(有形)이며,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기 때문이다. 무형무위이면서 유형유위인 것의 주재가 되는 것은 이요, 유형유위이면서 무형무위인 것의 그릇이 되는 것은 기이다.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므로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된다. 이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이므로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게 된다. - “율곡전서” -
- 사물 가운데 그릇을 떠나지 못하고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은 오직 물뿐이다. 그러므로 물만이 이(理)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이 본시 맑은 것은 성(性) 본연이 선한 것과 같고, 담는 그릇에 청탁이 갈지 않음은 기질의 다름과 같다. 그릇이 동(動)하면 물도 동하는 것은 기가 발하면 이가 타는 것과 같고, 그릇과 물은 함께 동하므로 그릇의 동과 물의 동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이발 기발이 다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릇이 동하면 물은 반드시 동하나 물이 스스로 동하지 못하는 것은 이는 무위이나 기는 유위인 것과 같다. - “율곡전서” -

이황은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한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반면, 이이는 이는 형체와 조작이 없기 때문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한 가지뿐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라고 본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며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無形無爲(무형무위)],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음[有形有爲(유형유위)]을 강조함
-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이는 말하는 까닭이고, 기는 말하는 것이므로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라는 한 가지 길만이 옳음
- 이통기국론(理通氣局論): 형태가 없는 이는 통하고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됨
- ③ 사단 칠정론
 - 주희의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理氣不相離(이기불상리)].”라는 주장에 주목하여 사단과 칠정이 분리될 수 없다고 봄
 -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으로 파악함
 -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七包四(칠포사)],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라고 주장함
- ④ 수양론
 - 이의 본연인 선의 실현을 위해 기질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함
 - 경(敬)을 통해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함
- ⑤ 사회 경장론: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과 관련된 개혁을 주장함 → 실학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줌

2 한국 실학과 도덕 본성: 정약용의 사상

(1) 실학의 등장

① 등장 배경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현실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함
-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구 문물이 유입됨

② 특징

- 민생의 구제와 국부의 증대를 추구하는 사회 개혁론을 제시함

- 성리학과 구별되는 인간관과 도덕론을 제시함
- (2) 정약용의 실학사상: 이법적 실체에 대한 비판과 마음의 기호 강조

① 특징

- 이법적 실체인 이(理)를 본성으로 보는 성리학을 비판하고 선진 유학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심성론과 덕론을 제시함
-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실학을 집대성함

② 심성론

- 성기호설(性嗜好說): 인간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임

형구(形軀)의 기호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과 관련된 기호 → 인간과 동물 모두가 지니고 있음
영지(靈知)의 기호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기호,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 → 인간만이 지니고 있음

-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 강조: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음
- 인간의 욕구(欲(욕))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인정함: 욕구는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함

③ 덕론

-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
- 인의예지는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임
- 성리학과 정약용의 사단, 사덕의 비교

구분	성리학	정약용
사단(四端)	선천적으로 지니는 선한 마음	
사덕(四德)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음	사단의 확충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됨

자료와 친해지기 정약용의 덕론

- 인간은 선(善)을 좋아하고 악(惡)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을 성(性)이라 하며 이것을 성선(性善)이라 한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말에 “나는 화와 구이를 좋아하고 쉬거나 썩은 음식은 싫어한다. 나는 악기 소리를 좋아하고 개구리 소리는 싫어한다.”라는 게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호를 성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도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늘 기호로써 설명했다. 공자도 도를 지키고 덕을 좋아하는 시구(詩句)로 인성을 설명했다. 기호를 버리고 성을 말하는 것은 공맹의 학[洙泗學]이 아니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 하늘[天]이 인간에게 자주지권을 부여하여,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하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하게 하였으니, 그 향방은 유동적이고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있어서 금수가 고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면 실로 자신의 공이며, 악을 이루면 실로 자신의 죄이니,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지 성이 아니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해하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만으로 인(仁)이라 할 수 없다. 누군가 욕을 하거나 발로 차면서 밥을 줄 때 수치스러워하면서도 버리고 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만으로 의(義)라 할 수 없다. 귀한 손님이 대문 앞에 왔을 때 공경하면서도 마중을 나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만으로 예(禮)라 할 수 없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울고 그릇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지 못하다면, 그 마음만으로 지(智)라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마음은 고유한 것이지만 인·의·예·지는 측은·수오·사양·시비의 확충임을 알 수 있다. - 정약용, “맹자요의” -

정약용은 하늘이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 의지(自主之權(자주지권))를 부여했지만, 인간이 의지의 자율성에 따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인의예지를 선천적 본성[性]으로 보는 성리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사덕은 사람의 마음에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행동(사단의 확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03

▶ 23057-0023

그림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情)은 하나인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칠정이라고도 하는 것은 오로지 이(理)만을 말한 것과 기(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겸하듯이 칠정은 사단을 겸합니다.

정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성(性)에 본연과 기질의 구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성에서 발하고, 칠정은 외물(外物)이 사람의 형기(形氣)에 접촉하여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나오는 것입니다.



-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이 서로 다른 연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을 겸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사단은 이가 발한 성, 칠정은 기가 발한 정으로 본다.
- ⑤ 갑과 을은 하늘이 부여한 이는 순선하며 사람의 마음에만 있다고 본다.

04

▶ 23057-0024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기를 타는 하나의 길만이 있다는 주장은 사람이 말이 가는 대로 말기며 말이 사람의 뜻에 따른다는 비유와 통할 수 있다.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하나의 길만이 있다는 주장은 본원(本原)을 추구한 논리이며, 사람은 말이 가는 대로 말기며 말은 사람의 뜻에 따른다는 주장은 말류(末流)를 따라서 본 논리이다. 성(性)과 정(情)은 이기호발(理氣互發)이 아니다.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결코 두 개의 성이 아니며, 사단과 칠정도 두 갈래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을: 옛사람들의 비유에서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벗어나게 되니, 사람과 말이 서로 의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이 비유에서 “사람이 간다.”라고 한다면 타고 있는 말은 함께 말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포함되니, 사단(四端)이 이것이다. 또한 “말이 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까지 함께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가는 것은 그 속에 포함되니, 칠정(七情)이 이것이다.

보기

- ㄱ. 사람을 태우고 가는 말처럼 기는 형태가 있고 운동성을 지니는가?
- ㄴ. 이가 발현함은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몰아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가?
- ㄷ. 사람과 말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기는 사물에서 분리될 수 없는가?
- ㄹ. 칠정이 악으로 흐르게 됨은 사람이 탄 말이 제멋대로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5

▶ 23057-0025

(가)를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마음의 이치는 매우 방대하여 잡을 수 없고 매우 넓어서 끝을 볼 수 없으니, 만약 경(敬)으로 일관하지 않으면 어찌 능히 그 성(性)을 보존하여 본체를 세우겠는가. 마음이 발하는 것은 미묘하여 미세한 털끝을 살피는 것보다 어렵고, 구멍이를 뚫는 것처럼 위태로우니 진실로 경으로 일관하지 않으면 어찌 그 기미를 바르게 하고 그 쓰임에 통달할 수 있겠는가.					
(나)	㉠	그러면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① 항상 밝게 깨어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② 경을 유지하면서 이(理)에 의거하여 행동해야 한다.
- ③ 마음을 한군데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 ④ 기(氣)가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몸가짐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06

▶ 23057-002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 하늘은 사람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권형[權]을 주어서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고자 하면 악을 행하게 하여, 선악을 행하려는 방향이 변하여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그 저울질은 자기에게 있으니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짐승과는 다른 것이다.
- 과불급(過不及)의 차이는 사람에게 있지 사물에는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동적이며 짐승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데 어찌 과불급의 차이가 있겠는가? 보리의 성은 거름을 좋아하니 거름으로 배양하면 쭉쭉 자라나 통통해진다. 사람의 성은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으로 길러 나가면 마음이 호연하고 강대해진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이법적 실체인 이(理)이다.	✓	✓		✓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지(靈知)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	✓		✓		✓	
인간은 모든 욕구[欲]를 제거해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		✓	✓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7~08]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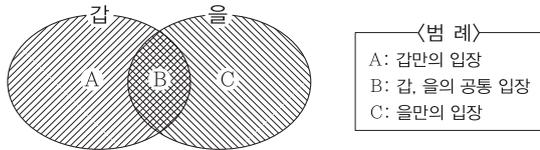
갑: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 것이므로 본래 순선(純善)하고 악이 없다. 그러나 이가 발하여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도리어 불선(不善)에 흘러들고 만다.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니 역시 나쁜 것이 없다. 그러나 만약 기가 발하여 중화(中和)를 이루지 못하고 이를 멸한다면 그때는 방자하고 악하게 된다.

을: 사단은 선한 정(情)의 별명에 불과하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니, 인심(人心), 도심(道心)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름 지은 것은 아니다. 칠정은 이미 사단을 그 가운데에 내포하고 있으니, 사단이 칠정이 아니라거나 칠정이 사단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07

▶ 23057-0027

갑, 을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다.
- ㄴ. B: 사단과 칠정의 차이는 기질의 맑고 흐림에서 비롯된다.
- ㄷ. B: 기가 절도에 맞지 않게 발하면 악한 감정이 될 수 있다.
- ㄹ. C: 사단은 무위인 이가 맑은 기를 타서 천리가 드러난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8

▶ 23057-002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인의예지는 비유하자면 꽃이나 열매라고 할 수 있으니, 그 근본은 마음에 있다. 측은과 수오의 마음이 안에서 발동하면 인의는 밖에서 이루어지고, 사양과 시비의 마음이 안에서 발동하면 예지는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네 가지 마음을 바탕으로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가 있다.

- ① 사단은 인의예지라는 덕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인간의 마음은 성(性)뿐만 아니라 사단과 칠정도 통괄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인의예지를 인간이 타고난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사단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性]이자 타고난 선한 마음[心]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수오지심은 타고난 정이지만 의는 실천을 통해 획득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09

▶ 23057-0029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나올 수가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곧 이기적 욕망에 빠져서 금수(禽獸)가 된다.</p> <p>을: 사단이나 칠정이나 모두 우리 마음에서 말미암는 것이지, 이와 기라는 각기 다른 구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군자들이 이발 기발 논변을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을 실천하여 사덕을 형성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다.</p>
(나)	

- ① A: 이는 기의 움직임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되는가?
- ② B: 인간의 순선(純善)한 감정은 이기적 욕망을 항상 이기는가?
- ③ B: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은 인의(仁義)의 성(性)에서 발하는 것인가?
- ④ C: 인간의 본성은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가?
- ⑤ C: 인간의 선악은 타고난 기질지성(氣質之性)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10

▶ 23057-0030

중국 유교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천지(天地)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사람과 만물은 태어날 때 각각 이 마음을 얻어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성(性)은 다만 이(理)일 뿐이다. 그런데 이는 기질(氣質)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청명한 기를 얻으면 가리거나 감히지 않아 이가 순순히 드러난다.

을: 기질의 성(性)이 고기를 좋아하기에[嗜好] 몸을 살찌우는 것과 같이 인성(人性)은 선(善)과 의(義)를 좋아하기에 마음을 살찌울 수 있게 된다. 성을 '좋아함'으로 볼 때 이 뜻이 제대로 밝혀진다. 하늘이 사람에게 준 성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긴다.

- ① 갑: 인간은 다른 사물과 달리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 ② 갑: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인 기의 측면에서 보면 만물은 똑같다.
- ③ 을: 불선(不善)의 근본 원인은 기질의 흐림과 치우침 때문이다.
- ④ 을: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육체로부터 기인하는 형구(形軀)의 기호를 지닌다.
- ⑤ 갑과 을: 하늘이 부여한 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1 불교의 연원

(1) 불교의 성립

- ①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싯타르타[석가모니]가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시함
- ② 석가모니가 자신의 깨달음[法(법)]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불교 교단이 형성됨

(2) 불교의 특징

- ① 삼학(三學: 계정혜)을 통한 체계적인 수행을 강조함

계(戒)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것
정(定)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
혜(慧)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般若[반야])를 얻는 것

- ② 석가모니는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열반을 방해하는 삼독[貪瞋癡(탐·진·치)]을 제거하고 삼학을 수행할 것을 강조함

2 초기 불교의 가르침

- (1) 연기설(緣起說):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이론

- ① 연기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음
- ② '나'와 '자연 만물'의 연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게 해 주고, 자비(慈悲)를 일깨워 줌

(2)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 ① 사성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제(苦諦)	•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음 • 대표적인 괴로움: 생로병사(生老病死)
집제(集諦)	고통은 무명(無明)과 애욕으로 인해 생겨남
멸제(滅諦)	무명과 애욕을 없애면 열반(涅槃)에 이르게 됨
도제(道諦)	• 무명과 애욕을 없애기 위해 중도(中道)를 닦아야 함 • 중도의 내용: 여덟 가지 올바른 길[八正道]임

- ② 팔정도: 깨달음을 위해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바른 수행 방법

-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정진(正精進) • 정념(正念) • 정정(正定)

(3) 사법인설(四法印說)

-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원인과 조건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은 끊임 없이 생멸하고 변화함
- ② 제법무아(諸法無我): '나'라고 주장할 만한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
- ③ 일체개고(一切皆苦): 변화하는 모든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음
- ④ 열반적정(涅槃寂靜): 열반은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임

3 대승(大乘) 불교

- (1) 부파 불교에서 강조된 교법의 체계화가 법의 실재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 또한 비유비무(非有非無)인 공(空) 사상을 강조함

- (2)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 측면과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살을 제시함

(3) 중관(中觀) 사상

- ① 대표적 사상가인 용수는 공의 원리를 근거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성질의 의미를 갖는 자성(自性) 개념을 비판함
- ② 초기 불교의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 사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봄
- ③ 중도(中道)를 강조: 유(有)에 집착하는 관점과 무(無)에 집착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함
- ④ 중관: 중도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함

(4) 유식(唯識) 사상

- ① 공의 원리에 따라 불변의 본질을 가진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마음 작용인 식(識)으로 존재한다고 봄
- ② 유식: 식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음을 말함
- ③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一切唯心造]임을 강조함
- ④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하는 요가 수행을 강조함

자료와 친해지기 초기 불교의 연기설과 팔정도

무명이 앞서 나타나면, 모든 선하지 않은 법이 생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에게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 그에 따라 사된 견해가 생기고, 사된 견해가 생기게 되면 사된 사유·사된 말·사된 행위·사된 생계·사된 정진·사된 마음 챙김·사된 선정이 일어난다. 만일 명(明)을 일으켜 그것이 앞서 나타나면, 모든 선한 법이 생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남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게 된다. 그에 따라 바른 견해가 생기고, 바른 견해가 생기게 되면 바른 사유·바른 말·바른 행위·바른 생계·바른 정진·바른 마음 챙김·바른 선정이 차례로 일어난다. 바른 선정이 생기게 되면 탐욕·성냄·어리석음에서 바르게 해탈한다. 이와 같이 바르게 해탈하면 밝게 아는 견해를 얻어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다 마쳐 후세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게 된다.

- "잡아함경" -

석가모니는 세상 모든 것이 원인[因(인)]과 조건[緣(연)]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설법하였다. 그는 연기법에 근거하여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어 이상적 상태인 열반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4 교종(敎宗)과 선종(禪宗)

(1) 교종

- ① 교종: 부처의 말씀인 경전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종파
- ② 여러 경전에 담긴 부처의 가르침[敎]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判]함. 교판을 완성한 불교 사상가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대승 불교 경전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이해함
- ③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 계율의 실천과 수행을 통한 성불(成佛)을 중시함
- ④ 교종의 다양한 종파

천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나라의 천태 대사 지의(智顚)에 의해 체계화됨 • 마음의 집중인 지(止)와 통찰 수행인 관(觀)을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함
화엄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태종과 함께 중국 교종의 쌍벽을 이룸 • 모든 존재가 서로 원인이 되어 융합하고 있으므로, 분별과 대립이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봄
정토종	아미타불의 도움으로 정토(淨土)에 태어나 성불하기를 바라는 종파임

(2) 선종

- ① 남북조 시대 달마 대사에 의해 성립되고 해능에 의해 정립됨
- ②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는 돈오(頓悟)를 주장함
- ③ 직관적 종교 체험인 선(禪)의 수행을 강조함
- ④ 선종의 특징
 - 불성(佛性)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고 주체적인 자아의 완성과 해탈을 강조함
 -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直指人心(직지인심)],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음[見性成佛(견성성불)]을 강조함
 - 언어와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不立文字(불립 문자)], 문자 밖에서 깨닫는 것[敎外別傳(교외별전)]을 중시함
 -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以心傳心(이심전심)]을 중시함

5 한국의 불교 사상: 조화 중시

(1) 불교의 수용

- ① 삼국 시대에 왕권 강화 및 중앙 집권화, 민심 안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수용함
- ② 불교의 수용 과정
 - 신라: 교종을 먼저 받아들인 후 통일 신라 시대에 선종을 수용함
 - 고려: 교종과 선종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

(2) 원효의 사상

- ① 종합적인 불교 이론의 전개: 어떤 경전을 중시하는가를 따지는 중국 불교와 달리 종합적으로 불교 사상을 이해하고자 함
- ② 일심(一心) 사상: 일심은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나와 너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불이(絕對不二)한 것. 일심으로 돌아가면, 중생도 본래 깨달음의 경지에 있음을 알게 됨
- ③ 화쟁(和靜) 사상: 대립·갈등하는 여러 불교 종파의 주장들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려는 사상임
- ④ 일심으로 돌아가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봄
- ⑤ 왕실 중심의 불교를 민중 불교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였음

(3) 의천의 사상

- 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함
- ② 교관겸수(敎觀兼修): 불교의 이론적 교리 체계인 '교(敎)'에 대한 탐구와 실천적 수행인 '지관(止觀)'을 함께 닦아야 함
- ③ 내외겸전(內外兼全): 선종에서 강조하는 마음 공부[內]와 교종에서 강조하는 교리 공부[外]를 함께 온전히 해야 함

(4) 지눌의 사상

- 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함
- ② 돈오점수(頓悟漸修):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習氣)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함
- ③ 정혜쌍수(定慧雙修):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아 나가는 것
- ④ 선교일원(禪敎一元): 부처가 입으로 설한 것이 '교(敎)'이고 조사가 마음으로 전한 것이 '선(禪)'이므로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임
- ⑤ 한국적인 선(禪) 체계 제시: 깨달음에 이르는 선 수행의 한 부분으로 교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종과 교종의 공존을 추구함

자료와 친해지기 원효의 일심(一心) 사상

불도는 넓고 탕탕하여 방향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영구히 의거할 곳도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 다른 견해도 모두 부처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백가(百家)의 설이 옳지 않은 것이 없고 팔만의 법문이 모두 이치에 계합된다. 그러나 견문이 적은 사람은 좁은 소견에 치우쳐, 그와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은 (진리를) 얻었다고 하지만,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일탈했다고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갈대 대롱으로 하늘을 보면서 그 대롱이 아니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것을 가리켜 '적은 것을 믿고 많은 것을 비방하는 어리석음'이라 한다. (보살은) 양극단을 멀리 떠나 모든 죄를 멸하고 평등하게 일미(一味)를 맛보며 방외(方外, 세속을 초월한 출세간)에 노닌다. - "보살계본지법요기" -

원효의 일심은 마음이 모든 것의 바탕이고 근거라는 의미이다. 이는 세간의 현상적인 것과 출세간의 본체적인 것이 둘이 아님을 깨달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일심은 화쟁 사상의 근거가 된다. 화쟁이란 궁극적으로 일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며, 일심으로 원융하는 세계로의 돌아감[歸一心源(귀일심원)]이 화쟁의 완성이다.

01

▶ 23057-0031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마땅히 색(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색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 [如實知]이라 한다. 수(受)·상(想)·행(行)도 마찬가지이다. 식(識)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식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보기

- ㄱ. 무명(無明)의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 ㄴ. 중생의 인식 작용으로 확인된 세계만이 실재하고 변화하지 않는다.
- ㄷ. 연기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는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 ㄹ. 올바른 정신 집중에 머물러도 현상을 통찰하는 지혜 없이는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2

▶ 23057-003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어떤 이를 대장부(大丈夫)라 하며, 어떤 이를 대장부가 아니라고 하는가? 만일 수행자가 몸[身]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생각에 머물기는 하지만, 그가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생각에 머물면서 마음[心]이 욕심을 여의지 못하여 해탈하지 못하고 모든 번뇌를 다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를 대장부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생각에 머물면서 마음이 욕심을 여의어 해탈하고 모든 번뇌를 다했다면 나는 그를 대장부라고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해탈하였기 때문이다. 느낌[受]·마음·법(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을: 어떤 이를 대장부라 하는가? 그는 천하의 넓은 집[仁]에서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禮]에 서며, 천하의 큰 도[義]를 행한다. 관직에 등용되었을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 그 도를 행하고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을 때에는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도 그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못하고 가난함과 천함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며 위세와 무력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 ① 갑: 진리[法]에 대한 의지와 집착에 계속 머물러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 ② 갑: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 ③ 을: 도덕적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거나 버리게 된다.
- ④ 을: 통치자는 인의(仁義)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⑤ 갑과 을: 사물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멀리하고 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03

▶ 23057-0033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함께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뜻이 굳은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이루는 일은 있다.</p> <p>을: 함께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논의하라. 그것은 이치에 도움이 되고 법에 도움이 되며 범행(梵行)에 도움이 되고 바른 지혜·바른 깨달음이며 바르게 열반으로 향하게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자기 생명의 보존이 덕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 ㄴ. B: 스스로 수양에 힘쓰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ㄷ. B: 현자(賢者)를 존중하고 가르침에 따르면 진리를 얻게 됨을 알아야 한다.
- ㄹ. C: 우리의 삶은 업(業)에 의해 결정되어 바뀔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4

▶ 23057-0034

불교 사상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만약 일체가 공(空)하지 않다면 곧 생겨나고 소멸함도 없을 것이고 이와 같다고 하면 곧 사성제의 법(法)도 없을 것이다. 고(苦)가 조건에 따라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가 있겠는가? 무상하다는 것이 고의 뜻인데 고정된 자성(自性)이라면 무상도 없을 것이다. 만약 고에 자성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집(集)에서 생기겠는가? 그러므로 집도 없을 것이니 공의 뜻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나) 세간과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자아와 법이 있다고 말한 것은 다만 임시적인 것[假]에 의거해서 건립된 것이지 실제로 체성(體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부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내부의 식(識)만이 존재하여 외부 인식 대상을 닮은 형상으로 나타난다[似現].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 같은 외부 대상은 모두 실재하지 않는다. 습기가 마음을 어지럽혀서 혼탁하게 하는 것이다.

보기

- ㄱ. (가)는 업(業)을 보존하는 씨앗[種子]이 중생의 마음속에 저장된다고 본다.
- ㄴ. (가)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 언어로 표현되는 진리는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ㄷ. (나)는 분별을 본성으로 하는 식(識)을 변화시켜 분별 없는 지(智)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가)와 (나)는 공 사상을 기반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5

▶ 23057-0035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관행(觀行)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교(敎)를 연구함을 거리끼지 않음은 옛 스승들께서 도에 들어간 인연을 살피어 샅되고 바름을 가려내고 결단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할 따름이지,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세는 것처럼 헛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다. 옛 스승의 말처럼 보살의 근본은 남을 제도함이니, 이 때문에 먼저 정혜(定慧)를 닦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이 본래 맑고 깨끗하며 번뇌의 성품이 공함을 먼저 비추어 보고, 다시 부지런히 샅되고 바름을 결택(決擇)하는 수행을 더하니, 깨달음의 지혜가 항상 밝다.

보기

- ㄱ. 염불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 ㄴ. 진리는 문자보다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 ㄷ. 자기 내면에 있는 참된 본성을 직관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 ㄹ. 깨달음 후에도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6

▶ 23057-0036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이문(二門)을 연 이유를 살펴보면 비록 교문(敎門)이 많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갈 때는 이문을 벗어나지 않으니 진여문(眞如門)에 의지하여 지행(止行)을 닦고 생멸문(生滅門)에 의지하여 관행(觀行)을 일으킴을 밝히는 것이다. 지와 관을 균등하게 운용하면 모든 수행이 이에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진여문과 생멸문의 이문에 들면 모든 문을 다 통달한다. 이와 같이 의혹을 제거해야만 수행을 능히 일으킬 수 있다.

을: 선가(禪家)에서 교종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이심전심만을 주장함은 최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다고 부족한 자질의 사람이 천박한 학문으로 하나의 도리를 터득하고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가 하면 경전의 가르침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더 볼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잘못이다. 교(敎)와 관(觀)에 마음을 다 써야 한다.

보기

- ㄱ. 갑: 모든 생명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 ㄴ. 갑: 글을 모르는 사람도 본래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 ㄷ. 을: 여러 종파의 사상을 조화시켜 부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 ㄹ. 갑과 을: 엄격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 후에 중생 구제의 자격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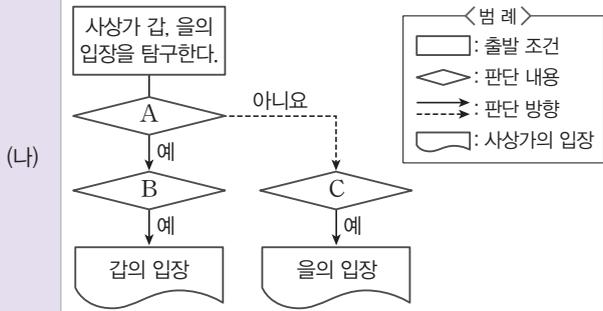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07

▶ 23057-0037

(가)의 중국 불교 사상이 가, 한국 불교 사상이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정(定)과 혜(慧)는 곧 등불과 빛과 같다.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이름은 비록 둘이나 몸은 둘이 아니니, 정과 혜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계정혜조차도 세우지 않는다.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하여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무엇을 세우겠는가? 자기의 성품을 단박에 닦으라[自性頓修]. 세우면 절차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 것이다.
을: 정과 혜를 함께 실천하고 온갖 행을 가지런히 닦을 수 있다면, 어찌 한갓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선(禪)과 단지 글자만 탐구하는 미친 지혜의 사람과 견주겠는가. 또 선을 닦는 한 문[一門]이 가장 친절하여 능히 성품 위의 번뇌 없는 공덕을 드러낸다. 만약 뜻을 얻고 닦는 사람이라면, 말하고 침묵하는 생각 생각이 텅 비고 현묘하며 마음 마음이 밝고 미묘하여 온갖 덕과 신통 광명이 모두 그 가운데서 드러난다. 어찌 도를 구하는데 본래 성품만 믿고 스스로 안주하여 정혜를 온전하게[專] 하지 않겠는가?



보기

- ㄱ. A: 진리란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지 않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 ㄴ. B: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불성을 형성시켜야 하는가?
- ㄷ. C: 경전 공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 ㄹ. C: 점진적인 수행의 방법은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8

▶ 23057-0038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살이 일체지(一切智)에 상응한 마음으로 안팎의 가진 것을 모두 보시하되 온갖 중생들과 함께*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에 공덕을 돌려 향함으로도 얻는 바가 없다. 이것을 보살의 보시바라밀이라 한다. ... (중략)... 무엇을 지혜바라밀이라 하는가? 보살이 일체지에 상응한 마음으로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온갖 법의 성품을 관찰하되 얻는 바가 없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온갖 법의 성품을 관찰하게 하되 얻는 바가 없다. 이것을 보살의 지혜바라밀이라 한다.

*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석가모니가 깨달은 가장 뛰어나고 그 위가 없고 진실하고 보편타당한 바른 이치

- ① 보시한다는 상(相)에 머무르지 않아야 진정한 보시이다.
- ② 타인에게 재물을 보시하는 행위에는 공덕이 있을 수 없다.
- ③ 중생의 마음속 두려움을 없애 주는 행위도 보시라고 할 수 있다.
- ④ 현상의 실제 모습을 통찰하고 타인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 ⑤ 생멸하고 변화하는 모든 것은 공(空)하지만, 공도 불변의 실체라 할 수 없다.

09

▶ 23057-0039

그림은 한국 사상가 갓,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갓,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생을 교화할 때는 교문(敎門)을 드러내고 밝혀서 널리 퍼지게 해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대개 선의 근원(禪源)을 맛보게 됩니다. 가고 숨고, 나아가고 물러남이 모두 도를 말미암으니 산속이나 속세에서 누가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말하겠습니까? 근래에 불법(佛法)을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오(頓悟)하였다고 생각하여 교학과 성(性)과 상(相)을 말하는 것을 멀리하여,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니 모두 안팎으로 겸학(內外兼全)하지 않은 허물입니다.



갓

깨친 뒤에도 늘 비추고 살피서 망념을 따르지 말고, 덜고 또 덜어서 무위(無爲)에 이르러야 비로소 최상[究竟]이 됩니다.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소 먹이는 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 하지만 망념이 본래 공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먼저 깨쳤기 때문에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아도 닦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닦음이고 참다운 끊음입니다.



을

보기

- ㄱ. 갓은 지(止)와 관(觀)을 병행해야 돈오 이후 형성되는 자성이 청정해진다고 본다.
- ㄴ. 을은 언어와 문자는 깨달음에 방해가 될 뿐이므로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돈오 후에도 점진적 수행을 해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ㄹ. 갓과 을은 원융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의 사상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0

▶ 23057-0040

한국 사상가 갓, 중국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갓: 불성의 체(體)는 바로 일심(一心)이다. 일심의 성품은 모든 극단적 견해를 초월한 것이다. 모든 극단적 견해를 초월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른 주장이 모두 그르기도 하고 모두 옳기도 하다는 것이다.

을: 근기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頓敎)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正見)를 일으키면 번뇌하는 중생이 모두 당장에 깨친다.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견성(見性)이다.

보기

- ㄱ. 갓: 참선 수행을 통해서만 열반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 ㄴ. 갓: 여러 종파의 쟁론은 일심을 바탕으로 융합되고 회통하게 된다.
- ㄷ. 을: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함을 확인하면 누구라도 곧 성불하게 된다.
- ㄹ. 갓과 을: 정(定)과 혜(慧)의 수행을 통해 잃어버린 불성을 형성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 도가 사상의 출현

춘추 전국 시대에 나타난 노자와 장자의 사상으로 '노장(老莊)사상'이라고도 함

(1) 노자의 윤리 사상**① 사회 혼란의 원인과 극복 방안**

원인	•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 제도
극복 방안	• 소박하고 순수한 도(道)와 자연스러운 덕(德)을 실현함 • 억지로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함. 인위가 없을 때 자연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됨[無不爲]

② 도(道)의 의미와 특징

의미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
특징	•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음 • 인간의 언어로 한정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음 • 도가 자연스럽게 현실 속에서 드러난 것이 덕임

③ 이상적인 삶의 원리

- 무위자연(無爲自然): 인위가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 무지(無知), 무욕(無欲)의 덕을 갖추어야 함
- 상선약수(上善若水): '옳음이 되는 선(善)은 물과 같다.' →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임 → 물이 갖고 있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중시함
- 성인(聖人): 겸허와 부쟁 등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이상적 인간

④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

- 소국 과민(小國寡民):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로, 인위적 문

명의 발달이 없고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소규모의 이상적 공동체인

- 무위의 다스림[無爲之治(무위지치)]: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로,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치가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봄

(2) 장자의 윤리 사상

① 특징: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강조함

② 도: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천지 만물에 내재하는 것임

③ 이상적인 삶과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인 삶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며, 주위 환경에 의해 본심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와 일치되어 살아가는 삶
수양 방법	• 좌망(坐忘):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림 • 심재(心齋): 허(虛)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감각과 지식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함
이상적 경지	• 소요유(逍遙遊):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앴으므로 도달하게 되는 경지 • 제물(齊物): 도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선악, 미추,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경지 • 몰아일체(物我一體):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이상적 인간상	• 수양을 통해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인간 • 지인(至人), 진인(真人), 신인(神人), 천인(天人), 성인(聖人) 등

자료와 친해지기 노자의 도(道)와 덕(德)

-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陰)을 지고 양(陽)을 안으며 음양 두 기운이 융합해 조화를 이룬다.
-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 야깁(齋)만 한 것이 없다. 무릇 오직 야깁 뿐이니, 그러면 일찌감치 도에 따르게 된다. 일찌감치 도에 따르면 덕이 많이 쌓이고 덕이 많이 쌓이면 못하는 일이 없으며 못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도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 한계를 알지 못하면 나라를 보유하게 된다. 나라를 보유할 수 있는 근본을 지니면 오래갈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뿌리를 깊게 하고 바탕을 튼튼히 하여 오랫동안 유지하는 도라고 말한다.

- "도덕경" -

노자는 도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라고 보았다. 덕은 도가 개별적인 사물에 전개되어 그 개체의 본성을 이룬 것이라고 하였다. 노자는 자연을 본받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며 자연을 본받은 도를 따를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2 도교 사상

(1) 도가와 도교의 비교

구분	도가	도교
공통점	도를 중심으로 그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전개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자와 장자를 대표로 하는 철학 사상 •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 철학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가 사상에 민간 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종교화한 것 • 현세적인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면서 불로장생과 신선술을 믿는 종교

(2) 도교 사상의 성립과 전개

① 황로학파(黃老學派): 전한(前漢) 시대

-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老子)를 숭상하고, 무위(無爲)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함
- 도가를 중심으로 유가, 묵가, 법가 등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을 수용함

② 교단 종교: 후한(後漢) 시대

- 태평도(太平道): 천하태평의 이상 사회를 현실에 실현시키려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며 포교 활동을 함
- 오두미교(五斗米教): “도덕경”을 기본 경전으로 삼고,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면서 삼관수서(三官手書)를 행함

③ 현학(玄學): 위진(魏晉) 시대

- 노장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면서 청담(淸談) 사상을 제시함
- 청담을 통해 인간의 고정 관념을 초월한 무(無)의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보면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함
- 죽림칠현(竹林七賢):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던 사상가들
- 위진 시대 이후 동양의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 천진(天真), 소박(素樸) 등을 중시하거나 소요유 같은 이상적인 경지에 대한 동경을 담은 예술이 나타남

(3) 도교 사상의 특징

- ① 생명 중시: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선(神仙)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외단(外丹)과 내단(內丹)을 통한 양생(養生)을 중시함. 의학의 발전에 기여함
- ② 이상 사회의 방향 제시: 종교적 구원을 내세우면서 이상적 사회상을 제시함

3 한국의 도가·도교 사상

(1) 도교의 국가적 수용과 과의(科儀) 도교 발달

- ① 도교의 원류를 찾을 수 있는 한국 고유 사상: 산신 사상과 신선설,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 기록된 풍류도(風流道) 등
- ② 과의 도교의 발달

의미	각종 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교. 국가 차원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재초(齎醮)가 중심이 됨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초는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성행하였으며, 조선 중기까지 거행되었음 • 재초는 제천 행사였던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초와 결합하여 고려 시대부터 국가적인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음 • 조선 시대에는 수련 도교가 성행함

(2) 한국의 도가·도교와 과학

- ① 수련 도교의 수용: 마음의 수련과 기의 단련을 함께 수행하는 “활인심방”이 유행함
- ② 의학의 발전: 도교의 양생법은 의학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함
- ③ 도가·도교와 다른 사상의 융합
 - 유교·불교 사상의 흡수: 유교의 인의(仁義)나 충효(忠孝) 사상,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상을 수용함
 -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 수용: 땅이 지닌 생기를 찾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신앙
 - 팔관회: 민간 신앙, 불교 및 도교가 결합된 고려 시대의 행사

4 도가 사상의 현대적 의미

(1) 진정한 행복의 의미 제시

- ① 행복은 세속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 있음
- ② 부, 명예, 아름다움 등 세속적 가치는 상대적이며 그것에 얽매어는 것은 불행해질 수 있음
- ③ 세속적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함

(2)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 해결에 시사점 제공

- ①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우월적인 사고에 있음
- ② 시사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그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

자료와 친해지기 도교의 생명관(生命觀)

- 도(道)는 볼 수 없으나 생(生)을 통해 도를 밝힌다. 생은 영원하지 않으나 도를 통해 이를 지킨다. 만일 생이 없어진다면 도가 무너지며 도가 무너지면 생도 멈춘다. 생과 도가 하나가 되면 장생불사(長生不死)할 수 있다. - “태상노군내관경” -
- 옛글에 다음과 같이 이른다. 사람이 항상 도를 잃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언제나 생을 떠나는 것이지 생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생(養生)하는 자는 도를 잃지 않도록 몸을 삼가야 한다. 도는 생과 함께 서로를 지키고, 생은 도와 함께 서로를 보호하게 한다. - “양생연명록” -

도교는 중국 고대부터 내려오는 민간 신앙과 신선 사상 그리고 도가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교는 심신을 수양하여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내단(內丹)과 외단(外丹)을 통한 양생을 중시하였다. 이를 통해 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03~04]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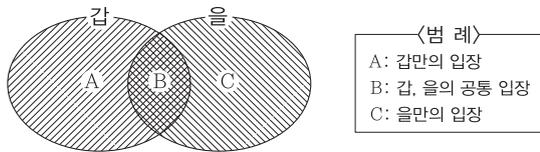
갑: 대인(大人)의 가르침은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고 소리에 울림이 따르는 것과 같이 의문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을 하여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을 다 털어놓는다. 그래서 온 천하의 짝[伴侶]이 된다. 그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함에 몸을 두고, 일정한 방향도 없는 자유로운 행동을 한다. 허둥지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대들을 이끌어 무한한 경지에 노닐게[逍遙遊] 할 것이다.

을: 대인은 예(禮)가 아닌 예와 의(義)가 아닌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가 한 말이 반드시 신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행동에 반드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오직 의리에 맞아야만 한다고 할 따름이다. 대인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03

▶ 23057-0043

갑, 을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누구든 수양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ㄴ. A: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 ㄷ. B: 사람은 본래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 ㄹ. C: 의로운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4

▶ 23057-004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인(聖人)은 억지로 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 않고 억지로 잡지 않으므로 놓치지 않는다. 백성들의 일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곤 한다. 마지막도 처음처럼 신중히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배워서 사람들이 짓는 잘못을 회복시킨다. 이런 식으로 성인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도울 뿐 감히 억지로 도모하지 않는다.

보기

- ㄱ. 하늘이 도덕규범과 자연 운행의 근거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 ㄴ. 의와 예를 강조하면 세상이 어지럽게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ㄷ. 도는 언어로 규정할 수 없지만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ㄹ. 욕심을 멀리하고 인격 완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1 조선 후기의 유교 사상

(1) 실학

① 특징

- 공리공론(空理空論)이나 허학(虛學, 공허한 학문)을 반대하면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함
-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 및 종교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성리학파와 다른 세계관과 인간관 및 도덕관을 제시함
- 우리의 역사, 지리, 풍속 등에 대한 독자적인 탐구를 전개함

② 주요 경향

경세치용(經世致用)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함
이용후생(利用厚生)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학문을 추구함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입각해서 옳음을 구함

(2) 강화학파

- ① 하곡 정제두에 의해 독자적인 조선 양명학 체계가 수립되었으며, 하나의 학파[江華學派(강화학파)]를 이루게 됨
- ② 왕수인의 양명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킴 → 마음 안에서 생생하게 작용하는 이치인 생리(生理)를 중심으로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양지를 실천할 것을 강조함

2 근대 격변기의 사상과 신흥 민족 종교

(1)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

- ① 위정척사의 의미: 올바른 것[正,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은 지키고 거짓된 것[邪,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배척해야 함
- ② 대표적인 학자: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등
- ③ 의의: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과 절의(節義)를 강조하는 선비 정신의 표출로 볼 수 있음 → 훗날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짐

(2) 개화사상

- ① 개화의 의미: 개발하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에 나아가 자립함

② 유형: 유교 사상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나뉨

온건 개화론	유교적 가치와 질서(東道(동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 [동도서기론] 기술과 군사 제도[西器(서기)]를 수용하자는 입장
급진 개화론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입장 → 전통적 [변법적 개화론] 정치 체제를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함

(3) 신흥 민족 종교 사상

① 신흥 민족 종교의 공통점

- 우리 겨레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함
- 사회 변혁을 주장하며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백성의 열망을 반영함 → 후천 개벽 사상

② 대표적 신흥 종교

구분	특징	중심 사상
동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제우가 제창한 민족 종교 •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함 • 인본주의,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함 • 신분 차별, 남녀 차별, 노소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천주(侍天主):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 • 사인여천(事人如天): 사람 대하기를 하늘 섬기듯 함 •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임 • 오심즉여심(吾心即汝心):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임 • 성(誠), 경(敬), 신(信)의 수양을 강조함
중산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일순이 창립한 민족 종교 •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의 사상을 해석하여 사상적 기초를 닦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원상생(解冤相生):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며 함께 살아감 • 현세에서의 지상 낙원 실현을 주장함
원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종빈이 창립한 민족 종교 • 기존 불교를 개혁하여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면서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상(一圓相)의 진리: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일원상(○)으로 표현 • 영육쌍전(靈肉雙全):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

자료와 친해지기 강화학파와 위정척사 사상

- 마음[心]의 천리(天理)는 이것이 하늘의 법칙[天則]이요 본체이다. 이른바 이(理)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라는 것은 곧 기(氣) 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가 기에 내재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그렇더라도 이것은 곧 하늘의 법칙이며 본연의 하늘에서 나온 것이니, 이른바 하늘의 명(命)일 뿐이다. 이 때문에 이를 도심(道心)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성(至誠)이라고 하는 것이며 천명(天命)의 성(性)이라고 하는 것이다. - "하곡집" -
- 저들이 비록 왜인(倭人)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賊)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교역하는 속에 섞여 들어오게 되고, 선교사가 전수하여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집집마다 사학을 받아들여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신하는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이 변하여 금수(禽獸)가 될 것입니다. - "지부복굴척화외소" -

강화학파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권위에서 벗어나 인간의 주체성과 지행일치를 강조하였으며, 이후 실학과 개화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를 바른 것으로, 서양 및 일본의 문물을 사악한 것으로 구분하여 유교의 도덕적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3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과 시민

(1)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그 의미

- ① 군자의 특징: 인의(仁義)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인격 완성을 위해 도덕적 수양에 힘쓰고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
- ② 군자의 현대적 의미: 사랑의 정신과 정의감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음

(2)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그 의미

- ① 보살의 특징: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上求菩提(상구보리)] 아래로는 중생 구제에 힘씀[下化衆生(하화중생)] → 중생과 더불어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함
- ② 보살의 현대적 의미: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음

(3)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과 그 의미

- ① 지인(진인, 신인, 천인)의 특징: 자연의 도를 따름 → 겸허한 자세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며, 만물을 평등하게 보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림
- ② 지인의 현대적 의미: 자연을 존중하고 만물을 차별하지 않으며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소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음

4 한국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

(1) 한국 사상의 연원과 특징

- ① 한국 사상의 연원: 건국 신화와 무속 신앙
 - 건국 신화: 고조선의 단군 신화, 고구려의 주몽 신화,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 등 → 대부분의 건국 신화에는 인본주의, 평화 애호 정신, 경천사상 등이 깃들여 있음
 - 무속 신앙: 주술사인 무(巫, 샤먼)를 통해 앞날을 예언하고, 복을 빌고, 병을 물리치며,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냄 → 굿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빌면서,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 내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함

② 한국 사상의 특징

인본주의 정신	• 환웅이 인간 세상을 동경하고[貪求人世(탐구인세)], 꿈과 호량이 인간이 되기를 원함[願化爲人(원화위인)]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
현세 지향적 가치관과 평화 애호 정신	• 사회 정의와 도덕 중시: 환웅이 인간의 질병, 형벌과 선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세상을 다스림 • 건국 신화 속의 신과 인간, 동물들의 평화로운 공존
화합과 조화의 정신	• 환웅과 웅녀의 만남과 단군의 탄생: 천(天)·지(地)·인(人)의 화합과 조화 • 무(巫)의 원리: 하늘과 인간의 소통과 조화 • 원효의 화쟁 사상, 의천과 지눌의 교선 일치 사상 • 근대 신흥 종교들의 유·불·도 조화 추구
자연 친화와 생명 존중 정신	• 하늘에 대한 공경 및 자연과 합일하려는 의식 • 신화 속 동물들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

(2) 한국 사상의 현대적 의미

- ① 물질 만능주의의 극복과 인간 존중 실현의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②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 극복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③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5 동양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

(1) 동양 사상의 특징

유기체적 세계관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된 전체로 여김
공존과 공생의 추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과 공존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봄
도덕적 수양 중시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 개인이 도덕적 수양에 힘쓸 것을 강조함

(2) 동양 사상의 현대적 의미

- ①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② 현대 생태계 문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③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실현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유교 · 불교 ·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

- 군자의 도(道)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진[仁]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군자는 의로움으로 바탕을 삼고, 예의에 따라 행동하며, 공손한 몸가짐으로 드러내고, 신의로써 이루어 낸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군자이다. - "논어" -
-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보살의 길을 행할 때에 네 가지 거두어 주는 일[四攝事(사섭사)]로써 교화한다. 첫째는 조건 없이 베풀[布施(보시)]이요, 둘째는 좋은 말[愛語(애어)]이요, 셋째는 이로운 일[利行(이행)]이요, 넷째는 중생과 함께 같이힘[同事(동사)]이다. - "대반야바라밀다경" -
- 명성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의를 일삼는 자가 되지 말며,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소유주가 되지 마라. 무궁한 도를 모두 체득하여 아무 조짐도 없는 경지에 노닐라.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다하되 이득을 추구하지 마라. 언제나 마음을 텅 비울 따름이다. 지인(至人)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가는 것은 전송하지 않고 오는 것은 마중하지 않는다. 변화에 호응하되 감추는 것이 없다. - "장자" -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군자이며,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어진[仁] 사람이다.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이며,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여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사람이다.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은 지인, 진인, 성인 등으로 부르며, 도를 체득하여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03

▶ 23057-0051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대저 양물(洋物)이 전래되어 그 종류가 매우 많으나 대체로 사치스러운 물건이니 민생의 쓰임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화(禍)가 되는 것이 심합니다. 나아가 저들의 물건 만드는 일은 손에서 생산되어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우리의 물건 만드는 일은 땅에서 생산되어 일 년 단위로 계산하여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여유가 있는 것과 교역한다면 우리가 어찌 곤궁해지지 않겠으며 일계(日計)를 가지고 우리의 세계(歲計)를 접할 수 있다면 저들이 어찌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p> <p>을: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뿐이다.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여 실천하면, 한울님의 성품을 따르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자연한 가운데 화(化)하여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도는 지금도 듣지 못했고 옛날에도 듣지 못하던 일이고, 지금과 비교하지 못하고 옛날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법(法)이다. 닦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체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p> <p>◇ A</p> <p>↓ 예</p> <p>◇ B</p> <p>↓ 예</p> <p>갑의 입장</p>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 아니요</p> <p>◇ C</p> <p>↓ 예</p> <p>을의 입장</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 ① A: 성(誠)과 경(敬)은 누구나 따라야 할 도덕 수양의 자세인가?
- ② A: 유교적 가치 체계와 신분 질서를 기반으로 세상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 ③ B: 동양의 도덕적 가치는 지키되 서양의 우수한 기술은 수용해야 하는가?
- ④ C: 신분 차별이 없는 후천(後天)의 세상은 내세에 도래하는가?
- ⑤ C: 한울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서양의 종교 사상도 수용해야 하는가?

04

▶ 23057-005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性)이란 것은 하늘이 내린 속마음이니 밝은 덕이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良]인 것이며 생(生)의 덕이 있고 물(物)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밝은 덕이라 하고, 양지와 양능이라고 하며, 타고난 천성에 저절로 있는 중(中)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천지의 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생한 하나의 이(理)가 깊고 멀면서 유행(流行)하는 것은 성의 근원이요, 나에게 부여된 것으로 온전하게 갖춰져서 다 같이 흐르며 간단(間斷)이 없는 것은 성의 명(命)인 것이다.

보기

- ㄱ. 사람은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
- 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 ㄷ. 양지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生理]이다.
- ㄹ. 지와 행의 선후는 없으나 경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05

▶ 23057-0053

다음 근대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오.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 만물이 시천주(侍天主) 아님이 없으니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은 금치 아니해도 자연히 금해지리라. 제비의 알을 깨뜨리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오,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날짐승 삼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			✓	✓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	✓		✓	
인간만이 고귀한 존재이며 한울님을 모실 수 있다.				✓	✓	✓
동양의 정신적 가치 위에 서학(천주교)을 조화시켜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6

▶ 23057-005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리고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게 된다. 이를 없애려면 해원(解冤)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해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진다.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다.

을: 이러한 원상(圓相)의 진리를 깨달으면 시방[十方] 삼계가 모두 한 가족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 제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또한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어 있되, 지극히 공평하여 한편으로도 치우침이 없고 털끝만큼의 사사로움도 없다.

보기

- ㄱ. 갑은 유·불·도 사상뿐만 아니라 무속 신앙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정신의 개벽보다 물질의 개벽을 우선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본다.
- ㄷ. 을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상생활도 인격 완성을 위한 공부에 포함된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신분과 성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7~08] (가), (나)는 동양 사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넓은 영토와 많은 백성은 군자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천하의 중앙에 세우고 천하의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군자가 즐거워하는 바이지만 본성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군자의 본성은 도가 크게 행해진다고 해도 조금도 더해지지 않으며, 비록 궁하게 산다고 해도 덜어지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군자의 본성은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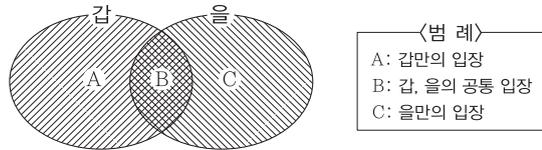
(나) 만일 보살이 오래도록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전생에 선근(善根)을 심어 오랫동안 큰 서원을 세웠고, 모든 좋은 벗들과 교류하며, 모든 법의 모양[相]이 공한 뜻을 잘 배웠다고 한다면, 이 보살은 *반연(攀緣)된 대상, 같이 기뻐하고 회향하는 마음, 모든 선근들, 무상보리 그리고 온갖 법에 대해 모두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서 같이 기뻐하며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에 공덕을 돌려 향하게 할 수 있다.

* 반연(攀緣): 마음이 대상에 의지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번뇌의 근본이 됨.

07

▶ 23057-0055

(가), (나)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인간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올바른 삶에 이르게 된다.
- ㄴ. A: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을 함양하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 ㄷ. B: 만물에 내재하는 독립된 실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진리를 알 수 있다.
- ㄹ. C: 마음 작용과 인식 작용이 있는 모든 존재를 해탈의 경지로 이끌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8

▶ 23057-0056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가), (나)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인(至人)이 천하를 다스리니 또한 위대하지 않은가? 그러나 지인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천하가 권세를 다투어도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진실을 살펴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만물의 진실을 규명하여 그 근본을 지킨다. 그러므로 천지를 버리고 만물을 잊어도 그 정신이 일찍이 고통을 받는 바가 없다. 도와 통하고 덕에 합해서 인의를 물리치고 예악을 멀리하여도 지인의 마음은 안정됨이 있는 것이다.

- ① (가)는 형벌보다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② (가)는 인과 의를 강조하면 사회가 혼란해짐을 모르고 있다.
- ③ (나)는 수행의 완성을 위해 분노하는 마음을 조절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나)는 삶 속에서 관계 맺는 타인과 내가 결국에는 둘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분별적 인식에 기반해야 이상적 삶이 완성됨을 모르고 있다.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과 덕 있는 삶

1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1)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① 고대 그리스 사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철학자들의 등장 → 세계의 기원과 자연의 변화에 대해 이성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발전 →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의 선(善)과 옳음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남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시함
영향	인간의 이성, 선한 삶, 행복 등의 탐구에 영향을 줌

② 헤브라이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무이한 신의 은총과 신앙 강조 → 인간의 힘만으로는 구원과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봄 • 이웃 사랑과 정의 실현 등 보편적인 윤리가 신의 명령으로서 강조됨
영향	신과 인간의 관계에 기초한 인간 삶의 원리 탐구에 영향을 줌

(2) 소피스트의 윤리적 상대주의

① 특징

- 윤리적 상대주의: 보편타당한 윤리의 존재를 부정함
-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봄
-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얻는 데 필요한 수사학을 가르침

② 대표 사상가

프로타고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봄 •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고르기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함 •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트라시마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에 근거하여 세속적 정의관을 주장함 • “정의는 강자 및 통치자의 이익이다.”

(3)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보편주의

① 윤리적 보편주의

- 소피스트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보편적인 윤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봄

② 주지주의(主知主義)

- 지식은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임
-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됨
- 무지의 자각을 진리 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봄

③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 인간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음

④ 지덕복합일설(知德福合一說): 참된 앎은 덕이고 덕은 행복이므로 덕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 → 앎과 덕과 행복은 필연적 관계임

⑤ 대화법(문답법) 강조: 대화(논박)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도록 함 → 산파술

⑥ 영혼의 돌봄 강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각자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것임 →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함

2 덕 있는 삶

(1) 플라톤의 이상주의 윤리 사상

① 이데아론

- 세계는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되며 서로 분리되어 있음
- 이데아계는 완전한 세계이며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반면,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이며 감각적 경험에 의해 파악됨
- 이데아(Idea)란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임

자료와 친해지기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프로타고라스, 지식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지식에는 강한 힘이나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하여 검토할 때 그들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흔히 지식이 아닌 다른 것, 걱정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또는 사랑의 정열이라든지, 공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란 노예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식을 이렇게 무력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지식이란 훌륭한 것이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으며, 사람이 선악을 식별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에 굴하거나 지식이 명하지 않는 행위를 할 리가 없고, 지식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

소크라테스는 지식은 훌륭한 것이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 각각의 사물에는 그것들의 이데아가 있으며, 최고의 이데아는 선(중음)의 이데아임

- 선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임

② 영혼론과 덕론

- 인간의 영혼은 이성과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하고, 기개와 욕구는 이성을 잘 따라야 함
- 영혼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은 지혜, 용기, 절제임 → 절제는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갖추어야 할 덕임
- 영혼의 각 부분이 각각의 덕을 갖추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正義)의 덕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

③ 이상 국가론

-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듯이 국가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으로 구성됨
-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절제는 모든 계층에 요구되는 덕임
-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올바른(정의로운) 나라가 실현됨
- 선(善)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추고 인격과 실무적 경험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지 않는 한 악(惡)은 사라지지 않음

(2)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윤리 사상

① 현실주의

- 플라톤이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구분한 것을 비판함 → 이 세상은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임
- 선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함

② 행복론

-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善, the good)을 목적으로 추구함
-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은 행복임
- 행복(eudaimonia)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영혼)의 활동임

③ 덕론

-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임
- 덕의 두 가지 유형

지성적 덕 (지적 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혼의 이성적 기능이 탁월하게 작용할 때 얻어지는 덕 • 주로 교육을 통해 얻어지고 길러짐 • 선에 대한 숙고와 진리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함 •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
품성적 덕 (도덕적 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혼의 감정과 욕구의 기능이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얻어지는 덕 •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됨 •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행위를 가능하게 함 • 용기, 절제, 온화 등

④ 중용

-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마땅함'에 중용의 특성이 있음
-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로,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임
-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예 질투, 절도)에는 중용이 없음

⑤ 실천적 지혜

- 지성적 덕으로 중용의 상태에 대한 앎임
- 품성적 덕의 형성과 발휘에 필수적으로 요구됨

⑥ 의지의 나약함(자제력 없음)

-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거나,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함
- 덕 있는 행위가 습관화되면 실천을 방해하는 의지의 나약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덕 있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음

⑦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현대 덕 윤리

- 현대 덕 윤리의 특징: 행위자의 품성과 덕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인간 본성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계승함 →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전개하고 공동체적 삶을 중시함
-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시함 → 개인의 행위를 공동체의 구체적 맥락에서 평가함

자료와 친해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제력 없는 사람에 대한 견해

방종한 사람은 뉘우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머물러 있으니, 그러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뉘우칠 줄 안다. 이런 까닭에 방종한 사람은 고쳐질 가망이 없으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고쳐질 가망이 있다. 자제력이 없다는 것이 악덕이 아님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자제력이 없다는 것은 선택에 반대되는 것인 데 반하여 악덕은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이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지나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가 쉽고, 방종한 사람은 본래 그런 쾌락을 추구하도록 된 사람인 까닭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쉽사리 마음을 돌리고 태도를 바꿀 수 있지만, 방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정념 때문에 올바른 이치에 거슬리는 데로 나아가게 되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리고 태도를 바꿀 수 있으므로 덕 있는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01

▶ 23057-0059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입니다.

각 개인의 모든 판단이 참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판단이 옳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 ① 갑은 같은 사물이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부와 명예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의 삶보다 자연의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무지를 깨닫고 보편타당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02

▶ 23057-0060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올바른 통치자 및 강자의 이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통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올바른 것으로 공표하고서는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 및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른 자로 보고 처벌한다.

을: 의사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지시를 내리며, 배의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지시를 내린다. 올바른이 무엇인지 아는 통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지시를 내린다.

- ① 올바른 삶과 행복한 삶은 서로 관련이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② 올바른의 근거는 현실 세계에서 찾을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면 부정의를 행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④ 올바름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됨을 모르고 있다.
- ⑤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을 구분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없음을 모르고 있다.

03

▶ 23057-006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사람들은 흔히 지식에는 강한 힘이나 지배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격정, 쾌락, 사랑의 정열, 공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식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식은 무력하지 않으며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사람이 선악을 식별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에 굴하거나 지식이 명하지 않는 행위를 할 리가 없다.
- 만일 덕이 영혼 안에 있는 것들 중 하나이고 유익한 것임에 틀림없다면 그것은 마땅히 지식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영혼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 절제, 정의, 용기, 잘 배우는 능력, 기억력, 대범함 등은 그 자체로 볼 때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 되거나 해롭게 되기 때문이다.

보기

- ㄱ.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 ㄴ. 참된 지식은 훌륭한 것이고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된다.
- ㄷ.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
- ㄹ.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4

▶ 23057-0062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 '좋은[善]의 이데아'이다. 이 이데아는 인식과 진리의 원인이지만, '인식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의 빛과 시각을 태양과 닮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만 태양으로 믿는 것은 옳지 않듯이, 인식과 진리를 '좋은의 이데아'를 닮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으나 '좋은의 이데아'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제자: 스승님,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 _____ ㉠ _____

- ① 좋은의 이데아를 모방하고 실현하려는 헛된 욕망을 버려야 하네.
- ② 이성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이데아계를 파악해야 하네.
- ③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좋은의 이데아를 발견하기 위해 탐구해야 하네.
- ④ 사물들 각각의 이데아를 존재하게 하는 좋은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하네.
- ⑤ 개별적인 사물이 없어지면 이데아도 사라지므로 사물의 보존에 힘써야 하네.

05

▶ 23057-006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의로운 사람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가 서로에게 참견하지 않도록 하고, 이들 사이에서 어떤 다른 것이 생겨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함께 연결시켜서 여럿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절제 있고 조화된 상태로 만든다. 정의로운 사람은 이러한 상태를 보존시키고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정의롭고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관할하는 지식을 ㉠(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른다. 반면 이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을 부정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관할하는 의견을 무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른다.

- ①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이다.
- ② 영혼의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 사이에 반목하지 않는 덕이다.
- ③ 영혼의 각 부분이 덕을 갖추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갖추지는 덕이다.
- ④ 영혼의 각 부분뿐 아니라 영혼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아는 덕이다.
- 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성의 지시대로 끝까지 보존하는 덕이다.

06

▶ 23057-0064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우리는 아름다운 것 자체니, 좋은 것 자체니 말하고, 모든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투로 말하며, 각각의 것에 하나의 이데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이 하나의 이데아에 따라 각각을 '실재하는 것'이라 일컫는다.</p> <p>을: 좋음은 무엇임에 있어서도, 어떠한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이야기된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그렇기에 좋음이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B -- 아니요 --> C{C} C -- 예 --> E[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flex: 0.5; margin-left: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 ① A: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인가?
- ② B: 좋음 자체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가?
- ③ B: 모든 개별자는 고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는가?
- ④ C: 실천적 지혜가 파악하는 좋음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개별적 좋음인가?
- ⑤ C: 현실에서 좋음 자체와 좋음은 완전히 다르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가?

07

▶ 23057-006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 표시를 한 학생은?

- 수호자들은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사유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들이 개인의 땅과 집 그리고 돈을 소유하게 될 때, 이들은 수호자가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과 농부가 될 것이며, 다른 시민들의 협력자가 되는 대신 적대적인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이들도 나머지 시민들도 파멸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 수호자들 중 가장 훌륭한 자들이 '좋은 자체'를 본(本)으로 삼아서 나라와 개개인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 세속적인 명예들을 저속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는 한편,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증대시켜서 자신들의 나라를 질서 잡게 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최고 권력자가 철학을 해야 한다.	✓	✓		✓	
국가의 중요한 사안은 다수결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	✓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직분에 전념하기 위해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			✓	✓	✓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은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8

▶ 23057-006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성적 덕이고,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이해력 등은 지성적 덕이고, 온화, 절제 등은 품성적 덕이다. 어떤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가 현명하다거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성품이 온화하다거나 절제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현명한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칭찬한다.

- 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이 아니라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다.
- ② 품성적 덕은 인간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관련한 탁월함이다.
- ③ 인간은 진리에 대한 관조 활동을 할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 ④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지성적 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⑤ 실천적 지혜는 신이나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최고의 덕이다.

09

▶ 23057-006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지식이 있으면 쾌락이나 다른 것에 대하여도 이길 수 있다. 잘못된 행위는 지식이 없는 무지에 기인한다. 따라서 쾌락에 진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스스로 악이나 또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을: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실천할 힘이 없다. 영리한 사람이라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마치 모든 올바른 법령과 훌륭한 법률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국가와 같다.

- ① 갑은 덕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모든 덕이 올바른 행위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의지의 나약함이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덕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도덕적 선에 대한 앎이 전제되어야 도덕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다.

10

▶ 23057-006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본성과 다르게는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계하고, 이 감정과 행위 속에 과도와 부족 및 중용이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대담함, 분노나 연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일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이것들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보기

- ㄱ. 중용은 각각의 상황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의 산술적 중간인가?
- ㄴ. 품성적 덕은 일상생활에서 옳은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가?
- ㄷ. 모든 감정과 행위에 존재하는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가?
- ㄹ. 중용의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인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 행복 추구의 방법

(1)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 사상

- ①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 → 도시 국가 (polis)의 붕괴와 대제국의 출현
- ② 사람들이 도시 국가의 시민이 아닌 제국의 신민(臣民)이 됨으로써 서로 일체감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정치적 무기력에 빠짐
- ③ 개인의 평온한 삶이 주요 탐구 주제로 부각됨
- ④ 대표 사상: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과

(2)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

① 쾌락의 추구

쾌락주의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임
진정한 쾌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함 •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함 • 아타락시아(ataraxia):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된 상태, 즉 평정심임

② 평정심에 이르는 방법

-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고, 자연적이지 않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극복해야 함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음식, 수면 등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성(性), 식도락 등에 대한 욕구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부, 명예, 권력 등에 대한 욕구

- 이성으로써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함
- 신, 운명, 죽음 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함
-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야 함 → 정의는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기 위해 필요함

③ 한계와 영향

- 한계: 개인적 쾌락을 중시하여 이타적인 공공 생활을 경시함
- 영향: 감각적 경험을 중시한 근대 경험론과 쾌락을 최고선으로 본 공리주의에 영향을 줌

(3) 스토아학파의 금욕주의

① 금욕의 추구

금욕주의	욕망, 공포, 쾌락, 슬픔 등과 같은 비이성적이고 비자연적 정념에서 벗어나야 함 →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애와 같은 이성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감정은 인정함
이상적 상태	아파테이아(apatheia):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즉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부동심임

②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이성에 따르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logos)이란 우주 만물의 본질이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임 → 이성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임 •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음 → 인간은 이성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음
운명에 순응하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 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음 •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함
자연법에 따르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법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임 • 가족, 친구, 동료 시민,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내용으로 함 →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이 전제됨

③ 한계와 영향

- 한계: 운명에 대한 순응을 중시한 나머지, 도덕적 삶에서 개인의 의지와 정서의 역할을 간과함
- 영향: 자연법을 강조한 아퀴나스와 근대 사상가들, 정념의 예측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 스피노자, 이성에 부합한 삶을 강조한 칸트에게 영향을 줌

자료와 친해지기 평온한 삶의 실현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의 입장

•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술을 마시거나 풍성한 식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추측들을 몰아내면서 맑은 정신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큰 선은 사려 깊음이다. - 에피쿠로스, "쾌락" -

•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살다가 굶어 죽는 것이 풍요로움 속에서 온갖 번뇌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하인이 기름을 엷지르고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아도, 이는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 치르는 대가이다. 아무것도 그쳐 얻어지는 것은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나의 권한이다. - 에픽테토스, "엔케이리디온" -

개인의 평온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에피쿠로스는 모든 고통이 소멸된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를, 에픽테토스는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인 아파테이아를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두 사상은 모두 이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 신앙

(1)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발전

① 그리스도교의 기원

유대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호와를 유일신이자 창조주로 믿으며 메시아의 도래와 심판을 믿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 유대인만이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과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특징으로 함
예수의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윤리: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 비판 • 보편 윤리: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황금률) →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로서 이웃 사랑 강조

② 그리스도교의 발전

- 그리스도교가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성 중심의 그리스 사상과 만나게 됨 → 교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됨
- 교부 철학: 중세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체계화함 → 대표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
- 스콜라 철학: 중세 후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함 → 대표 사상가 아퀴나스

(2) 아우구스티누스와 사랑의 윤리

① 플라톤 사상 수용

- 이데아론에 맞추어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함
- 신을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으로 봄

② 플라톤 사상과의 차이점

-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봄
- 참된 행복의 실현은 계시를 통해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봄

③ 사랑의 윤리

- 신은 최고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을 실현할 수 있음
- 종교적 덕(믿음, 소망, 사랑) 중 최고의 덕은 사랑임
- 플라톤의 사주덕(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사랑의 다른 표현임

④ 원죄론

-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남
- 악은 선에 반대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이며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임

⑤ 구원론

-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함
- 신앙으로써 신에게 귀의하여 신과 하나가 될 때, 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됨

(3) 아퀴나스와 자연법 윤리

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수용

-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덕에 의해 실현된다고 봄
-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여 신의 존재를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증명함

②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의 차이점

- 자연적인 덕(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현세에서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으로 봄 →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종교적 덕(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함
-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봄

③ 자연법 윤리

-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임 →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임
-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임 →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등으로 구체화됨

(4) 프로테스탄티즘

① 루터의 사상

-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 구원은 교회 의식이나 선행이 아니라 신의 은총과 신앙에 의해 가능하며,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있음
- 만인 사제주의: 모든 신앙인은 성직자이자 사제로서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

② 칼뱅의 사상

- 예정설: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음
- 직업 소명설: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내린 소명이며 지상에서 이웃 사랑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임

자료와 친해지기 악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신은 악덕의 창조자가 아닌 만물의 창조자이며 인간을 바르게 지어 내셨다. 신은 낙원에 있는 최초의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인간은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타락하고 죄 많은 자를 낳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한 죄로 재난이 잇따르고, 마치 썩은 뿌리에서 시작하듯 그 최초의 타락으로부터 끊임없이 추락하여 불행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 오직 신의 은총으로 풀려난 사람들만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원죄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는 악이 선에 반대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이며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라고 보면서,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01

▶ 23057-0069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동등한 쾌락을 준다. 또한 빵과 물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쾌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사치스럽지 않고 단순한 음식에 길들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주저하지 않게 해 준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치스러운 것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우리가 운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①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정의로운 삶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야 한다.
- ③ 사려 깊음을 통해 유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
- ⑤ 운명에 순응하면서 욕구를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02

▶ 23057-007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고통이라고 모든 것을 피하는 것도 아니며 쾌락이라고 모두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이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참으면 더 큰 쾌락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을: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그 탓을 자신의 판단으로 돌려야 한다. 깨우친 사람은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보기

- ㄱ. 갑: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ㄴ. 갑: 욕망의 적극적인 충족에 따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ㄷ. 을: 바뀌어야 하는 것은 벌어진 상황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다.
- ㄹ. 갑과 을: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3

▶ 23057-007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소에게는 소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게는 포도나무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으며, 돌에게는 돌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왜 당신은 당신의 운명에 불만을 갖는가? 자연은 당신에게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 ① 이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가?
- ②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 ③ 내면의 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 ④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하는가?
- 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진 존재로 인식해야 하는가?

04

▶ 23057-0072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이성은 인간과 신의 소유물이다. 이성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들은 올바른 이성을 소유해야 하며, 올바른 이성은 곧 법이므로 모든 인간은 신과 공통되는 법을 소유한다. 법을 공유하는 자들은 정의를 공유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자들은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다.</p> <p>을: 육체적 쾌락의 한계점은 고통이 없을 때 달성되며, 정신적 쾌락의 한계점은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욕망 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달성된다. 만일 우리가 지성에 의해 쾌락의 한계를 계산해 본다면, 무한한 시간이 유한한 시간보다 더 큰 쾌락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J1[갑의 입장] B -- 아니요 --> C{C} C -- 예 --> J2[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flex: 0.5; margin-left: 2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조건 판단 내용 판단 방향 사상가의 입장 </div> </div>

- ① A: 죽음은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두려운 것인가?
- ② B: 정의는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상호 이득을 위한 계약인가?
- ③ B: 은둔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지향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④ C: 신은 악한 행위를 선택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인가?
- ⑤ C: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예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가?

05

▶ 23057-0073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최고의 덕이다. 절제, 용기, 정의, 지혜와 같은 덕은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절제는 신을 위해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랑이며, 용기는 모든 것을 신을 위해 인내하는 사랑이며, 정의는 오직 신만을 섬기며 이를 위해 인간에게 복속된 다른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사랑이며, 지혜는 신께 도움이 되는 것과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잘 분간하는 사랑이다.

보기

- ㄱ.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 ㄷ. 신은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이면서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 그 자체이다.
- ㄹ.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종교적 체험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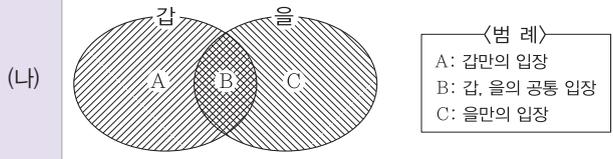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06

▶ 23057-0074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도 아니며, 물고기를 마음껏 먹거나 풍성한 식탁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모든 선택과 기피의 이유를 발견하고 공허한 추측을 몰아내면서, 맑은 정신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 쾌락의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하고 즐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짐승의 쾌락을 온전히 보장받겠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하급 동물로 변신하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지성인이라면 바보가 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일자무식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보기

- ㄱ. A: 쾌락의 증진을 위해서는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ㄴ. B: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인내해야 할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
- ㄷ. B: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ㄹ. C: 쾌락의 증진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자기희생 자체는 선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7

▶ 23057-007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섯 가지 길로 논증될 수 있다. 그중 첫째 길은 운동 변화에서 취해지는 길이다. 이 세계 안에는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또 그것은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져야 하지만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다. 만일 움직이는 것의 무한한 소급이 인정된다면 어떤 처음 움직이는 자가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그다음에 움직여 주는 자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지팡이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움직여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한테도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제1운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 ①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②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현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
- ③ 인간은 이성적 추론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 ④ 지복(至福)의 실현을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
- ⑤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구분되지만 신앙과 이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08

▶ 23057-007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신의 활동은 관조의 성질을 지니며, 신의 활동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의 활동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덕을 따르는 이성의 활동은 진리에 대한 관조이다. 철학적 지혜를 지닌 사람은 순수하게 관조하며, 행복은 순수한 관조 속에 깃들여 있다.

을: 용기와 절제는 이성이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덕이다. 또한 감정을 뛰어넘는 행위를 통해 정의와 지혜의 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연적 덕을 통해 인간은 행복에 이를 수 있지만 인간을 신으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것은 신학적 덕이다.

- ① 철학적 진리와 신앙은 상호 간에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가?
- ② 최고의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 ③ 현세의 행복을 위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하는가?
- ④ 자연적 덕은 인간을 신에게 인도하여 영원한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가?
- ⑤ 신의 존재는 이성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며 믿음을 통해 수용해야 하는가?

09

▶ 23057-0077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중세 서양 사상가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신은 인간을 만들면서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는데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에 보조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쇠와 청동을 섞었다. 대개는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낳지만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와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므로 통치자들은 자손들의 혼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을: 두 개의 사랑에 의해서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된다.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함으로써,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 바꾸어 말하면 전자는 자신을 경배하며 후자는 신을 경배한다. 또한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으려 하며 후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데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점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이다.

- ① 이데아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②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며 선에 반대되는 실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③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④ 이성적 삶보다는 신의 은총을 통해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존재가 아닌 이성적 인식의 대상임을 모르고 있다.

10

▶ 23057-0078

그리스도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교황의 면죄로써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현금함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면 면죄의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을: 우리는 신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셨으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주님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이름하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이 정해 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보기

- ㄱ. 갑: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직자를 통해 신과 대화해야 한다.
- ㄴ. 갑: 진리는 오직 성서에 있으며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 ㄷ. 을: 직업 생활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신의 은총을 드러내는 일이다.
- ㄹ. 갑과 을: 인간은 자유 의지만으로도 원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이성과 감정

1 근대 서양 윤리 사상의 등장 배경

- (1) 르네상스: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현실을 중시하며, 합리적 사고와 경험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확산시킴
- (2) 종교 개혁: 가톨릭의 권위주의적 전통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함
- (3) 자연 과학의 발달: 기존의 형이상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세계관을 대체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제공함

2 근대 서양 사상의 두 유형

(1)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구분	이성주의	경험주의
지식의 근원	이성 → 논리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중시함	경험 →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중시함
진리 탐구 방법	연역법	귀납법
대표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베이컨, 흄

(2) 연역법과 귀납법

구분	연역법	귀납법
의미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해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식의 확장을 가져다주지 않음 • 경험적 검증을 경시함으로써 공허하거나 사변적인 추론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 • 높은 개연성을 지닌 지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필연적 진리를 정립할 수 없음

3 데카르트와 베이컨

- (1) 데카르트: 근대 이성주의의 기초를 닦은 철학자
 - ① 감각적 경험 비판: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주관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명백한 진리로 믿을 수 없음 →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이 확실하고 참된 지식임
 - ② 방법적 회의(懷疑): 확실한 지식을 연역해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명제를 찾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함
 - ③ 철학의 제1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음

모든 지식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가장 단순한 원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면 우선 그 출발점이 얼마나 확고한 기초 위에서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확실하다고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하여 일단 나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 (중략) ...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회의하는 데서 철학적 탐구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끝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면 할수록 더욱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 데카르트, "방법 서설" -

(2) 베이컨: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

- ①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 강조: 자연 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보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음 → '아는 것이 힘이다.'
- ② 새로운 진리 탐구 방법 주장: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귀납법을 제시함

자료와 친해지기 베이컨의 학문 방법론

-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흥미하게 만들고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용의주도하게 그러한 이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한 사람들은 경험에만 의존했거나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다. 경험론자들은 개미처럼 오로지 자료를 모아서 사용하고, 독단론자들은 거미처럼 자기 속을 풀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나 꿀벌은 중용을 취해 들에 핀 꽃에서 재료를 구해다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시킨다. 참된 학문은 오로지 정신의 힘에만 기대지 않으며 실험을 통해 얻은 것을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경험의 능력과 이성의 능력이 긴밀하게 결합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베이컨, "신기관" -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 즉 이상을 타파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체계적인 실험과 지성이 조화를 이룬 학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 낸 자연 과학적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삶을 개선하는 바탕이 됨을 강조하였다.

- ③ **우상론**: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偶像)**에 비유하고 이를 타파할 것을 역설함

종족의 우상	인간성 그 자체, 즉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에 뿌리를 박고 있는 편견 예 인간의 감각이 만물의 척도이다.
동굴의 우상	개인의 특수한 기질, 경험, 교육 등에서 비롯된 편견 예 내가 보건대, 참나무가 제일 단단하다.
시장의 우상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용에서 비롯된 편견 예 '인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 인어는 있다.
극장의 우상	전통, 학설 등에 대한 무비판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편견 예 위대한 플라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돼.

4 스피노자의 이성 중심 윤리 사상

(1) 신에 대한 견해

- ①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봄
- ② 신, 즉 자연은 유일한 실체(實體, substance)이고,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의 개별 사물은 하나의 실체가 보여 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양태(樣態, mode)라고 주장함

생산하는 자연[能産的 自然(능산적 자연)]은 그 자체 안에 존재하며 그 자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또는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실체의 속성, 즉 신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비해 생산된 자연[所産的 自然(소산적 자연)]은 신의 본성이나 신의 각 속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 즉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것, 다시 말해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 스피노자, "윤리학" -

(2) 필연론

- ①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며, 세계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
- ②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자연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다. 모든 것은 신의 본성에서 생기며, 자연의 영원한 법칙과 규칙에 따라 행해짐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정념에 의해서는 우리가 선하다고 확실히 아는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저된 눈물에 쉽게 속기 때문이다.

- 스피노자, "윤리학" -

(3) 정념의 속박과 최고의 행복

- ①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외부 원인에 휘둘리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봄
- ②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함
- ③ 최고의 행복: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과 이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최고의 행복임 →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지성이나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에 인간의 최상의 행복, 즉 지복(至福)이 존재한다. 지복이란 신의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 그리고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에 따라 인도되는 인간의 궁극 목적, 즉 그로 하여금 여타의 모든 욕망을 통솔하게끔 하는 최고의 욕망은 그 자신과 그의 인식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타당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욕망이다.

- 스피노자, "윤리학" -

자료와 친해지기 신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

-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게다가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즉 신을 벗어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
- 존재하는 것은 모두 신 안에 있으며 신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신의 본성의 양태들 또한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으며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스피노자, "윤리학" -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인 인격신이 아니며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인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는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5 흠의 감정 중심 윤리 사상

(1) 감정 중시

- ① 도덕적 가치: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을 표현한 것임 → 인격과 행위에 대한 시인과 부인의 감정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임
- ② 도덕적 실천의 동기: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성은 그렇지 못함 →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임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궁극적 목적들에 대한 설명은 지성의 능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정감과 감정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왜 운동을 하느냐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왜 건강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아픈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곧바로 응답할 것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질문하여 왜 고통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면, 그는 어떤 이유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며, 어떠한 다른 대상에게서도 절대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 흠, "도덕 원리에 관한 연구" -

- ③ 도덕성의 기초: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共感)의 능력에 기반한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도덕성의 기초임 →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공감의 능력 때문임

도덕은 인류에게 공통적인 어떤 정서를 함축한다. 이 정서는 동일한 대상을 우리 모두가 시인하도록 만들며, 대상과 관련된 의견과 판단에 있어서 일치해 보이도록 만든다. 도덕은 매우 보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모든 인류에게 확장될 수 있는 정서를 함축하며,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행위조차도 우리의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 흠, "도덕 원리에 관한 연구" -

(2) 회의주의적 인식론

- ① 인과 관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실제적 결합을 알 수 없음
- ② 자아에 대한 인식도 감각적 지각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를 알 수 없음

언제나 함께 결합되어 있으면서 과거의 모든 사례들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어떤 대상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결부(結付)의 이유를 꿰뚫어 볼 수 없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관찰할 뿐이며, 언제나 항상적 결부로부터 상상력 안에서 대상들이 합일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즉 어떤 것의 인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곧 그 인상을 늘 수반하는 것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는 정신 안에 있는 대상들을 조합할 뿐이지, 그 대상들의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 흠,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

- ③ 영향: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공리주의 윤리 사상의 모태가 됨

6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영향

(1) 이성주의의 영향

- ① 인간의 이성을 도덕과 행복의 기반으로 봄
- ② 실천 이성에 근거해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칸트의 윤리 사상에 큰 영향을 줌

(2) 경험주의의 영향

- ① 도덕의 불변성이나 이상의 추구보다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상에 영향을 줌
- ②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를 강조한 흠의 윤리 사상은 공리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고,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경험론의 관점은 실용주의 윤리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줌

자료와 친해지기 공감에 대한 흠의 입장

- 공감은 아주 강력한 인간 본성의 원리이며 도덕에 관해 판단할 때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정의, 예절, 충성 등의 덕에 대해 공감은 다른 어떤 원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에게 강력한 시인의 감정을 낳는다. 덕은 대개 사회의 복리를 향한 경향을 갖거나 또는 덕을 소유한 인물의 복리를 향한 경향을 갖는다. 우리는 공감이 도덕적 구별의 원천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 낮은 사람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회나 소유 당사자에게 유용한 모든 덕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시인의 감정을 우리는 공감의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이 도덕성의 주요 부분을 형성한다.
- 흠,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

흠에 따르면 선악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공감 능력 때문임을 강조하고,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01

▶ 23057-0079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짓된 것으로서 팽개치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무엇이 내 신념 속에 남는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리는 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다음으로 기하학의 가장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오류 추리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 또한 잘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가 전에는 분명한 논증으로 알았던 모든 추리를 거짓된 것으로 여기고 팽개쳤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마자 곧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나)	㉠	따라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 ① 이성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은 진리가 될 수 없다.
- ② 인간의 감각적 경험만이 확고한 지식의 토대가 된다.
- ③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
- ④ 의심할 수 없는 명제에서 출발해야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을 알 수 없다.

02

▶ 23057-008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나는 한 명제가 참되고 확실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내가 만일 생각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석하게 알지 못했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 있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을: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용의주도하게 그러한 이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 ① 갑: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갑: 경험이 지식의 원천이므로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연역적 방법의 학문 탐구를 통해 이상을 타파해야 한다.
- ④ 을: 유용한 지식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는 이성의 역할이 요청된다.

03

▶ 23057-008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네 가지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인간의 감각이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임을 강조한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는 점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 ① 개인은 결코 확고부동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 ② 인간의 감각적 경험은 확실한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
- ③ 올바른 탐구는 일반적 원리로부터 개별적 지식을 알아낸다
- ④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만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⑤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는 편견에 빠지게 할 수 있다

04

▶ 23057-0082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성 혹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며, 이 하나의 것에서만 인간의 지복(至福)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겨나는 영혼의 만족 자체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성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작용들을 이해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다시 말해 나머지 모든 것을 그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욕망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지성 아래에 포섭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합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욕망입니다.



- ① 자연 안에는 어떤 것도 우연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자연의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 ③ 초월적 창조자인 신에게 귀의할 때 인간의 지복이 완성된다.
- ④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자유 의지를 통해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9~10]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09

▶ 23057-0087

그림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가령 다른 의도에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성은 자기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을 선의지를 세우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갑

이성에서 도덕이 유래되지 않으며 도덕성의 규칙도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덕에서 발생하는 인상은 호의적이며, 부덕에서 발생하는 인상은 거북하다. 그래서 경멸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형벌이다.



을

- ① 갑: 이성을 통해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행위이다.
- ② 갑: 행위의 결과가 이성적 존재의 행복을 증진했다면 도덕적 행위이다.
- ③ 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원천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다.
- ④ 을: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일으킬 수 없다.
- ⑤ 갑과 을: 도덕적 행위와 행복의 추구는 양립할 수 없다.

10

▶ 23057-008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큰 선은 사려 깊음이다. 왜냐하면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탁월함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탁월함으로부터 뗄 수 없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 ① 정신적 쾌락보다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사회적 유용성이 아니라 개인적 쾌락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선악의 구별은 행위와 성품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자연적 성향인 공감은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11

▶ 23057-008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의 행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도덕적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絃)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감정들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 가며 사람들에게 감정에 걸맞은 행동을 일으킨다. 인간의 정신은 그 느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공감의 위력이며, 인간의 도덕적 정서를 산출하는 원리이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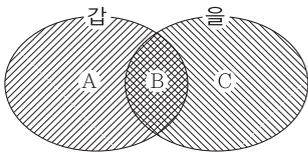
A는 길을 가던 중 마주 오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A는 동정심을 느껴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였다.

- ① 정서가 행위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도덕적이다.
- ② 이성이 도덕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므로 도덕적이다.
- ③ 감정은 이성의 노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 ④ 동정심은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 ⑤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도덕적이다.

12

▶ 23057-009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사회의 복리는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쾌락을 주므로, 공감은 우리가 모든 인위적 덕을 평가하는 원천이다. 정의는 인류의 복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덕이며 이 목적을 위한 인위적 발명품이다.</p> <p>을: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고통 쪽에 기운다면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도덕적 구별은 정서가 아닌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
- ㄴ. B: 자연적 경향성인 쾌락과 고통은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ㄷ. B: 사회적 유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ㄹ. C: 행위의 도덕성은 쾌락을 산출하고자 하는 동기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 의무론

(1) 의미

- ①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나 의무가 있고, 결과와 무관하게 이 도덕 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는 행위는 옳고 위반하는 행위는 그르다고 보는 이론
- ② 옳고 그름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봄

(2) 특징

- ①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지켜야 할 행위의 근본 원칙이나 의무의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봄
- ② 좋은 결과와 도덕 법칙 혹은 행복과 의무가 충돌할 경우, 도덕 법칙과 의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봄

2 칸트의 윤리 사상

(1)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 비판

- ① 행복주의 비판: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 ② 쾌락주의와 경험주의 비판: 쾌락을 추구하는 자연적 경향성이나 동정심 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음

(2) 선의지

- ① 동기 중시: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인 의지임
- ② 선의지: 어떤 행위가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이며,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임

(3) 의무

- ① 선의지는 유한한 인간에게 의무의 형태를 띠게 됨. 인간은 선의지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 경향성을 지님. 이 경향성의 유혹이 크더라도 선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의무임
- ② 의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임

(4) 도덕 법칙과 정언 명령

- ① 도덕 법칙: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으로,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남
- ② 대표적인 도덕 법칙

보편주의	네 의지의 준칙(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인격주의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 하라.

(5) 도덕적 행위

- ①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
 - 자기 이익이나 행복 추구를 위해 했으나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
 -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 따라 했으나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
- ② 도덕적 행위: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

(6) 도덕과 행복

- ①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②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일 수 없음

(7) 칸트 윤리 사상에 대한 평가

① 긍정적 평가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도덕을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로 봄 •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도덕의 기초를 다짐	•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보편주의 정신과 인격을 지닌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격주의 정신을 강조함 •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통해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려고 함

자료와 친해지기 칸트의 선의지

- 이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이미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일 자체로 선한 것이다.
 - 그 자체로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또 더 이상의 의도가 없는 선의지라는 이 개념은 건전한 지성 안에 이미 깃들어 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칸트는 선의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선의지는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일 뿐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선의지가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선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② 부정적 평가

형식적임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하지 못함
지나치게 엄격함	도덕 법칙의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음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상충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움

3 현대 칸트주의와 그 의미

(1) 현대 칸트주의: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① 칸트 윤리 사상의 핵심인 의무론을 계승하면서도 난점으로 지적되는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들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② 조건부 의무

- 어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래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직관적 의무
-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절대적으로 보이는 의무도 인간의 직관과 상식에 따라 유보될 수 있음

③ 조건부 의무의 적용

- 하나의 의무는 또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함
- 의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됨

(2) 현대 칸트주의의 의미

- ① 도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줌: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함
- ② 인권 사상의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여 인권 사상의 형성에 기여하고 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4 결론

(1) 의미

- 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려는 이론
- ② 행위의 드러난 결과가 좋다면 동거나 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행위를 옳다고 보는 이론

(2) 특징

- ① 행위 자체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봄
- ② 대체로 행복을 좋은 결과, 고통이나 불행은 나쁜 결과로 봄
- (3) 대표 사상: 공리주의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기본 원리로 봄
- ② 대표자: 벤담, 밀
- ③ 기본 입장

인간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임
윤리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이 삶의 목적임
도덕의 원리	'공리의 원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

5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1) 기본 입장

- 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을 바탕으로 윤리를 정립함
- ② 개인적 차원의 행복주의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함: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승인하는 공리의 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함
-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함
- ④ 양적 공리주의
-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음
 - 쾌락의 양을 측정하고 계산하기 위한 기준에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가 있음

(2) 특징

- ①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하려고 함
- ② 노예 제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동물 학대 등을 비판하고 그것들을 공리의 원리에 맞게 개혁할 것을 요구함
- ③ 쾌락의 질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배부른 돼지의 철학'을 추구하는 천박한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자료와 친해지기 벤담의 공리주의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
- 공동체의 이익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속한다. 공동체는 말하자면 가공의 조직체로서,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이익이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의 이익의 총합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위의 목적이 된다. 벤담은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벤담은 쾌락에 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오직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제시하였다.

6 밀의 질적 공리주의

(1) 기본 입장

- ① 벤담의 입장(쾌락주의, 행복주의, 공리의 원리 등)을 계승함
- ② 질적 공리주의
 -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함

질이 낮은 쾌락	먹는 것, 성(性), 휴식 등 단순하고 감각적인 쾌락
질이 높은 쾌락	지성, 상상력, 도덕적 정서 등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

- 질이 높은 쾌락은 질이 낮은 쾌락보다 더 가치 있으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하고 질이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함
- 쾌락 간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때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쾌락들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2) 특징

- ① 공리주의를 사회 체제에 적용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정당화함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봄
 -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의 횡포를 방지할 것을 강조함
 -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을 비판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을 강조함
- ② 공리주의의 뿌리인 쾌락주의 자체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7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 윤리 사상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익과 공익의 조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함 •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님
부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락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움 • 공리의 원리가 소수자의 인권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 있음

8 현대 공리주의

(1) 행위 공리주의의 의미와 문제점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는 공리주의 • 일반적으로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적인 특징을 지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행위가 가져올 공리를 계산하기가 어려움 •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음

(2) 현대 규칙 공리주의

- ①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함
- ②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계산해야 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비해 경제적임
- ③ 공리의 원리에 따라 채택된 규칙은 상식적 도덕이나 사회의 전통, 도덕적 직관 등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음

(3) 현대 선호 공리주의

- ①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된 고전적 공리주의와 달리 더 포괄적인 의미인 선호(選好)를 통해 행복을 설명함
- ② 행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위가 옳다고 봄

(4) 현대의 대표적 공리주의자: 싱어

- 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함: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개체의 이익(선호)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
- ② 종 차별주의에서 벗어나 인간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③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 문제나 동물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5) 현대 공리주의의 의의

- ① 도덕적 관심의 확대: 사람과 동물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함
- ② 공적 도덕의 기준: 사회의 관습, 정책, 제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짐

자료와 친해지기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는 각각의 개별적인 행위가 그들이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전체 값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덕 이론이다. 따라서 옳은 행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중 최대의 공리를 지닌 행위이다.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평가가 되는 것은 개별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위를 요구하는 규칙 또는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관행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규칙이나 관행에 따랐을 경우 생기는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 관행 또는 규칙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런 관행이나 규칙이 없는 경우보다 더 큰 행복을 산출한다면 또는 어떤 규칙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산출한다면 그 관행 또는 규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규칙 공리주의자에게 있어 어떤 개별적 행위가 옳은 경우는 그 행위가 최대의 공리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이미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규칙 또는 관행에 따를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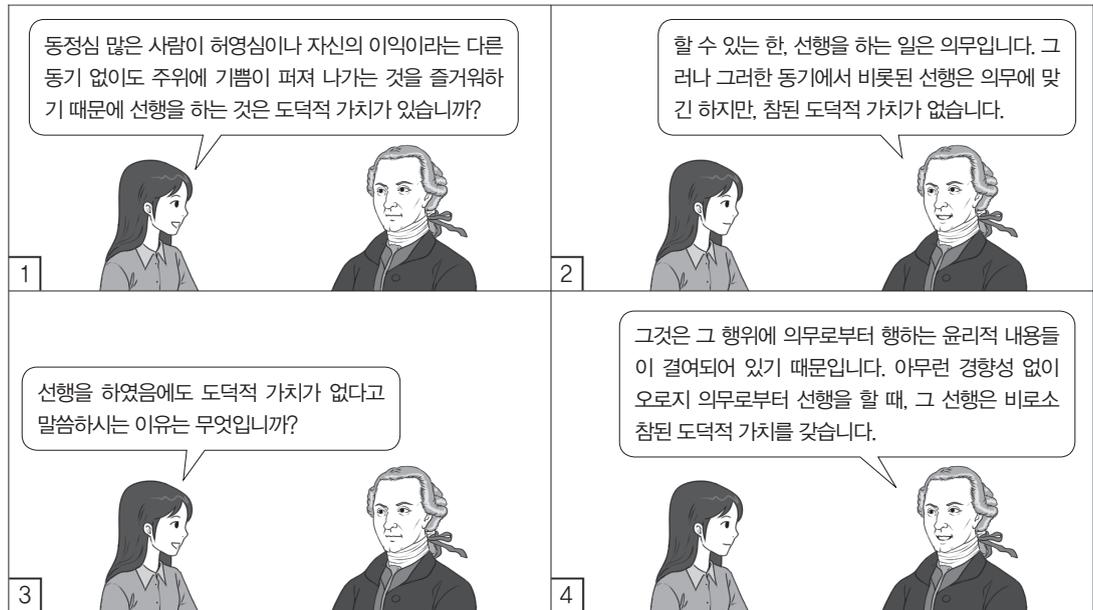
-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공리의 원리를 중시한다.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더 많은 공리, 즉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에 따르는 규칙에 적용하여 어떠한 행위가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는 입장이다.

01

▶ 23057-0091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선의지를 따를 수 있다.
- ②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행 행위이다.
- ③ 이성적 존재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④ 도덕 법칙은 개인적 선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⑤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더라도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02

▶ 23057-0092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이성은 어떤 행동에 대해 부인하거나 찬동함으로써 직접 그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유발할 수 없으므로,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일 수 없다. 이성은 단지 감정의 노예일 뿐이며,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을: 이성은 의지의 모든 준칙을 보편 법칙 수립과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의지와도 결합시키고 나아가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와도 결합시킨다. 이성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도덕 법칙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성적 존재의 존엄성의 이념 때문이다.

보기

- ㄱ. 이성은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ㄴ.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행 행위임을 간과하고 있다.
- ㄷ. 도덕적 행위란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ㄹ.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만이 도덕적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 23057-009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일 뿐이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이미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일 자체로 선한 것이다.

을: 행위의 옳음은 각각의 행위 자체에 있으며, 우리는 직관을 통하여 옳음이라는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약속 지키기, 호의에 대한 감사, 자기 계발 등은 우리가 해야 할 옳은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들은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 의무가 아닌 조건적 의무들이다. 각각의 옳은 행위는 오직 의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행위의 하나이다.

- ① 갑: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② 갑: 선의지에 따른 행위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면 비도덕적인 행위가 된다.
- ③ 을: 조건적 의무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이다.
- ④ 을: 다른 조건부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조건부 의무는 실제적 의무가 된다.
- ⑤ 갑과 을: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최대 행복의 산출 여부와 관계없이 옳은 행위이다.

04

▶ 23057-0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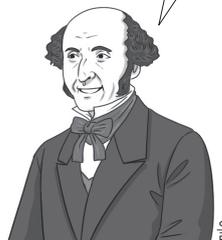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순수성 등의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단순 감각 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지성, 느낌과 상상력, 도덕 감정의 쾌락에 대해 더 큰 값어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행복과 만족의 두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갑



을

- ① 갑: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들의 이익들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공동선이다.
- ② 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행복을 조금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고급 쾌락을 향유할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 ④ 을: 질적으로 낮은 다량의 쾌락보다 소량이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쾌락의 양을 측정할 기준은 있지만, 쾌락의 질을 평가할 방법은 없다.

[05~06]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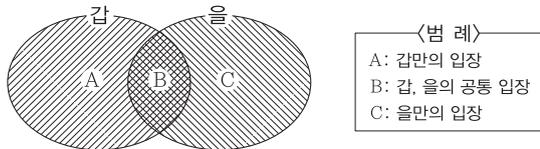
갑: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정언적이다. 이 명령은 행위의 내용이나 결과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따르는 형식 및 원칙과 관련된다. 그래서 행위의 본질적인 선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다.

을: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하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리는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이다.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한다.

05

▶ 23057-0095

갑, 을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양립할 수 없다.
- ㄴ. B: 행위의 옳고 그름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 ㄷ. B: 공감의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가 아니다.
- ㄹ. C: 자신의 행복 증진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6

▶ 23057-009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 ① 갑에게: 고통받는 타인을 돕는 선행은 언제나 도덕적 행위가 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② 갑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을에게: 고풍한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④ 을에게: 최대 행복의 원리는 입법이 아닌 도덕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⑤ 갑과 을에게: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07

▶ 23057-009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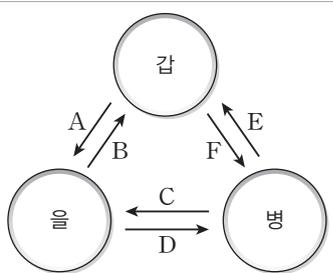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 실천 이성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
지 않으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자기의 행복을 배려하는 것은 의무일 수도 있다. 어떤 면에
서는 행복은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어떤 면에서 행복의 결여는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 행복만을 촉진하는 일은 직접적으로는 결코 의무일 수가 없고, 더구나 모
든 의무의 원리일 수는 없다.

- ①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이다.
- ② 행복 추구는 인간이 언제나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언 명령이다.
- ③ 행복하기 위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명령은 개인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없다.
- ④ 행복과 의무가 대립할 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행복 그 자체는 도덕적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08

▶ 23057-009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쾌락 추구하고 같은 경험적인 원칙들은 결코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약 도덕 법칙의 근거를 인간 본성의 특별한 성향에서 가져온다면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 법칙이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성과 도덕 법칙에 부과된 무조건적인 실천적 필연성이 소멸되기 때문이다.</p> <p>을: 쾌락과 고통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준다. 공리의 원칙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이다.</p> <p>병: 쾌락이나 고통과 같은 육체적인 감정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영혼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인간의 영혼을 육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어남을 명심한다면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예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이성의 참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만들어 내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② B, D: 이성은 도덕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함을 모르고 있다.
- ③ C: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고려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D, F: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⑤ E: 결과와 무관하게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

09

▶ 23057-0099

그림은 서양 사상 (가), (나)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이다.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 주장한다. 하지만 (가)의 주장은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어긋나는 행위도 정당화시키는 부적절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한 개별 행위가 가져오는 공리를 매번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나)는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에 일치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 주장한다. 하지만 (나)의 주장은 규칙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리의 원리를 행위가 아닌 규칙에 적용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가)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가)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나)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에 따르는 행위라고 본다.
- ④ (나)는 개별 행위의 공리를 계산하는 것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본다.
- ⑤ (가)와 (나)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행위의 선악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10

▶ 23057-0100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서, 다시 말해 원칙에 따라서 행위 하는 능력, 즉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다름 아닌 실천 이성이다.
 을: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 두 요소이다.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오직 이들의 지배에 달려 있다.

(나)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보기

ㄱ. A: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존재하는가?
 ㄴ. B: 선의지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의무의 형태를 지니는가?
 ㄷ. B: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를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인가?
 ㄹ. C: 합리적인 인간은 누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1~12]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고,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에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 양자를 똑같이 평가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닌 고급 능력을 사용하는 생활 태도를 선호할 것이다.

을: 최대의 행복은 모든 삶의 혼란에서 벗어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고통과 동요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이다. 육체적 쾌락은 결핍의 고통이 제거되는 즉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최대의 불안을 던져 주는 대상들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한 자는 최대의 정신적 쾌락을 얻는다.

11

▶ 23057-0101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갑: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대하지 않아도 희생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 ㄴ. 을: 운명이 삶을 지배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 ㄷ. 을: 절제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쾌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구되어야 한다.
- ㄹ. 갑과 을: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 23057-0102

갑, 을이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성적 존재자는, 그가 이 나라 안에서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면서, 그러나 또한 이 법칙들에 그 자신이 종속해 있다면, 목적의 나라에 성원으로로서 속한다. 이성적 존재자는 의지의 자유에 의해 가능한 목적의 나라에서 자기를 항상 법칙의 수립자로 보아야만 한다. 도덕성은 모든 행위가 목적의 나라를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는 법칙 수립과 맺는 관계에 있다.

- ① 갑: 공리가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임을 모르고 있다.
- ② 갑: 도덕 원리에 인간 평등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을: 쾌락이 다른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을: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 증진을 위한 수단임을 모르고 있다.
- ⑤ 갑과 을: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1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및 특징**(1)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 ① 근대 이성주의의 한계: 근대 이성주의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의 토대가 되었지만 비인간화, 인간 소외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하여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함
- ②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이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함

(2) 실존주의의 특징

- ① 근대 이성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중시함
- ② 개별적 인간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할 것을 강조함

2 실존주의 사상**(1)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 ① 실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한 개인
- ②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늘 불안을 느끼는데, 이때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빠져드는 '절망'을 말함
- ③ '주체성이 진리':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음.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임
- ④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 심미적 실존 단계 → 윤리적 실존 단계 → 종교적 실존 단계
- ⑤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초월적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함

(2) 야스퍼스의 실존주의

- ① 한계 상황: 죽음, 고통, 전쟁 등 인간이 이성이나 과학의 힘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 ②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음

(3)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 ① 인간을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 인간 존재인 '현존재'로 규정함
- ②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음 → 죽음의 가능성을 회피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음
- ③ 현존재의 의미, 실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스스로 삶을 기획하는 능동적 존재가 되어야 함

(4)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 ①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음
- ②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먼저 실존한 후에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을 형성해 가는 존재임
- ③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음
- ④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
- ⑤ 불성실: 자유,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불안을 가져오는데,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 ⑥ 불성실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함

3 실존주의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되어 가는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개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 실존적 삶을 사는 현재의 자신이 존엄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줌 •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어 상호 존중과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 줌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개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보편적 도덕규범을 경시할 우려가 있음 • 주관적 의견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는 주관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 배의 방향을 돌려야만 하는 순간에 처한 선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어쩌면 그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아주 서툰 선장이 아니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때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경우도 끝내 더 이상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그가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택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들이 그를 위해 선택을 해 주었기 때문이고, 또 그는 자기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오로지 신에 대한 무한한 관계에 의해서만 비로소 의식은 진정되고, 오로지 신에 대한 무한하고 자유로운 관계에 의해서만 비로소 인간의 불안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인간은 신께서는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신에 대하여 무한한 관계에 서게 된다. 그는 자신이 항상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신에 대해서 무한히 자유로운 관계에 있게 된다.

- 키르케고르, "이것이냐 저것이냐" -

키르케고르는 선택의 순간을 미루는 사람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하게 되며 결국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키르케고르는 선택의 순간에서 진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만이 신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4 실용주의의 등장 배경 및 특징

(1) 실용주의의 등장 배경

- ① 19세기 말 미국 사회: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에 직면함
- ② 산업화에 따른 과학적 사고방식의 확산: 사람들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됨

(2) 실용주의의 특징

- ① 영국의 경험론을 계승하고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음
- ②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추구: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한 기존의 사상으로는 사회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봄
- ③ 영원한 진리나 보편타당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5 실용주의의 사상

(1) 퍼스의 실용주의

- ① 실용주의(pragmatism)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함
- ② 실용주의 준칙(pragmatic maxim): 어떤 것이 옳으려면 그것이 반드시 쓸모 있는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함
- ③ 이론은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쓸모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2) 제임스의 실용주의

- ① 현금 가치: 마치 현금처럼 실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
- ② 지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롭고 유용할 때 비로소 현금 가치를 지님
- ③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과 철학과 같은 학문도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기여하므로 현금 가치를 지님
- ④ 진리란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음

(3) 듀이의 실용주의

- ① 도구주의
 - 인간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며,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론, 학문 등의 지식을 형성함

-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임
- ② 지성적 탐구
 - 지성: 근대 과학이 보여 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 →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함
 - 지성적 탐구의 의의: 지성적 탐구를 통해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가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음
 - 민주주의는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이며, 교육의 역할은 창조적 지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임
- ③ 도덕
 -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음
 - 도덕적 가치나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음
 - 도덕적 인간: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지성을 발휘하여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임. 또한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도덕 판단과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임

6 실용주의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1) 실용주의의 의의

- 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지성적인 방식으로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② 가치의 다양성과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관용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갈등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원화된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실용주의의 한계

- ① 지식의 도구적 가치인 유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본래적 가치의 존재를 간과할 수 있음
- ②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나 원리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음
- ③ 유용성의 관점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할 수도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듀이의 실용주의

- 사실상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일컫는 사람은 엄밀하게 현재 상태의 대안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며, 또 새로 형성하면서 성장·발전하는 자아를 펼쳐 보이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장·발전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러한 근거 말고 자아의 도덕적 위상을 판단하는 근거는 예외 없이 상투적이다. 정말로 도덕적 질을 결정짓는 것은 목표 달성 후 휴식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이다.
- 인간은 시인하고 부인하며, 공감하며 분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이 원하는 대상을 추구하고, 또 요구를 부과하면서 요구에 반응한다. 이와 같이 도덕적 선은 그 자체로 욕구를 만족하는 그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의무를 충족시키는 그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시인할 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현상을 통합함으로써 미덕과 어떤 기준이라는 일반화된 관념들이 출현한다. 여기서 이 기준은 시인과 부인, 칭찬과 비난의 표출을 규제하는 그런 기준이다. 도덕이라는 특별한 현상은 사회 조건과 문화 수준의 변화에 따라 시대마다 변화한다. - 듀이, "윤리학" -

듀이는 고정된 목표를 달성해서 더는 변하지 않는 정적인 자아와 지금도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역동적 자아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성장·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자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도덕적 개념과 도덕적 과정은 자연스럽게 성장·발전한다고 보았다.

01

▶ 23057-0103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양한 인생의 선택에서 선택하지 않고 “될 대로 되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느끼며, 세상을 향해서 작별 인사를 한다. 이런 사람들도 선택은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비본래적 의미에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선택은 하나의 심미적 선택이다. 심미적인 선택이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선택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것의 고유하고 절박한 표현이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윤리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는 언제라도 확신할 수 있다. 유일하게 절대적인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선과 악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는 선택이지만, 이것 역시 절대적으로 윤리적이다.

- ①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도 인간의 실존은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는가?
- ②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요구되는 실존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가?
- ③ 절망을 해소하려면 합리적 사유가 아니라 주체적 결단이 필요한가?
- ④ 세계 안의 모든 만물이 곧 신임을 깨닫고 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 ⑤ 심미적 실존 상태에 있는 인간도 진정한 자신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가?

02

▶ 23057-0104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절망적인 무능력, 아니 무의지로 도피하여 이 세계의 곤란한 일을 회피한다면 초월자를 상실한 자기 고립화에 빠진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서 단독으로 초월자 앞에 있을 때만 사림에 있어서 진실하다. 우리는 좌절을 알면서 동시에 이를 우리의 행위에 받아들일 때만 참된 실현의 행동을 한다.

을: 절망은, 이 자기 속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죽을 수가 없다. 죽음으로 이 병에서 구원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병은 죽을 수가 없다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소유하는 것, 온전히 자기로 있는 것이다.

- ① 갑: 인간은 고통 등의 한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좌절을 극복해야 한다.
- ② 갑: 인간이 자신에 대한 참된 경험을 하려면 타인과 연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을: 인간은 불안 극복을 위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이 참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할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를 수용해야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03

▶ 23057-0105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람들은 죽어 가는 사람에게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위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는 죽어 가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독자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존재 가능성인 죽음을 은폐하도록 조장할 뿐이다. 이런 위로는 죽어 가는 사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정된 생활이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현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지만, 그가 비록 명시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현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규정되어 있다.

보기

- ㄱ.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도피하지만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 ㄴ. 현존재는 죽음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ㄷ.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창조해 가는 능동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 ㄹ. 현존재는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4

▶ 23057-0106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한에 있어서만 실존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 전체, 그리고 자신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내게 좋지 않았어. 사실 나는 그때 내가 그랬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었는데 말이야. 물론 나는 위대한 사랑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럴 만한 남자나 여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며 실존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실존주의자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이란 있을 수 없으며,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가능성 말고 다른 사랑의 가능성이란 있을 수 없다.

보기

- ㄱ. 인간은 자유 그 자체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 ㄴ. 인간의 본질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인간은 스스로 삶을 만들어야 한다.
- ㄷ. 인간을 인간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다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 ㄹ. 인간은 자신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5

▶ 23057-0107

그림은 현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이 전체적으로 자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과 한 개별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규정된 이 개별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과 신 앞에서 오직 혼자 된다는 것은 인간이 막대한 노력과 막대한 책임성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 행동을 정당화시켜 줄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핑계도 없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 ① 갑: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인간은 현실의 윤리 규범도 넘어서야 한다.
- ② 갑: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신성(神性)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 ③ 을: 신이 없다면 정해진 목적이나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가치도 없다.
- ④ 을: 개인은 인간 본성에 근거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 ⑤ 갑과 을: 선택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자신의 선택으로 극복해야 한다.

06

▶ 23057-0108

대화의 사상가는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자: 진리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요?
 사상가: 어떤 관념 또는 신념이 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관념이 참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실제 삶에서 어떤 구체적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이 그 신념이 거짓이었다면 얻어졌을 경험들과 다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경험적 용어들에 있는 진리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기자: 진리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상가: _____ ㉠ _____

- ① 진리는 현금 가치가 없는 철학과 문학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② 진리를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 ③ 진리가 유용하기 때문에 참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④ 진리는 인간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가치가 있습니다.
- ⑤ 진리는 확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념이지만 거짓 관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07

▶ 23057-010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 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대상에서는 쾌락을 누리고 잘못된 목적에서는 고통을 겪는 성품을 성장·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성품의 성장·발전이라는 이러한 격률이 정당한 원칙이 되려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조건을 강조하고, 왜곡된 이상주의로부터 도덕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오류는 성취 결과를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가치 영역을 제한할 때 생깁니다. 성공의 개념에 오로지 확실한 물질적 좋음만을 포함시키고, 문화·예술·타인과의 공감적 관계의 성취를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움과 정당한 판단은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며, 이 능력은 목적들을 형성합니다. 이 목적들은 서로를 성장·발전시키고 또 서로를 강화합니다.



- ① 행위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보편적 도덕 원리를 보존해야 한다.
- ② 성공하려면 타인과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고정된 선이 아니라 성장 자체를 도덕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④ 학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학생에게 전달해야 한다.
- ⑤ 성찰하기보다 물질적 가치만을 최대한 향유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08

▶ 23057-0110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하나의 목적은 결과가 올바른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가설로 여겨져야 한다. 실수는 이제 슬퍼해야 할 사건이나 속죄해야 할 도덕적 죄가 아니다. 그것은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며 더 나은 미래의 과정에 관한 가르침이다.</p> <p>을: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쾌락,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하고,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덕 원리를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ㄴ. B: 도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 ㄷ. B: 행복은 능동적 과정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 ㄹ. C: 도덕의 최종적 목적은 고통의 최소화와 쾌락의 최대화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9

▶ 23057-0111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긍정, 현대 서양 사상이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한 번도 진리를 본 적이 없는 영혼은 사람의 이데아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많은 감각이 이성적 추론에 따라 하나로 통합된 이데아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이해는 영혼이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시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응시할 때 신과 전에 여행하며 본 것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을: 상황의 구조를 관찰하고, 그 요소를 분석하고, 다양한 행위들의 결과를 추적하고, 예상된 결과가 실제와 일치할 때까지는 지금의 결정을 가설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지성적 탐구이다. 고정된 목적에 관한 이론은 불가피한 논쟁에 빠지게 한다. 다양한 선들이 충돌할 때 누가 혹은 무엇이 올바른 길을 결정할 것인가?

- ① 도덕적 가치는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인가?
- ② 지식이나 이론은 인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일 뿐인가?
- ③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물의 절대적인 본질이 존재하는가?
- ④ 이성의 능력을 활용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는가?
- ⑤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실험적 방법을 통해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10

▶ 23057-0112

(가)의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도덕적 감각이 타인의 행동을 응시하는 데에서 유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감각을 우리 자신의 행동에까지 확장한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게 대해 품은 소감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공감한다. 공공 이익에 대한 하나의 공감은 정의라는 덕에 수반되는 도덕적 시인(是認)의 원천이다.</p> <p>을: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악곡의 처방전처럼 적용해야 할 규칙도 아니다. 도덕에서의 필요는 탐구와 고안에 관한 특정한 지성적 탐구 방법에 대한 것이다. 난점이나 악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탐구 방법, 그것을 다루기 위한 유효한 가설로 사용될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고안 방법에 대한 것이다.</p>
(나)	

보기

- ㄱ. A: 도덕 영역에서도 경험과 관찰을 통한 탐구를 해야 하는가?
- ㄴ. A: 유용성을 가져오는 행위는 도덕적 시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ㄷ. B: 인간의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ㄹ. C: 도덕적 과정은 나쁜 경험에서 더 나은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 인간의 삶과 사회사상의 지향**(1) 인간의 삶과 사회사상**

- ① 인간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
- ② 사회 속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은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감
- ③ 사회는 인간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사상이 형성됨

(2) 사회사상의 특징과 지향**① 사회사상의 특징**

- 사회사상: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의 구현 방법 및 운영 방안을 체계화한 사유
- 예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
- 현실의 부조리가 개선되어 더 나아진 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함
- 사회를 더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며 실천적인 성격이 강함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게 하고 의무를 안내해 줌

② 사회사상이 지향하는 목표

-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서 실현하고자 함
- 바람직한 사회의 조건과 실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함
- 이상 사회를 제시하여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바람직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2 동서양의 이상 사회론**(1) 이상 사회의 의미**

- ①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이 실현된 사회
- ② 동서양의 여러 사상가는 현실 사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상 사회를 제시함
- ③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여 바람직한 이상 사회의 구현과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줌
- ④ 다양한 이상 사회가 제시된 이유
 - 시대마다 사람들이 바라고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 다름
 - 여러 사상가들이 파악한 현실 사회의 모순과 부패의 원인이 각각 다름

(2) 동양의 이상 사회론**① 공자의 대동(大同) 사회**

- 성인(聖人)이 다스리며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는 사회
- 구성원들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가 실현됨
-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람들이 재물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함께 보호함
-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 공동체임

② 노자의 소국 과민 사회

- 작은 영토에 적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적 규범과 문명의 이기(利器)에 무관심함
- 분별적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이 없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감
-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소규모 공동체임

자료와 친해지기 노자의 이상 사회

- 천하에 꺼리고 금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백성들에게 예리한 기구가 많아지면 국가는 더욱 혼란해진다. 사람들에게 기교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이 더욱 생겨난다. 법령이 밝아질수록 도둑들은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내가 무위함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착하게 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함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아무 일도 없으므로 백성들은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스스로 소박해진다.”라고 하였다.
- 나라는 작고 백성들은 적어야 한다. 비록 수백 종류의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기게 하고, 멀리 이사 다니지 않도록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어야 한다. 비록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벌여 놓고 쓸 곳이 없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 새끼를 묶어서 문자로 사용하게 한다. 그들의 음식을 달게 먹고, 그들의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들의 주거에 편안히 살며, 그들의 풍속을 즐겨야 한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 우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도덕경” -

노자는 기구나 법령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혼란해진다고 주장하여 무위으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인위적인 다스림이나 도덕규범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상 사회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3) 서양의 이상 사회론

①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발휘하는 사회
-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사회
-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앎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 다스림

② 모어의 유토피아

- 사유 재산제를 폐지하고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
- 16세기 당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등 영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며 등장함
-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음
-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고 정신적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림

③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증진되는 사회
- 과학 기술자가 주도하는 신비의 섬을 배경으로 함
- 인간의 지식과 새로운 과학 기술 및 문명의 발전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보여 줌

④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
-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도덕적 타락, 자본의 소유에 따른 차별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함
-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음

-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됨
- 계급과 국가가 완전히 사라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아를 실현함

⑤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 주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존재한다면 정의롭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등장함
-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함

(4) 동서양 이상 사회론의 현대적 의의

① 이상 사회론의 의의

- 한 사회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한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있음
- 이상 사회론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천 지침을 얻을 수 있음

② 다양한 이상 사회론의 현대적 의의

- 자유와 평등의 보장 및 분배 정의 실현 가능: 누구나 공정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음
- 물질 만능주의와 비인간화 현상 극복 가능: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꿈꿀 수 있음
- 개인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이기주의 풍토 극복 가능: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를 지향: 동서양 모두 다툼과 분쟁이 없고,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난 이상 사회의 모습과 조건을 제시함

자료와 친해지기 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도시는 크기가 동일한 네 개의 지구(地區)로 구분된다. 각 지구의 중앙에는 온갖 물건을 취급하는 시장이 있다. 각 세대는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모두 여기로 가져오고, 그 물건은 종류별로 각 상점에 분배된다. 가구주는 자신이 속한 가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양만큼 해당 상점에 가서 돈이나 현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져오면 된다.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양만큼 요청해도 거절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모든 것이 충분히 차고 넘치게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든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실 모든 동물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주 풍부하여 결핍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 탐욕을 부리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런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허영심과 오만으로 탐욕을 부추긴다. 하지만 유토피아의 제도 속에는 그런 종류의 악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 모어, "유토피아" -

모어는 유토피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필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한다고 묘사하였다. 그는 유토피아에는 쓸데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6시간의 노동만으로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어는 사유 재산과 화폐가 없기 때문에 유토피아의 시민들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01

▶ 23057-011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신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부모 자식만 부모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흠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마다 문이 있어도 잠그지 않는다.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을: 선의 이데아를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으며 절제와 용기를 갖춘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바른 사람들만 학습과 수련을 받게 하여 그들만을 교육한다면 우리도 국가와 정치 체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엉뚱한 사람들을 교육한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 ① 갑: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 모든 사람은 군자와 같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 수양을 해야 한다.
- ③ 을: 정의로운 국가에는 지혜·용기·절제의 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④ 을: 나라를 방위하는 수호자는 시가 교육과 체력 단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덕을 가진 통치자가 다스리고 구성원이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02

▶ 23057-011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道)는 언제나 무위(無爲)하지만 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임금이 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는 중에 욕망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명(無名)의 통나무[樸]와 같은 도로써 억누를 것이다. 이 무명의 통나무로 억누르면 욕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 욕망을 없애고 마음이 고요해지면[靜]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 ① 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백성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 ② 소박한 삶을 위해 어떤 공동체도 없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③ 임금이 무위(無爲)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올바르게[正] 된다.
- ④ 적은 수의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구[器]를 권장해야 한다.
- ⑤ 자기 나라의 풍속을 즐기면서도 이웃 나라와 서로 왕래하며 교류해야 한다.

03

▶ 23057-0115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나라에는 정의로운 제도가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극소수의 법률로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일을 잘 해결한다. 그들 중에 선량하고 가치 있는 미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간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규제를 담은 법을 끊임없이 제정하지만,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만족스럽게 세워 나갈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평피아라 불리는 이 나라와 달리 많은 법을 통해 사유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분쟁과 소송이 계속된다. 사유 재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재화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기

- ㄱ. 유평피아는 사적 소유물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자원을 분배하는가?
- ㄴ. 유평피아는 도덕적 행위를 선호하고 도덕적 타락을 거부하는 사회인가?
- ㄷ. 유평피아는 법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는가?
- ㄹ. 유평피아는 시민이 여가 시간에 정신적 오락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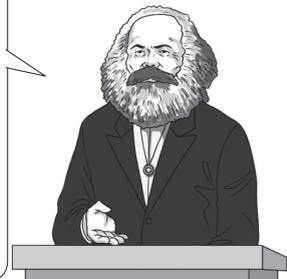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4

▶ 23057-01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 발전 과정에서 계급적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연결된 개인들의 손안에 집중되면, 공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래 정치적 폭력이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폭력을 뜻합니다. 만일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계급과의 투쟁에서 계급으로 단결한다면,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폐기한다면, 그들은 생산관계와 아울러 계급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자체를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이루어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협력체가 들어설 것입니다.



- ① 이상 사회에서는 계급이 소멸된 국가가 구성원을 자유롭게 해 준다.
- ② 이상 사회는 인간이 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노동 형태를 권장한다.
- ③ 이상 사회는 공산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의 통합을 통해 가능하다.
- ④ 이상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가 구성원의 협력을 실현한다.
- ⑤ 이상 사회는 생산 수단의 공유를 철폐하고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돌려준다.

05

▶ 23057-0117

그림은 서양 사상이 가, 사회사상이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벤살렘 사람들은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솔로몬 학술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더욱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원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동굴들을 만들어 새로운 인조 금속과 물질 등을 만들어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갖춥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언어와 제도가 같은 54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나 쓸데없는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적은 시간만 일하더라도 생필품이나 인간으로서 누릴 만한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물건까지 충분히 넘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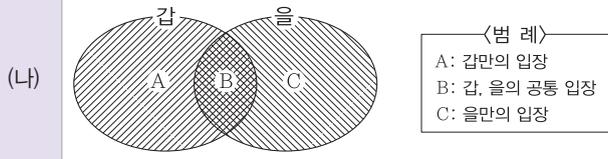
- ① 가: 종교적 구원과 과학을 통한 생산력 향상은 양립할 수 없다.
- ② 가: 인간은 자연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을: 대표자는 구성원이 잉여 생산의 욕망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 ④ 을: 각 개인의 노동량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사회가 이상 사회이다.
- ⑤ 가와 을: 경제적 풍요는 이상 사회의 실현을 방해하므로 억제해야 한다.

06

▶ 23057-0118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가: 수호자들은 공동 식사를 하며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 그들의 영혼에는 금과 은이 영원히 내재하기 때문에 세속의 금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수호자들이 재산을 사유하기 시작하면 다른 시민들의 협력자에서 적대적인 주인으로 바뀔 것이다.
 을: 공산 사회에서는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조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냥꾼, 어부, 양치기, 비평가라는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잡고, 저녁에는 양을 치고, 식사 뒤에는 비평을 할 수 있다.



보기

ㄱ. A: 이상 사회에서 재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는 계급이 존재한다.
 ㄴ. B: 이상 사회에서는 통치자가 생산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ㄷ. B: 이상 사회의 실현 과정에서 특정 계급이 전적으로 통치를 맡아야 한다.
 ㄹ. C: 이상 사회는 자본주의적 분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이 바르게 나누어져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7

▶ 23057-011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치를 할 때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풍족하게 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부득이 하나씩 버려야 한다면 군대, 식량 순으로 버려야 한다. 옛날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임금은 임금답게 정치를 해야 한다.

을: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학술원은 실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며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용성을 찾아내려 한다.

- ① 갑은 통치자가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덕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정(仁政)을 펼치는 것은 통치자 자신이 아닌 백성의 역할이라고 본다.
- ③ 을은 학문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관찰과 실험을 통한 연구가 인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이상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된다고 본다.

08

▶ 23057-0120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른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이다.

보기

- ㄱ.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 이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한다.
- ㄴ. 정의의 원칙은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다.
- ㄷ. 정의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 여건의 효과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 ㄹ. 정의의 원칙은 구성원이 사회 협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합의하는 근거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 국가와 윤리

(1)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관점

① 유교

- 국가는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인 → 효제(孝悌)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의(仁義)를 실현하고자 함
-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김 →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여기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

②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인
-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인

③ 공화주의

- 국가는 공동선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는 시민이 모인 공동체인
- 국가는 시민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정치에 참여할 때 유지될 수 있음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동의한 다수의 결사이다.
- 키케로, "국가론" -

④ 사회 계약론

- 국가는 시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려 동의와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체인
- 국가는 원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려고 만들어 낸 수단이라고 봄

흡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맺으며 국가가 발생함
로크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함
루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가면서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함

⑤ 마르크스

-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임
→ 사유 재산이 생겨나고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배 계급의 수단으로 국가가 등장함
-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임 →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가 소멸할 것으로 봄

(2)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관점

① 유교

- 민본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설명함 → 백성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므로 군주는 위민(爲民) 정치를 펼쳐야 함
- 국가는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 → 국가를 백성들의 도덕적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로 인식하고, 군주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의 실현을 강조함
- 맹자: 군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통치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음

②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의 역할은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임 →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해야 함
- 국가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국가 전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므로,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것은 공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자기 아이를 개별적으로 보살피고 자기가 최고라고 가르치는 지금의 교육처럼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훈련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자료와 친해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대한 관점

모든 국가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생활 공동체는 선(善)한 목적을 가지고 성립된다. 모든 생활 공동체가 선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 중에서도 최고이며,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국가는 다른 공동체보다도 더 큰 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국가는 일상생활의 단순한 필수품을 충족시키려는 데에서 출발하여 선한 생활을 위하여 그 존재를 유지시킨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앞서는 것이므로 국가는 가족이나 개인보다 앞서는 것이다.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개인에 앞서 있다는 증거는 개인은 고립되어 있을 때에는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전체에 관련된 부분과 같은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족을 이루고, 여러 가족이 모여 촌락이 되고, 여러 촌락이 모여 자연스럽게 국가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는 단순한 생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선한 생활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행복의 실현이라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도덕 공동체로 인식하였다.

③ 공화주의

- 국가의 역할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임 → 국가는 구성원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돕고 공적인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질서를 마련해야 함
- 소수가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함 →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함

④ 사회 계약론

- 국가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당성 역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음
- 로크: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칠 경우 시민들은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⑤ 마르크스

- 국가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임 → 사람들이 기존의 계급 구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만들
- 국가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정의로운 국가라는 관념도 사라질 것이라고 봄 → 국가 소멸 후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할 것으로 봄

2 시민과 윤리

(1)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① 자유주의적 관점

-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함: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는 자연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임
-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집단의 권위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함
- 소극적 자유의 실현을 강조함 →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로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음

② 공화주의적 관점

- 시민은 상호 의존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임

-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 참여 및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
- 시민은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 공공의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함
- 현대 공화주의자: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함 →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로 자유의 실현이 법에 의한 지배로 가능하다고 봄

(2)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① 자유주의적 관점

- 공동선보다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함
- 시민이 동의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를 중시함
- 법치의 목적: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 국가는 중립을 지키며 법과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함
- 관용: 개인의 삶과 신념 및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덕목 → 타인이나 집단,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함
- 헌법적 애국심: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을 의미함 → 애국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② 공화주의적 관점

-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함 →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덕성을 함양하도록 함
- 법치의 목적: 권력의 사익 추구와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는 것임 → 시민적 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한 법치로써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함
- 관용: 공적 공간에서 토론할 때 시민 동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 애국심: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 사랑,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 책무임

자료와 친해지기 비롤리의 공화주의적 애국

공화주의적 애국은 종족적 민족주의나 시민적 국민주의와 다르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달리 공화주의적 애국은 한 인민의 일체성과 종족적 단일성에 어떠한 정치적·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대신 어떤 형태로도 종족 중심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시민적 연대, 시민적 일체성에 정치적·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공화주의적 애국은 시민적 국민주의와 달리 문화, 역사와 무관한 중립적 정치 원리들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정 공화국의 법, 정치 체제, 생활 방식에 충성한다.

- 비롤리, "공화주의" -

공화주의자인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은 자신이 속한 공화국의 제도와 생활 방식,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가 말한 공화주의적 애국은 종족적 단일성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닌 정치와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적 열정으로, 타인이 겪고 있는 억압과 차별의 해결을 위해 동참하려는 대승적, 자발적 사랑이다.

01

▶ 23057-0121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으로 귀하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 길주(桀紂)가 천하를 잃은 까닭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잃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잃은 것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길이 있으니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다. 백성을 얻는 데는 길이 있으니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는 길이 있으니 원하는 바를 주고 싫어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어진 정치[仁政]를 베풀어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며 농사일을 하게 한다면 장정들은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의 덕을 잘 닦아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와 형제를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섬길 것이다.

보기

- ㄱ. 군주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인륜으로써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한다.
- ㄴ. 군주는 민심을 곧 하늘의 마음으로 여기고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 ㄷ. 군주가 인의(仁義)를 해쳐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천명에 따라 교체되어야 한다.
- ㄹ. 군주는 백성들을 향산(恒産)이 없이도 향심(恒心)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02

▶ 23057-012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국가는 인민의 것(res publica)이다. 인민은 모든 형식, 모든 종류의 인간 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합의와 공유된 이익에 의해 결속한 다수의 모임이다. 한 사람의 잔인함에 의해서 전체가 억압받고, 또 하나의 법적인 유대나 합의나 계약된 결속, 즉 인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누가 그것을 인민의 것, 즉 국가라고 하겠는가?

입장	갑	을	병	정	무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약의 결과물이다.	✓	✓		✓	
국가란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공동체이다.	✓		✓		✓
국가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특정 개인에 의한 권력의 독점을 지양해야 한다.			✓	✓	✓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공적인 삶을 개인의 사적인 삶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05

▶ 23057-012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사회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하는 것이며, 법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

을: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 단결하여, 혁명으로 지배 계급이 되며,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급 간 대립을 안고 있는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 ① 갑: 인간은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 ② 갑: 주권은 구성원들 간 사회 계약을 통해서만 통치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 ③ 을: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평등이 실현된 이상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 ④ 을: 모든 계급이 연대한 혁명을 통해 형성된 국가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주체이다.
- ⑤ 갑과 을: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는 필연적으로 소멸해야 한다.

06

▶ 23057-012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위적인 인격체이며,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힘과 수단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치자는 평화를 획득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며, 통치자의 권력은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해야 한다.</p> <p>을: 국가는 지배 계급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주장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국가에서는 인격적 자유가 지배 계급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 개인에게만 존재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인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p> <p>병: 국가의 입법권이나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 일부를 제멋대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재산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진 모든 권력은 확립되고 선포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해 사유 재산 제도의 전면적 폐지가 필요함을 모르고 있다.
- ② B, D: 계급이 사라지고 국가가 소멸되어야만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C: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임을 모르고 있다.
- ④ E: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고난 자연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F: 통치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은 분립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07

▶ 23057-012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국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조직된 정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와 삼가야 하는지를 입법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질서 있게 조직해야 한다. 정치학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자들은 시민들에게 덕을 촉구해야 한다.

을: 국가를 만드는 사회 계약은 상호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 이 계약의 특성상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 일반 의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 의지가 특정한 개별적 대상만 지향하게 되면 본래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보기

- ㄱ. 갑: 국가는 훌륭한 법을 통해 시민이 덕을 갖추도록 이끌어야 한다.
- ㄴ. 갑: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리되어야 한다.
- ㄷ. 을: 국가는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한다.
- ㄹ. 갑과 을: 국가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들의 상호 합의의 결과물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08

▶ 23057-012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때 인간의 지적 발달과 그를 통한 도덕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스스로 책임지는 한, 개인은 타인에게 일체의 물리적·도덕적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하게 연관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별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널리 통용되는 의견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뛰어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의 개별성은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 그들이 획일성을 거부하고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류에게 크게 봉사하는 것이다.

- ① 개인의 지각과 판단 능력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단련될 수 있는가?
- ② 개인의 개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만 인간 사회가 수준 높게 발전할 수 있는가?
- ③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을 실천에 옮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④ 전통과 관습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가?
- ⑤ 대중이 용인하는 취향과 생활 방식에 어긋난 선택을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잘못을 행하는 것인가?

09

▶ 23057-012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섭 여부와 상관없이 지배받는 위치에 있는 개인들은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의적이지 않은 정부에 의한 구속이 개인을 자유롭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자의적 영향력, 다시 말해 잠재적으로 타인의 특수한 판단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이러한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한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동료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춰 설 수 있는 능력과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자의적으로 간섭하는 권력을 가지지 않겠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에 의한 지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②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독재자의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 ③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로의 자유’가 아니라 ‘~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 ④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합당한 법률 체제가 부과하는 정당한 간섭과 양립 가능하다.
- ⑤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증진은 타인이 자의적으로 간섭할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10

▶ 23057-013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국은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구성원으로 삼고 그 법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 주는 그런 자유 국가를 의미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특정 공화국과 그 시민들에 대해 서만 보이는 애착입니다. 이러한 애착은 법, 자유, 광장, 승리와 패배의 기억 등과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자유 공화국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정치적 평등이 전제되어야 이러한 애착이 나타나는데, 이 애착은 공공 의무의 이행과 공공선의 애착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공동체에 대한 대승적 사랑은 시민들에게는 시민적 의무를 수행할 힘을 주고 위정자들에게는 공동체의 자유 수호에 따르는 과중한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공화국은 하나의 정치 질서이며 생활 방식이므로 하나의 문화이며, 공화주의적 애국은 공화주의적 평등과 어떤 독특한 문화에 대한 애정에 가치를 두는 정치적 열정입니다.



- ① 애국심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인 조국을 수호하려는 선천적인 애착이다.
- ② 애국심은 공동체의 자치(自治)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진작될 수 있다.
- ③ 애국심은 좋은 정치와 공적 삶에 대한 참여를 통해 키워지는 인위적인 감정이다.
- ④ 애국이란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정 공화국의 법, 정치 체제, 생활 방식에 대한 충성이다.
- ⑤ 애국심의 대상이 되는 조국은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유와 정의가 실현된 공화국을 의미한다.

1 민주주의

(1) 근대 민주주의의 지향과 자유 민주주의

① 민주주의의 기원과 원칙

- 민주주의의 의미: 시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성인 남성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됨
 - 법원의 배심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관직을 추첨을 통해 시민에게 맡겨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함
 - 여성, 노예,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기에 오늘날 보편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음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의 원칙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권력 구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의 통제 원칙	모든 시민이 권력 구성 과정에 참여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 사회 계약 사상의 의의: 절대 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근대 자유 민주주의 확립의 사상적 토대가 됨
-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 아래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가나 공통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함 →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
 -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양도했던 권리를 되찾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 권력 분립(입법권, 집행권)을 주장함

•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 가면서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됨 → 개인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됨
- 국가는 공공의 이익(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 것이며, 주권은 엄연히 국민에게 있음

•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 자유주의와 결합한 근대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로 발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정부의 주된 역할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봄
-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 밀: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됨

(2)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의 자세

① 현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징

엘리트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정치 참여를 주기적인 정치 지도자 선출에 한정하므로 실제로 시민의 지배보다 정치가의 지배라는 성격이 강함 • 슈페타: 민주주의를 엘리트 정치인이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봄 • 정치적 의사 결정을 대표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음
참여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등과 같은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이 가능함 •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수도 있고,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움
심의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쟁점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과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음 • 합리적 의사소통이 결여되면 심의 결과에 문제가 생김

자료와 친해지기 로크의 사회 계약론

입법권은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존재한다. 첫째,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이고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둘째, 입법권은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공포된 영속적인 법,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에 의해 정의를 시행하고 시민의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입법권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넷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한 권력을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 - 로크, "통치론" -

로크는 통치 권력은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국가의 최고의 권력은 입법부에 있지만,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권력을 남용할 경우 인민이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② 민주 시민의 자세

소로의 시민 불복종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양심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함
롤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봄 →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할 목적으로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함
하버마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한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의함 →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정당성 판단의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나면 행해질 수 있음

2 자본주의

(1)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①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

- 자본주의의 의미: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 개인이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
- 자본주의 등장 배경
 -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여 경제적 영역에서도 자유로운 생산과 교환 등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함
 - 프로테스탄티즘: 칼뱅은 신의 소명인 직업에서 성공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함 → 합리적인 이윤 추구와 금욕주의적 직업 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 됨
-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규범적 특징

고전적 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사상가: 스미스 •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 경제 작동의 원리를 존중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야 함
수정 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사상가: 케인스 •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빈부 격차, 실업 등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신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사상가: 하이에크 •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무능과 부패 등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해야 함

②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	개인은 경제 활동의 자유(직업 선택과 계약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보호받고 증진할 수 있음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증진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신장됨
경제적 효율성 제고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됨

(2)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① 자본주의의 한계와 비판

빈부 격차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 교육 정도의 차이에 따라 노동 기회나 소득 분배에서 불평등이 초래됨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를 양극화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함
물질 만능주의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도 현상이 나타남 → 황금만능주의와 물질 숭배로 이어짐
인간 소외	인간이 만들어 낸 물질이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 소외 현상이 초래됨 → 상품을 만드는 기계나 부속품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남

②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도

-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
 -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1848)'을 발표함
 - 부르주아(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 → 자본주의 붕괴 → 프롤레타리아 독재 → 계급 없는 공산 사회
 -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에 있으므로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봄
- 민주 사회주의
 -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여 '프랑크푸르트 선언(1951)'을 통해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을 선포함
 - 소련식 사회주의의 급진적인 폭력 혁명론을 비판하고 의회 중심의 민주적 방법에 의한 점진적 사회 개혁을 강조함
 -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 공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함

③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

-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해야 함
-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실시함

자료와 친해지기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또한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함으로써 각 개인은 사회의 연간 수입이 최대치가 되도록 노력한 것이 된다. 개인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자신이 실지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자본을 국내 산업의 어떠한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가,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지역적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 스미스, "국부론" -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둬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사업 등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1

▶ 23057-0131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사회를 형성하고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사람들이 사회에 또는 그것과 다른 입법부에 사회의 공공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인간의 힘을 능가해 버리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사회 계약을 통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아래 두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연합의 형태를 발견하고자 한다.

- ① 갑: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다.
- ② 갑: 입법부는 국민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
- ③ 을: 국가는 모든 개인의 사적 의지와 공적 의지를 합한 일반 의지를 대행한다.
- ④ 을: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각자 자연권을 절대적 통치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개인의 동의로 국가가 형성되지만 국민이 저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02

▶ 23057-013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사람들이 비참한 자연 상태를 떠나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국가는 사람들의 상호 신의 계약을 통해 세워진 하나의 인격이다.</p> <p>을: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이다. 국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수단과 도구는 법률이다.</p> <p>병: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연 상태를 떠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여 하나의 집합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시민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국가는 개인의 인격들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으로 공화국이라고도 부른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비판의 내용</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예시></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A, F: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면 개인은 개별적 반발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법은 무효임을 간과한다.
- ④ D: 국민은 통치자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로써 다스려야 함을 간과한다.
- ⑤ E: 개인은 주권자의 판단과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해야 함을 간과한다.

03

▶ 23057-0133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가의 지배입니다. 정치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에게 맡기고 시민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 역할만 해야 합니다.



갑

민주주의는 참된 진리를 모르는 대중들의 정치입니다. 통치는 좋은 자체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을

보기

- ㄱ. 갑: 정치가가 득표를 위해 자유 경쟁을 할 수 없다면 비민주적인 사회이다.
 ㄴ. 갑: 시민은 정치적 감각과 책임 의식이 부족해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ㄷ. 을: 통치자는 모든 덕을 갖추었기에 전 계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ㄹ. 갑과 을: 시민이 통치자가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간섭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4

▶ 23057-013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생활 세계에서 비롯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의한 소통은 비강압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개인들의 온전한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관계를 토대로 공론장 담론을 확장시킴으로써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담론 이론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호 이해 과정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상호 주관성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숙의(熟議) 정치의 핵심은 사회 문제를 합리적인 시민들이 공론장에서의 숙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 기구, 그리고 심의 기구 내·외부에서의 숙의 과정, 숙의의 공론장들이 합리적인 의견과 의지를 형성하게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숙의 정치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 ㄱ. 의사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공론 형성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 모두가 합의한 내용은 타당한 규범이 될 수 있다.
 ㄷ.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주관적 견해가 아닌 객관적 견해만을 표현해야 한다.
 ㄹ. 의사소통과 행위 능력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5

▶ 23057-0135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종교적 신념과 시민 불복종 간에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생활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호소인 까닭에 정치적인 행위이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은 사람들이 상호 간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공동의식에 입각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랑에 대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롭고 동등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협동의 기본 조항인 정의의 원칙들이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 지우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시민 불복종에 대한 견해는 자유로운 정부에 관한 이론의 일부가 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 합법적이고 합당하며 도덕적인 방식이다.
- ②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만든 법은 제외된다.
- ③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는 차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들도 포함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 ⑤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06

▶ 23057-0136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일이다.

을: 우리가 항거하는 부정의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위반이 정상적인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병: 우리의 법질서는 보편적인 원칙들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시민 불복종도 헌법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 국가라 하더라도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 시민 불복종은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에 위치해야만 한다.

- ① 갑: 정부가 불의한 법을 개정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시민 불복종을 해야 한다.
- ② 을: 법과 정책은 물론 정의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을 통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③ 병: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다.
- ④ 갑과 을: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⑤ 을과 병: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 방식으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다.

07

▶ 23057-013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충분한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로 생산물이 대폭 증가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는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부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일자리가 있을 때만 생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하는 한에서만 일거리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다. 증대해 가는 기계 사용과 분업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계급의 노동은 자립적 성격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 ① 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빈부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자본가가 각성하여 소외되는 인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공장 내 분업 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풍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08

▶ 23057-0138

다음은 어느 사회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에게

당신은 계획은 비효율적이고 퇴행적일 뿐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치명적 오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경쟁이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우월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은 인간을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불안으로 가득 찬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아넣습니다. 고용은 불안전해지고 사업가들의 합리적인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며 효율과 생산에 차질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제3의 경제 주체로 나설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을 포함한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 시장은 최상의 자원 배분 공간이 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의 견해는 ㉠고 생각합니다.

- ①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를 국가가 마련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작은 정부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③ 생산 수단의 공유를 바탕으로 사적 소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공황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효 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시장 경제보다 계획 경제를 우선해야 함을 간과한다

09

▶ 23057-0139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민주주의는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이다. 자본주의가 사유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에 기초한 경쟁 체제를 의미한다면 이 체제에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집단주의 신조에 의해 민주주의가 지배당하면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는 체제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며 완전 고용, 생활 수준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경제적 목표로 삼는다. 사회주의는 경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 ① (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 ② (가): 개인의 경제 활동 목적이 자유 경쟁 체제에서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나): 생산 수단을 모두 공유화하여 소유의 불평등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 ④ (나): 경제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모든 경제적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경제 활동의 본질은 사적 이윤을 최대한 추구하는 데 있다.

10

▶ 23057-014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개인은 오직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스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부를 증진한다.</p> <p>을: 정부가 몇 개의 낮은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고 탄갱을 지면까지 쓰레기로 채운 후 개인 기업이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고 그 효과로 사회의 실질 소득과 자본의 부가 증가할 것이다.</p> <p>병: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들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쟁은 권력의 간섭 없이도 개인들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A{A} -- 예 --> G[갑의 입장] A -- 아니요 --> B{B} B -- 예 --> C{C} C -- 예 --> E[을의 입장] B -- 아니요 --> D{D} D -- 예 --> H[병의 입장] </pre>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div>

보기

- ㄱ. A: 시장에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ㄴ. B: 실업에 따른 자유의 상실을 막기 위해 경제 주체인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 ㄷ. C: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생산 성과를 분배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가?
- ㄹ. D: 정부의 의도적 개선보다 시장의 자생적 진화를 통한 시장 질서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 동서양의 평화 사상**(1) 동양의 평화 사상****① 유교**

-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므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가 도덕성을 회복하여 인의(仁義)를 실현해야 함
- 통치자는 인의에 기반한 덕치와 인정(仁政)으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어야 함 → 무력을 앞세워 전쟁을 일삼고 부국강병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도덕성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대동 사회를 유교적 이상으로 봄

② 묵자

-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仁)이 존비친소를 구별하는 차별적 사랑으로서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보편적 인류애를 주장함
- 천하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의 실천을 주장함 →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어야 전쟁과 같은 불의(不義)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 전쟁이 가져오는 불이익을 강조하며 비공(非攻)을 주장함 → 침략 전쟁은 침략을 당하는 나라와 침략을 하는 나라 모두에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무수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여 나라를 쇠망시킬 수도 있음

③ 불교

- 평화 실현을 위해 개인이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탐욕, 화냄,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연기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함
-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연기에 대한 자각은 무차별적인 사랑인 자비로 이어짐
-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됨
- 통치자는 자비를 실천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함

④ 도가

-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소박하고 순수한 덕에 따라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

-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이 자급자족하며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소국 과민 사회를 지향함 → 무역이나 교류가 필요 없이 서로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감

⑤ 간디

- 비폭력(아힘사)의 윤리를 바탕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살생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인간은 쉽게 폭력에 휩쓸릴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이므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정심을 행위 원칙으로 삼고 자제력을 키워야 하며, 적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됨

(2) 서양의 평화 사상**① 에라스무스**

- 전쟁은 종교적·도덕적·경제적 측면에서 본성상 선보다 악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되고, 전쟁에서는 악인만이 아니라 무고한 다수가 혹독한 재앙에 휘말리게 되며, 전쟁을 위한 무기 구매 등에 비용이 들고 전쟁에 의한 파괴와 통상의 단절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
- 학자, 성직자 등이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돕는 중재 제도를 통해 전쟁을 피하게 해야 함

② 생피에르

-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나 도덕성에 호소하는 대신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하고 합리적 이성 따를 것을 주장함
- 전쟁이란 인간의 이기심이 대립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무력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이기심을 이용하면 평화로 이끌 수 있음 → 군주에게 전쟁에 따르는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을 제시하여 평화가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군주 스스로 평화를 지향할 것임
- 군주들의 연합을 만들면 공리적 관점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음 →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 국제 평화를 실현함

**자료와 친해지기****묵자의 평화 사상**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위로는 하늘의 이익에 적합하고 가운데로는 귀신의 이익에 적합하며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에 적합하면 칭송할 것이다. 이에 천하를 다스렸던 옛날 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큰 나라와 서로 즐겁게 지내며 천하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온 세상을 통합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임금이나 천하의 제후들은 군사들을 정리하고 군함과 전차를 타는 부대를 정돈시킨 다음 튼튼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를 갖추고 죄 없는 나라를 정벌하려 나가는 군대를 괴멸시키고 만백성을 해쳐 성인의 일을 어지럽힌다. 이는 하늘과 귀신과 백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 "묵자" -

묵자는 통치자가 천하와 백성에게 이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전쟁은 오래가면 수년, 빨리해도 수개월은 걸리므로 그동안 임금도 관리도 백성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쟁은 무수한 인명 피해 및 물자 손실 등을 초래하여 천하와 백성에게 끼치는 해가 중대하므로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③ 칸트

-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화 실현의 의무가 있음
- 평화 실현을 위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인간 존엄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전쟁은 인간을 국가적 이해관계 실현의 수단으로만 대우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영구 평화론: 전쟁 예방과 국가 간의 영구 평화 보장을 위해 국제 연맹의 창설과 세계 시민법의 조건 등을 담은 조항을 제시함

제1의 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제2의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제3의 확정 조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④ 갈통

-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함

소극적 평화	•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 빈곤, 인권 침해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짐
적극적 평화	•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 •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함

2 세계 시민주의와 세계 시민 윤리

(1) 세계 시민주의의 의미와 특징 및 전개

- ① 세계 시민주의의 의미: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전 인류를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봄, 스토아학파에서 발전함
- ② 세계 시민주의의 특징
 -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여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인종·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강조함
 - 인류애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③ 세계 시민주의의 전개

애틀리아	• 세계 시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도 인정함 •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함
누스비움	• 편협한 애국심과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애를 가져야 함 •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특성인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정의와 선에 대한 합리적 추론 능력을 함양해야 함

(2) 세계 시민 윤리를 위한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① 국제주의적 입장: 롤스

-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함
-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짐 →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그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음
- 억압이나 폭력, 기아나 빈곤과 같은 문제는 국내 정치·사회 제도의 부정의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부정의함이 제거되고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되면 해결될 수 있음
-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평준화할 필요는 없음

②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 싱어

-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함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조의 의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전제로 함 →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의무임
-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조의 목적은 전 인류의 복지 향상임

자료와 친해지기 갈통의 평화 사상

직접적인 폭력은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신체와 정신과 영혼을 상하게 한다. 구조적 폭력은 정치적·억압적·경제적·착취적 폭력으로 구분되며 구조적 침투, 붕괴, 분열, 사회적 소외 등에 의해 조장된다. 문화적 폭력은 내용 면에서 종교, 법과 사상, 언어, 예술, 과학, 우주론 등으로 구분되며 전달 매체 면에서는 학파들, 대학들, 미디어 등으로 나뉜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서 또는 적어도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서 보이게 하거나 심지어 느껴지게 만든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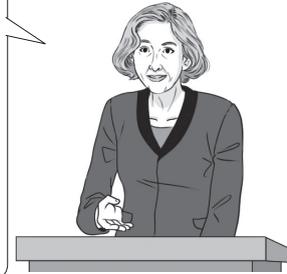
갈통은 폭력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평화를 위해서는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갈통은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인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어야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07

▶ 23057-014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은 종종 외로운 일입니다. 디오게네스가 말했듯이, 그것은 일종의 추방입니다. 즉 특정 지방이 주는 위안, 애국주의의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사람들은 지역적 경계라는 버팀목이 제거된다면 삶에서 따뜻함이나 안전을 잃어버린 것처럼 끝없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시민주의는 그러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계 시민주의는 오직 이성과 인간성에 대한 사랑을 제공하므로 종종 다른 소속감의 원천들보다 덜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소속감의 표상보다 보편적 이상을 앞세우는 세계 시민주의자라고 해서 그 삶이 지루하거나 단조로우 필요도 없고 애정이 결핍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속한 지역에서의 지위와 국가라는 상징을 벗어던지는 것이 사랑에 성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① 지역적 출신과 소속 집단만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우리는 세계 모든 인류를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이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 ③ 인류애를 기반으로 수립된 세계 시민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우선해야 한다.
- ④ 국가의 경계선을 초월한 공동체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이다.
- ⑤ 지역적인 정치 조직이나 국가를 폐기하고 하나의 세계 국가를 창설해야 한다.

08

▶ 23057-014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 시민주의 개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얽혀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지구촌을 살아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의무, 즉 혈족의 유대나 시민적 유대를 넘어서는 더 확장된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특수한 삶의 가치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들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이며 그 차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개인이나 사회가 단일한 삶의 양식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옹호해야 할 입장은 지역적 헌신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이다.

- ① 한 지방의 사람보다는 우월한 세계 시민으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 ② 자신의 지역에 헌신하더라도 지구촌 동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모든 인류에 대한 충성을 배제하고 자신의 민족과 계급에 충성해야 한다.
- ④ 세계화는 모든 것을 동질하게 만들어 버리므로 지역적 동질성은 사라진다.
- ⑤ 인류에 대한 보편적 관심과 지역적 차이에 대한 존중은 양립할 수 없다.

09

▶ 23057-0149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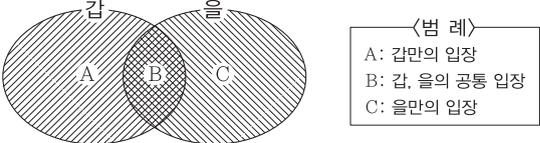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된 이후에는 원조를 받은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긍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되고 원조의 최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 ① 고통받는 사회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때까지 원조는 지속되어야 한다.
- ② 원조는 선진국의 이익을 자원이 열악한 국가들에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 원조에 강제력도 동원할 수 있다.
- ④ 물질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원조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⑤ 모든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면 원조를 통해 각국의 부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

10

▶ 23057-015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는 만약 그들의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전통들, 법, 그리고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p> <p>을: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도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는 연못에 빠져 죽어 가는 아이를 구할 의무보다 약한 것이 아니다. 절대 빈곤은 나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p>
(나)	

보기

- ㄱ. A: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원조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확립이다.
- ㄴ. B: 원조는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야 할 무조건적 의무이다.
- ㄷ. B: 원조를 결정할 때 원조받을 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ㄹ. C: 원조의 초점을 정치 문화 개선이 아니라 인류의 고통 감소에 두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7-015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사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 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얼마 전 사람의 본성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 이 내재하는지 물었기에 이렇게 답하고자 하네. 어린아이 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해하면서도 구하 지 않는다면, 그 마음만으로 인(仁)이라 할 수 없네. 누군 가 욕을 하거나 발로 차면서 밥을 줄 때 수치스러워하면 서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만으로 의(義)라 할 수 없 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공경하면서도 마중을 나가지 않 는다면, 그 마음만으로 예(禮)라 할 수 없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시비 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지 못하다면, 그 마음만으로 지(智) 라 할 수 없네. 인의예지의 덕은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네 가지 마음을 확충한 것이라네. ... (후략).

- ① 사단을 확충하여 자주지권(自主之權)을 형성해야 한다.
- ②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양해야 한다.
- ③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지닌 형구(形軀)의 기호를 따라야 한다.
- ④ 일상적인 행위 과정에서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실천해야 한다.
- ⑤ 하늘이 인간의 성(性)에 부여한 인의예지의 덕을 확충해야 한다.

▶ 23057-0152

2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군자(君子)가 인(仁)을 버리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 한 끼를 먹는 짧은 시간이라도 인 을 어기는 일이 없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인에 머물 고, 곤경에 빠져서도 반드시 인에 머문다.

을: 진인(真人)은 스스로의 덕을 소중히 품고 화합의 마음을 키 운다. 진인은 눈에 비치는 대로 사물을 보고 귀에 들리는 대 로 들으며, 마음이 밧줄처럼 평탄하고 그 변화는 모두 자연 을 따르고 있어서 사물에 거역하는 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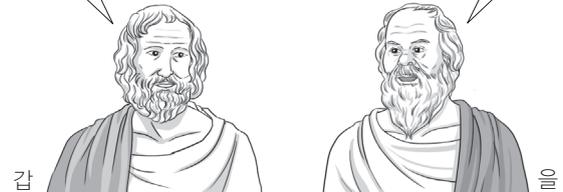
- ① 갑: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통해 인을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친소(親疏)의 구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을: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 ④ 을: 오감(五感)을 통해 사물의 미추(美醜)를 구별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23057-0153

3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은 부정, 을 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세상에는 굉장히 무지하지만 어 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용기를 갖 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덕은 지식이 아니며, 인간의 감각 적 경험이 덕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비겁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 무엇이고, 무섭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는 용기는 망용일 뿐입니다.



보기

- ㄱ.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각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 ㄴ. 참된 앎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ㄷ. 무서움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용기의 덕을 갖출 수 있는가?
- ㄹ. 무지에 대한 자각을 통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154

4 한국 불교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선정(禪定)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에 의존 하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에 의존하므 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단박에 깨닫기는 했지만 번뇌가 두텁고 습기(習氣)가 견고한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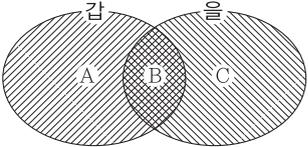
을: 법(法)은 언어의 모양이 없으나 언어의 모양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교(教)를 배우는 사람은 안을 버리고 바깥을 구하려 하고, 선(禪)을 익히는 사람은 연(緣)을 잊어 안으로 밝히기 를 좋아하니 이는 모두 한 방향으로 치우친 집착이다.

- ① 갑: 경전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 ② 갑: 돈오(頓悟) 이후에는 정(定)과 혜(慧)를 닦지 않아도 된다.
- ③ 을: 부처의 진리는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전해진다.
- ④ 을: 지관(止觀) 수행을 그만두고 교학(敎學) 수행을 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열반(涅槃)을 실현하려면 통찰지(般若)가 필요하다.

▶ 23057-0155

5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혐오한다. 따라서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 신이 하는 일은 모두 자연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쾌락과 같은 정념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고통의 제거보다 쾌락의 적극적 추구가 바람직하다.
- ㄴ. B: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ㄷ. B: 행복의 실현을 위해 절제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 ㄹ. C: 자유 의지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156

6 고대 동양 사상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양능(良能)이 있기 때문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지(良知)가 있기 때문이다. 어려서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자라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사양하며, 또 자식이 아버지 대신 일하고 아우가 형 대신 일하는 것은 모두 성정(性情)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정대로만 하면 사양할 까닭이 없고, 사양하면 오히려 성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 ① 타고난 본성을 따르게 되면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는가?
- ② 인간에게는 인의(仁義)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③ 예를 실천하여 사양지심(辭讓之心)을 형성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해 수양에 힘써야 하는가?
- ⑤ 인간은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教化)가 있어야 바르게 되는가?

▶ 23057-0158

8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도(道)란 무엇입니까?
 2 도는 천지(天地)의 시초이며 만물의 어머니라네. 도는 만물을 낳고 덕(德)은 만물을 기른다네.
 3 도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무엇을 역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아야 하네.

- ①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인(仁)과 예(禮)를 회복한다.
- ② 타고난 본성을 버리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한다.
- ③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서 무지(無知)의 상태에서 벗어난다.
- ④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소박하게 살아간다.
- ⑤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다.

9 한국 사상이 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각각 이(理)를 위주로 말하거나 기(氣)를 위주로 해서 말할 수 있다. 사단과 칠정도 이를 위주로 말하거나 기를 위주로 말할 수 있다.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니 이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니 기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을: 본연지성은 오로지 이만을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기를 겸해서 말한 것이다. 기 가운데 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주로 한다거나 기를 위주로 한다거나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단과 칠정도 서로 나눌 수 없다. 사단은 오로지 이만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① 갑은 이가 기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사단을 이가 발한 성(性), 칠정을 기가 발한 정(情)으로 본다.
- ③ 을은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라고 본다.
- ④ 을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사단을 칠정 바깥에 있는 순선한 부분이라고 본다.

10 사회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은 이것마저도 아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지도자 후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유 경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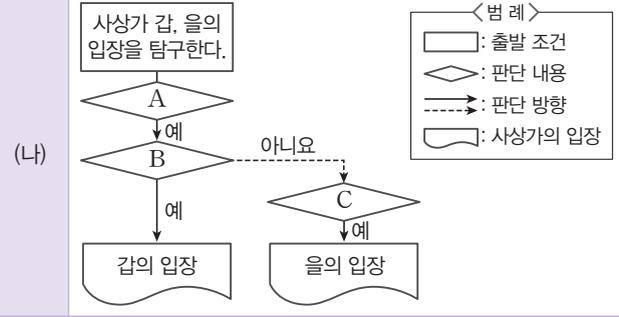
을: 민주주의는 보편적 인권이나 특정한 공동체적 윤리로부터 벗어나 담론 규칙을 토대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적 심의를 활용한 정책 결정 과정은 소통을 활성화하여 시민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 ① 갑: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지배이다.
- ② 갑: 모든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공동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을: 정치적 공론장은 사회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 ④ 을: 정책 결정 과정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모든 시민은 항상 합리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한다.

11 (가)의 중국 유교 사상이 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마음은 본래 한 사람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허령(虛靈)한 그 본체(體)는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치는 비록 모든 사물에 흠뻑 있지만 미묘한 그 작용(用)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

을: 사물 속에서 각각의 이치를 구하는 것은 마음과 이치를 둘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良知)인 천리가 각각의 사물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된다. 이것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되어 하나라는 것이다.



- ① A: 도덕적 행위는 참된 앎[良知]이 저절로 발현된 것인가?
- ② B: 격물(格物)은 마음이 있는 곳의 일을 바로잡는 것인가?
- ③ B: 사물의 이치는 마음이 인식해야 하는 객관적인 대상인가?
- ④ C: 치지(致知)는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인가?
- ⑤ C: 인식으로서의 지(知)를 습득한 후에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하는가?

12 사회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진정한 자유는 나의 선택이나 활동을 간섭하는 장애물이 없을 때 실현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한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 뜻은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을: 진정한 자유는 어느 누구도 나를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때, 즉 비지배일 때 실현된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불간섭의 자유와 달리 합당한 법률 체제가 부과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비자의적 간섭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① 갑: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인 적극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소극적 자유의 추구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할 여지가 크다.
- ③ 을: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자의적 권력에 예측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을: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조화이다.

▶ 23057-0163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질[色]과 정신[名]의 변화와 빛바래고 소멸을 체득하여 ‘모든 물질과 정신은 무상하고 괴로우므로 변하기 마련인 법(法)이다.’ 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근심과 탄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절망을 모두 버린다.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면 더 이상 갈애(渴愛)에 시달리지 않는다. 갈애에 시달리지 않으면 행복하게 머물게 된다. 행복하게 머무는 사람을 삼독(三毒)의 불이 꺼진 사람이라고 한다.

보기

- ㄱ.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 중도(中道)를 닦아야 한다.
- 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명(無明)에 이르러야 한다.
- ㄷ.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 ㄹ. 열반에 이르기 위해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7-0164

14 근대 서양 사상이 갑, 현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경험적 원칙은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일 도덕 법칙의 근거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거나 우연적 환경이라면,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 법칙이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성과 도덕 법칙이 무조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을: 도덕적 문제 상황이란 행위에 앞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는 자명하지 않다. 그것은 탐구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갈등하는 욕망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들이 있으므로 올바른 선을 찾아내야 한다. 도덕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 ① 갑: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을 따른다.
- ② 갑: 도덕적 가치는 문제 해결의 유용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 ③ 을: 도덕은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 ④ 을: 도덕적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다.
- ⑤ 갑과 을: 도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다.

▶ 23057-0165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할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는 오직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함이다.

을: 자연 상태에서 불평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으로 불평등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두었다.

병: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은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전쟁은 인간 본래의 정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나)

- ① A: 국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행함을 간과한다.
- ② B, E: 국가가 신탁을 위반할 경우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국가는 권력의 제한을 위해 권력 분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④ D: 인간은 사회 상태로 옮겨 가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됨을 간과한다.
- ⑤ D, F: 국가가 만들어져도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 23057-0166

16 한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양적(洋賊)을 공격하려는 자는 우리 쪽 사람이고, 양적과 화친(和親)하자는 자는 적국 쪽 사람이다. 우리 편에 서면 풍속을 보존할 것이고, 저쪽 편에 서면 금수(禽獸)의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을: 정덕(正德)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조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도(道)를 행하는 것은 정덕을 위한 것이요, 서양의 기(器)를 본받는 것은 이용후생을 위한 것이니 서로 병행하여 어긋나지 않는다.

- ① 갑은 유교 사상을 토대로 서양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서양 문물을 토대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신분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인륜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 23057-0167

17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유용성이 도덕적 정서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 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공감을 통해 우리의 시인을 받는다.

을: 유용성의 원리는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때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보기

- ㄱ. 갑: 선악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 ㄴ. 갑: 사람들이 지닌 공감 능력을 도덕성의 기초로 보아야 한다.
- ㄷ. 을: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별개로 이루어진다.
- ㄹ. 갑과 을: 사회적 차원의 이익 증진 여부가 도덕 판단의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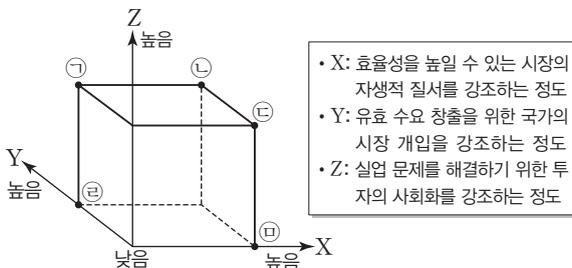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23057-0168

18 사회사상이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현실적으로 시장은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독과점과 같은 비경쟁 상태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

을: 계획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모든 과업에 대해 억지로 동의하도록 강요받게 됨으로써 노예의 길로 가게 된다. 자유 경쟁 체제만이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057-0169

1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지성이나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에 인간의 최상의 행복, 즉 지복(至福)이 존재합니다. 지복이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활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 ①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원인인 신과의 합일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자연과 구별되는 독립된 실체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 ③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정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 ④ 만물의 궁극적 원인과 만물이 발생하는 질서를 파악해야 한다.
- ⑤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 23057-0170

20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 시민주의는 세계의 수많은 관습적 종교들과 공존하기보다 이들 전통 종교를 대체한다. 동료 시민을 존중한다는 것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교설에 따라 삶을 살아갈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하며, 그리고 외부자들에게 위계와 배제의 신호를 보내는 모든 형태의 국가 종교에 대해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

- ① 자유주의적 가치보다 종교적 관행을 중시해야 한다.
- ② 기본적인 인권보다 종교적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 ③ 특정 종교를 기초로 배제와 보호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 ④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에 헌신해야 한다.
- 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며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7-017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오늘은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하 려 하네. 훌륭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다네. 정말로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이네. 성인은 쌓아 두지 않네. 남을 위할수록 자신의 것이 더욱 많아지 고 남에게 베풀수록 자신은 더욱 넉넉해지네. 하늘의 도 (道)는 이롭게 해 주지만 해치지 않는고, 성인의 도는 일 을 하지만 다투지는 않는다네[不爭]. ... (후략).

- ① 무지(無知)에서 벗어나 인의(仁義)의 덕을 익힌다.
- ② 억지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소박(樸)한 삶을 추구한다.
- ③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도록 예(禮)의 실천에 힘쓴다.
- ④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법과 사회 규범을 따른다.
- ⑤ 자신을 낮추는[謙虛] 자세에서 벗어나 최고의 선을 실현한다.

▶ 23057-0172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지와 접촉해서 생긴 감각 때문에 범부(凡夫)들에게 오온(五 蘊)을 ‘나’라고 집착하는 아상(我相)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나이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각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생각을 갖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등의 생각을 한다.

- 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아(無我)를 자각해야 한다.
- ②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무지의 상태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인간은 몸뿐만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업(業)을 지을 수 있다.
- ④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因緣]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 ⑤ 삼학을 닦아 근원적 번뇌인 무명(無明)에서 벗어나야 한다.

▶ 23057-0173

3 갑, 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 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물과 사람의 성(性)은 근원이 같지만 차이가 있다. 사람의 성에 대해서는 밝고 어두움을 논하고, 사물의 성에 대해서는 다만 치우침과 막힘을 논한다. 어두운 것은 밝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치우치고 막혀 버린 것은 통하게 할 수 없다.

을: 사물의 이치[理]는 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나의 마음 을 벗어나 사물의 이치를 구한다면 사물의 이치는 없다. 사 물의 이치를 버리고 나의 마음을 구한다면 나의 마음은 어 떤 것인가? 마음의 본체는 성이요, 성은 곧 이치이다.

- ①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괄[心統性情]하는가?
- ② 천리(天理)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가?
- ③ 앎과 행함의 선후와 경중을 따지면 앎이 우선하고 중요한가?
- ④ 마음의 이치와 사물의 이치를 구분하여 탐구하는 것은 잘못 인가?
- ⑤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하게 해야 하는가?

▶ 23057-0174

4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이성의 부분과 기개의 부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의 부분 을 지배하게 된다. 두 부분은 욕구의 부분이 육체적인 쾌락 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구의 부분은 너무 크고 강해져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을: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의 제거가 쾌락 크기의 한계이다. 쾌 락이 있는 곳에서는 육체나 마음의 고통이 없다.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살 수는 없다. 반대 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 정직하게 살 수는 없다.

보기

- ㄱ. 갑: 절제는 모든 욕구와 감정을 제거하고 이성애 따르는 것 이다.
- ㄴ. 을: 참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성이 역할을 해야 한다.
- ㄷ. 을: 쾌락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쾌락보다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다.
- ㄹ. 갑과 을: 모든 욕구를 충족하려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175

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고유한 이성의 본성에 따라 선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즉 인간은 신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려는 성향과 사회 안에서 살려는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러한 성향에 관한 것들은 자연법에 속하게 된다. 이런 성향들은 인간이 무지를 피하는 것,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등이다.

- 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자연법의 제1원리이다.
- ② 실정법은 자연법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 ③ 신의 영원한 법칙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
- ④ 자연적 덕만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한다.

▶ 23057-0176

6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나는 스승에게 한 번 듣고 그 말에 크게 깨쳐 진여(眞如)의 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그래서 이 교법을 후대에 퍼뜨려 도를 배우는 이에게 각자 마음을 관조해서 자신의 본성을 단박에 깨치게 하였다.
 을: 돈오점수(頓悟漸修)는 마치 해가 갑자기 오르면 서리와 이슬이 차츰 녹는 것과 같다. 돈오돈수와 같은 것도 여러 생 동안 차츰 닦아서 이번 생에 단박에 성숙한 것이다.

보기

ㄱ. 갑: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법이 공(空)함을 알아야 한다.
 ㄴ. 을: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을 때만 성불(成佛)이 가능하다.
 ㄷ. 을: 점수는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음으로써 실천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중생과 부처의 성품은 본래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8] 그림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와 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로 하는 바와 중요한 바를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사단과 칠정은 바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습니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요,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하는 것입니다.



▶ 23057-0177

7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ㄱ. 갑: 이는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하며 순전한 것이다.
 ㄴ. 을: 이와 기는 사물에서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不相離].
 ㄷ. 을: 칠정은 본성과 감정을 겸하지만 사단은 본성일 뿐이다.
 ㄹ. 갑과 을: 칠정은 천리(天理)가 발현한 감정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178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은 사람에게 주체적인 권능[自主之權]을 주었다. 가령 선을 하려고 하면 선을 하고 악을 하려고 하면 악을 하여, 그 방향이 유동적이고 정해지지 않아 그 권능이 자신한테 있다. 그러므로 선을 하면 실제로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하면 실제로 자신의 죄가 된다.

- ① 타고난 사양(辭讓)하는 마음을 확충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② 기질의 차이가 있지만 사물에도 이치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가 본성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인의예지의 사덕이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경(敬)의 실천을 통해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모르고 있다.

▶ 23057-0179

9 (가)의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선비들을 수습하고 정학(正學)을 연구하여 밝히며, 간사한 소인을 제거하고 양적(洋敵)과 대응하는 자를 막아 탐욕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양적을 물리치는 바탕을 삼아야 한다.</p> <p>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하여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 삼강(三綱) 등을 도라 하고, 복식(服飾) 등을 기라 한다.</p> <p>병: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나오는 것이다. 서양 사람은 말에 차레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다.</p>
(나)	

- ① A: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효제의 정신은 지켜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서양의 종교를 배척하고 동양의 도를 유지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백성의 후생(厚生)을 위해 서양의 과학 기술은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F: 외세를 물리치려면 유교적 가치가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⑤ E: 양적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신분 질서도 없애야 함을 간과한다.

▶ 23057-0180

1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무의 개념은 행위에서는 객관적으로 법칙과의 합치를 요구하지만, 행위의 준칙에서는 주관적으로 법칙에 의해 의지를 규정하는 유일한 방식인 법칙에 대한 존경을 요구한다. 의무에 맞게 행위 했다는 의식과 의무로부터, 다시 말해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인해 행위 했다는 의식 사이의 구별은 바로 이 점에 의거한다. 전자는 경향성들이 순전히 의지의 규정 근거들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 ① 도덕 법칙은 인간 이성이 스스로 부여한 것이므로 자율인가?
- ② 경향성에 따른 행위에서 도덕적 가치를 찾는 것이 가능한가?
- ③ 인간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자연적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가?
- ④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한 객관적 원리는 명령이 되는가?
- ⑤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하는가?

▶ 23057-0181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단일한 세계 질서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이성을 통해 서로와 상호 작용할 수 있고, 깊은 의미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실은 세계의 어느 시민이 입은 피해도 다른 시민에 의해 파악될 수 있고 다른 시민이 적절한 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동료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무지, 거리, 둔감함, 그리고 국적과 같은 다양한 인위적 구분들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간적 능력 덕분에 원칙적으로 세계적인 도덕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작은 세계 속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작은 세계 시민이기도 합니다.



- ① 인류 전체는 단일한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다.
- ② 세계 시민은 이성과 언어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③ 세계 시민은 타국에 살고 있는 시민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
- ④ 국가 간 경계선은 세계 시민이 가진 자연적 조건 중 하나이다.
- ⑤ 인간은 고통을 겪는 타인에게 알맞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 23057-0182

12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사회사상이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국가의 목적은 훌륭한 삶이며, 다른 것들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국가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위한 씨족들과 마을들의 자연적인 공동체이다.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란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을: 국가를 구성하기로 개인들이 동의할 때, 그들은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게 되며, 거기서는 다수가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폭정을 행하면 시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기

- ㄱ. 갑은 국가가 다른 공동체를 포괄하며 최고선을 추구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 ㄷ. 을은 사회 계약 이후의 국가는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만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7-0183

1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헛수고이다. 어떤 것이 한 개인의 쾌락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혹은 그의 고통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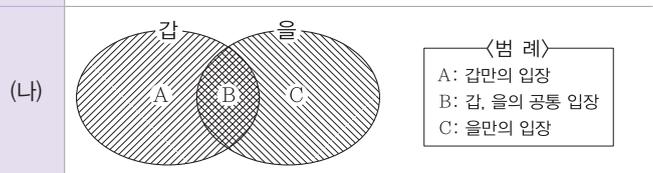
을: 개인이 속한 사회가 질 높은 쾌락을 위한 고급 능력을 사용하는 데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 능력은 빨리 시들고 만다. 그런 사회의 개인은 저급한 쾌락에 중독되는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쾌락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그런 쾌락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쾌락이기 때문이다.

- ① 갑: 공감의 원칙은 행위의 도덕적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
- ② 갑: 여러 쾌락을 경험한 자가 선호하는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 ③ 을: 사회 전체 쾌락의 증대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결과 이외의 것이 있다.
- ⑤ 갑과 을: 고통과 쾌락은 감각될 뿐 측정되거나 계량화될 수 없다.

▶ 23057-0184

14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이를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신의 군주가 이를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 나에게 있는 사단을 확충하면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
 을: 시험 삼아 군주의 권세를 없애고 예의를 통한 교화에 중지한 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렇게 되면 강자는 약자를 해쳐서 빼앗고, 무리가 많은 자는 난폭하게 굴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선행은 인위(僞)의 결과이다.



보기

- ㄱ. A: 인간은 본래 마음에 내재한 예를 실천해야 한다.
- ㄴ. B: 군자와 소인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 ㄷ. B: 군주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 ㄹ. C: 백성의 욕구는 성왕이 제정한 예로써 제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7-0185

15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중상주의를 추구한 경제학은 국민과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각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의도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을: 고전파 경제학은 계급 투쟁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의 것이다. 어떤 고전파 경제학자는 계급적 이익의 대립, 즉 임금과 이윤 사이의 대립을 연구했지만, 그는 이 대립을 자연이 강요하는 사회 법칙으로 보는 데 그쳤다. 계급 투쟁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보기

- ㄱ. 갑: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이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
- ㄴ. 을: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상품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상품이 된다.
- ㄷ. 을: 노동자의 권리는 의회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 ㄹ. 갑과 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7-0186

16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큰 도(道)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남녀가 따로 직분이 있고 재화가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결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을: 유토피아 사람들은 매일 6시간 노동하고 8시간 잠을 잔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각자 취향에 따라 독서, 강좌 수강 등에 사용한다. 지적 활동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기술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 기술 연구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갑: 사회적 약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 ② 갑: 현명한 군주는 자식에게 자신의 권력을 세습해야 한다.
- ③ 을: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수강은 시민의 의무이다.
- ④ 을: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받아 충분한 사유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노동이 소멸된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이다.

▶ 23057-0187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소극적 자유의 정도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만들어 놓은 인위적 장애물이 얼마나 없는지에 달려 있다. 즉 사람이 만든 제도 때문에, 또는 특정인의 활동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이 길 또는 저 길을 얼마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을: 비지배 자유의 정도는 단지 타인의 자의적 간섭에 저항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발휘하는 권력에도 영향을 받는다. 핵심은 개인이 누리는 비지배 자유의 정도가 사회 전체에서 개인이 차지한 권력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기

- ㄱ. 갑: 개인의 활동이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을 때 자유롭다.
- ㄴ. 을: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려면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ㄷ. 을: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다.
- ㄹ. 갑과 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188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우리의 지복(至福)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에 있다. 즉 지복이 신에 대한 변함 없고 영원한 사랑 또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사랑은 신에 관계되는 한에서 신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을: 우리의 이익과 관련이 없어도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불만을 가진다. 우리는 불의를 인간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하며, 또한 불의가 불의를 범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파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 불의에 대한 불쾌감을 공유한다.

- ① 갑: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여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갑: 신, 즉 자연은 세계의 내재적 원인이자 실체들 중 하나이다.
- ③ 을: 도덕적 선악은 행위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에 달려 있다.
- ④ 을: 공감은 개인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서 타인을 이해하게 해준다.
- ⑤ 갑과 을: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 23057-0189

19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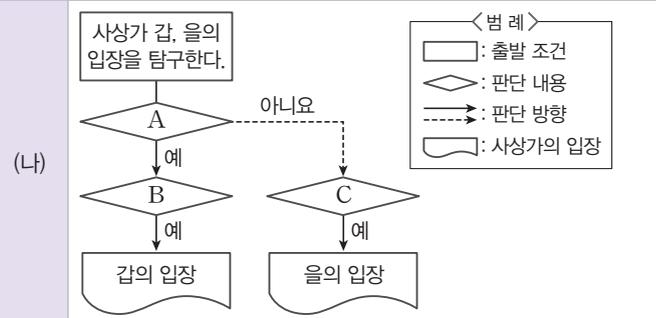
만물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유대는 신성하다. 서로 낯선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함께 동일한 우주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만물로 구성된 하나의 우주, 만물 속에 내재하는 하나의 신, 하나의 실체, 하나의 법, 사고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이성, 하나의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① 신적 이성이 결정한 운명을 사랑하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② 도덕적 인간이 되려면 자연의 질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③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합리적 이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성은 모두 하나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다.
- ⑤ 인간은 본성에 맞는 것을 실천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3057-0190

20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그리스도교적인 영웅주의는 온전히 인간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 곧 하나의 외톨이인 인간이 홀로 신과 대면하고 그 거대한 책임 속에 홀로 서는 특정한 외톨이인 인간이 되려는 것이다.
 을: 그리스도교의 교리나 칸트의 도덕도 실존적 상황에 있는 개인의 선택을 도와줄 수 없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그 어떤 뒷받침도,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발명해야 한다.



보기

- ㄱ. A: 참된 실존을 회복하려면 신앙이 요구되는가?
- ㄴ. A: 실존적 상황에서는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가?
- ㄷ. B: 절망은 실존에 수반되는 것으로 극복이 불가능한가?
- ㄹ. C: 인간은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자유로운 존재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7-019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과녁이 맞지 말라고 세워 놓은 것이 아니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운도 당하지 말라고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지중지하는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것이 깨질 수 있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듯이, 내 게 닥치는 모든 일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 여야 합니다. 신에게 순종하고 내게 일어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에 따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① 인격신에게 귀의하고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
- ②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은둔자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③ 개인의 욕구 충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
- ④ 모든 감정을 제거하여 부동심의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
- ⑤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 23057-0192

2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가령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깜짝 놀 라며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마을 사 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다.

을: 인간이 본래의 본성을 따르면 쟁탈전이 발생하고, 신분 질 서가 무너지며, 사회 기강이 문란하게 된다.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절과 의리에 바탕을 둔 가르침을 실 시해야 비로소 사양지심이 생기고 태평성세를 이룬다.

- ① 예(禮)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갖출 수 있는 덕인가?
- ② 인(仁)은 준비친소를 구별하여 실천해야 할 사랑인가?
- ③ 주어진 본성을 보존해야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 ④ 인간은 인의(仁義)를 알 수 있는 도덕 인식 능력이 있는가?
- ⑤ 군주는 인의의 도덕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23057-0193

3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A라는 쾌락과 B라는 쾌락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둘을 모두 경 험한 사람이 A를 좋아한다면 A가 더 바람직한 쾌락이 된다.

을: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 는 경향보다 크다면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정부의 정 책이나 법률은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일곱 가지 기준으로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

보기

- ㄱ. 도덕적 행위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한 행위이다.
- ㄴ. 더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도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없다.
- ㄷ.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ㄹ. 질적으로 우수한 쾌락을 추구한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194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나니, 즉 무명(無明)을 인연하여 행(行)이 있고 태어남·늙 음·병듦·죽음·근심·슬픔·번민·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말하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소멸하나니, 즉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나아가 태어남·늙음·병듦·죽음·근심·슬픔·번민·괴로움이 소멸하느니라.

- ① 만물의 무상함을 깨닫고 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연기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태어남을 반복해야 한다.
- ③ 욕망을 절제하고 무명에 이르러야 괴로움이 소멸한다.
- ④ 불변하는 자아[我]를 깨달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존재는 고정된 실체를 가질 수 있다.

▶ 23057-0195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서양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나라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과 화친하지는 것은 적국 사람의 주장이다. 전자를 따르면 옛 문물과 제도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금수(禽獸)의 나라가 된다.

을: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한울님의 기운을 모시고 태어난 것이요, 사람이 사는 것도 한울님의 기운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모두가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잡아야 한다[守心正氣].

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바뀌어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 대개 동양인들은 형이상에 밝고, 서양인들은 형이하에 밝기에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해야 한다.

- ① A: 현세에서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D: 서학을 물리치고 유교적 가치를 보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신분 질서를 폐지하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E: 서양과의 화친의 실익과 충효의 보존이 상충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⑤ F: 민생 안정을 위해 서양의 정치 체제 수용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23057-0196

6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악이 타락할 수 없는 실체라면 그것은 위대한 선을 말하는 것이요, 악이 타락할 수 있는 실체라면 그 안에 선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된다. 신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했고, 창조하지 않은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을: 우리의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도출된다.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가지는 모든 것은 이성(理性)에 의해 선으로 이해되고 추구의 대상이 된다. 그 반대는 악으로 이해되고 회피의 대상이 된다.

- ① 갑: 자유 의지를 남용하지 않고 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 ② 갑: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 ③ 을: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 ④ 을: 철학적 진리와 신학적 진리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이다.
- ⑤ 갑과 을: 최고의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실현된다.

▶ 23057-0197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덕에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다. 지성적인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해 생기고, 품성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집을 지어 봄으로써 건축가가 되듯이 절제 있는 행위를 해 봄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

을: 덕은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할 때 가치를 지닌다. 덕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본성은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품성적 덕을 갖춰야 한다.
- ㄴ. 갑: 인간의 모든 감정에 대해서 실천적 지혜를 통해 중용을 파악할 수 있다.
- ㄷ. 을: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ㄹ. 갑과 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성을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7-0198

8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의 본체가 곧 성(性)이며, 성이 곧 이치(理)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효도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효도의 이치도 없다.

을: 마음은 성과 정(情)을 통괄하며, 성이 발(發)하여 정이 된다. 마음의 본체인 성은 인의예지이며 선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음의 작용인 정(情)은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기

- ㄱ. A: 격물이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다.
- ㄴ. B: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고 사물[物]도 존재하지 않는다.
- ㄷ. B: 천리를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 ㄹ. C: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앎[知]을 확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23057-0199

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가 갑, 고대 동양 사상이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을 넘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

을: 어떤 약을 1만 명이 먹어 5명이 효과를 보았다면 이는 제대로 된 약이라고 할 수 없다. 전쟁으로 약간의 이득을 얻었지만 큰 손실을 입었다면 정도를 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겸애(兼愛)가 천하의 이익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며, ㉡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평화의 지향점이라고 본다. 을은 ㉢ 다른 나라들 간의 전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 존비친소를 구분하는 차별적 사랑은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을 때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057-0200

1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자기를 이겨 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내고 예(禮)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돌아갈 것이다. 인을 행하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을: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에 큰 이로움을 주지만 그것들과 다투는 일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 ① 갑: 군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없이 사랑해야 한다.
 ② 갑: 통치자는 먼저 군자다운 덕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③ 을: 통치자는 백성이 무지와 무욕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④ 을: 도(道)는 언어로 규정할 수 없고 감각으로 경험할 수도 없다.
 ⑤ 갑과 을: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를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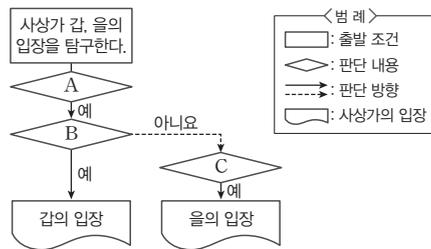
[11~12]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르니, 순선하고 악이 없지만 이가 발한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된다.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니, 역시 불선함이 없지만, 기가 발한 것이 중절하지 못하여 그 이를 멀하게 되면 방탕하여 악이 되는 것이다.

을: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사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점에서는 칠정만 못하고, 칠정은 순수한 점에서는 사단만 못하다. 정(情)은 오로지 하나이다.

▶ 23057-0201

11 갑, 을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A: 사단은 선천적인 것이며 인의예지의 단서인가?
 ㄴ. B: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情)이지만 연원이 서로 다른가?
 ㄷ. B: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인가?
 ㄹ. C: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으로 순선한 감정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7-0202

1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람을 사랑하고 나서 인하다고 부르는 것이며, 나를 착하게 하고 그 실천을 두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며, 주인과 손님이 서로 절하는 행동이 있어야 예라는 이름이 성립하며, 현상과 사물에 대한 분별이 명확해진 다음에 지혜라는 이름이 성립한다. 어찌 인의예지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들어 있을 것인가.

- ① 도덕적 완성을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② 인의예지는 덕이라 할 수 있지만 천리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③ 인간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단을 형성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④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정(情)임을 모르고 있다.
 ⑤ 사단은 사덕이 인간에게 내재함을 알려 주는 단서임을 모르고 있다.

▶ 23057-0203

13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침범했지만 죽음은 그 끝이 아니며 죽을 수도 없다. 인간은 절망을 통해서만 신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을: 인간은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가는 지향적 존재이다. 이 지향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인간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인간성을 상상할 신은 없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 인간은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
- ㄴ. 을: 인간은 자유 자체를 선택할 때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ㄷ. 을: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 ㄹ. 갑과 을: 인간은 보편적 진리를 따를 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3057-0204

14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다. 이성만 감정에 봉사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임무도 요구할 수 없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



갑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 나오는 활동들을 이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이 곧 지복(至福)이다.



을

- ① 갑: 다수의 행복에 기여한 행위는 공감(共感)을 불러일으킨다.
- ② 갑: 시인과 부인의 감정은 인간의 행위와 품성에 적용될 수 있다.
- ③ 을: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진 신을 사랑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④ 을: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의 인과 법칙을 인식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덕적 행위를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요청된다.

▶ 23057-0205

15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성에 미혹하면 곧 부처가 증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증생이 곧 부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수(漸修)하고 깨달은 사람은 돈오(頓悟)에 부합한다.

을: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도 습기(習氣)는 갑자기 단번에 제거하기 어렵다.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차로 익혀 나가야[漸修] 한다.

- ① 갑: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달으려면 경전 공부가 필요하다.
- ② 갑: 본성에 대한 직관을 통해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③ 을: 습기(習氣)가 쌓인 사람은 단박의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 ④ 을: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닦음이 점수(漸修)의 요체이다.
- ⑤ 갑과 을: 참선을 통해서만 고정불변하는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

▶ 23057-0206

1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 지뿐이다. 지성, 판단력, 용기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선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을: 신의와 보상의 의무, 선행의 의무, 악행 금지의 의무, 정의의 의무, 자기 계발의 의무 등은 조건부 의무들이다. 이러한 조건부 의무 중 특정한 상황에서 채택된 조건부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

보기

- ㄱ. 갑: 행복과 의무가 상충할 때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
- ㄴ. 갑: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되기를 의욕하지 않아야 한다.
- ㄷ. 을: 직관에 부합하는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있다.
- ㄹ. 갑과 을: 도덕적 의무보다는 행위 결과의 유용성이 우선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207

17 근대 서양 사상이 갑, 현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우상은 인간의 정신이 협소하고,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연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된다.

을: 도덕은 약국의 처방전이 아니다.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이나 가치에 대한 신앙은 그 자체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크게 해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커다란 비극이 된다.

- ① 갑: 개인의 특수한 경험만이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다.
- ② 갑: 보편적 원리에서 새로운 지식을 연역해 나가야 한다.
- ③ 을: 도덕적 인간은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다.
- ④ 을: 지식을 유용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는 잘못이다.
- ⑤ 갑과 을: 실험과 지성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

▶ 23057-0208

1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지인(至人)에게는 사심이 없고 성인(聖人)은 도(道)에 비추어 봅니다.



- ① 오감(五感)을 통한 앎을 통해 분별적 지혜를 쌓아야 한다.
- ② 큰 나라에 많은 백성이 있어야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 ③ 시비(是非)를 올바르게 구별할 때 정신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
- ④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만물의 평등함을 인식해야 한다.
- ⑤ 선과 악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인의(仁義)의 덕을 쌓아야 한다.

▶ 23057-0209

19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개인은 오로지 이익을 추구할 뿐이며 이러한 이익 추구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육점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을: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자기 자신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생산한다. 노동자는 부를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며,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은 그만큼 더 값싼 상품이 된다. 사물 세계의 가치 증대에 정비례해서 인간 세계의 가치 저하가 심해진다.

- ① 갑: 국가는 국방, 치안 등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갑: 시장의 자유가 보장될 때 공동체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 ③ 을: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을: 모든 계급의 연대를 통해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 23057-0210

20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공동의 힘이 없다면,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가 존재할 때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며, 괴롭고 잔인하고 짧다.

을: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공의 손에 맡길 때 정치 사회가 성립한다. 입법부는 사회의 공공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을 대신하여 법을 제정하고 공동의 재판관이 된다.

보기

- ㄱ. 갑: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폭력은 정의롭다.
- ㄴ.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이다.
- ㄷ. 을: 자연권은 정치권력이 성립된 이후에 모두 소멸한다.
- ㄹ. 갑과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7-021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그동안 잘 계셨나요? 오늘은 괴로움[苦]에 대한 저의 견 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구성하 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를 오온(五蘊)이라 하는데,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에 대한 집착이 바 로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오온을 바르게 관찰하면 무상 (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온을 바르게 이해할 때, 오온에는 불변의 '나'라 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 다. ... (후략).

- ①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
- ②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계정혜(戒定慧)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③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명(無明)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集義]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
- ⑤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 향해야 한다.

▶ 23057-0212

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추론의 토대가 되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얻기 위해 조금이라 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을: 추론에 의해 결정된 공리는 새로운 성과를 발견하는 데 도 움이 되지 않는다.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 여 진리 탐구에 방해가 되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참된 귀납 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해야 한다.

- ① 갑: 관찰과 실험은 진리 탐구의 주된 방법이다.
- ② 갑: 자아의 존재로부터 다른 진리들을 추론할 수 없다.
- ③ 을: 학문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 ④ 을: 객관적 진리의 탐색 과정에 이성이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 ⑤ 갑과 을: 형이상학적 원리로부터 이성적 추론을 통해 지식을 연역해야 한다.

▶ 23057-0213

3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 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로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쟁탈이 생 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 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사람이 선 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性)이 악하기 때문이다. 을: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良能)이 있기 때 문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지(良知)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도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으 며, 자라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	

- ① A: 인의(仁義)의 덕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가?
- ② A: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禮)가 필요한가?
- ③ B: 인간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 ④ B: 인간의 선행(善行)은 본성을 극복한 인위적 노력의 결과인가?
- ⑤ C: 인간이 타고나는 도덕적 마음[四端]은 사람마다 다른가?

▶ 23057-0214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가는 상호 간의 범죄를 방지하고 교역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다. 국가는 완전하고 자급자족한 생활을 위해 가 족들과 촌락들이 결합된 것으로, 국가의 목적은 선(善)한 생 활에 있다.
 을: 국가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된 힘에 불과하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하여 계급 적으로 단결한다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존재한 계급 대립은 폐지될 것이다.

- ① 갑: 국가는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 ② 갑: 시민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 야 한다.
- ③ 을: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계급 간 연대를 도모 하는 주체이다.
- ④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
- ⑤ 갑과 을: 국가 자체는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궁극적으로 국가는 소멸되어야 한다.

▶ 23057-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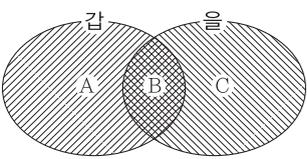
5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고 있지 않은 것, 절망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것도 절망의 한 형태이다. 죽음으로써 이 병에서 구원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절망은 신앙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실존주의의 첫걸음은 모든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의 실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인간은 절대자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 결단으로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② 갑: 인간은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
- ③ 을: 인간은 신에 의해 본질이나 목적이 계획된 창조물이 아니다.
- ④ 을: 인간은 선택의 자유와 자유 자체를 선택할 자유를 지닌 존재이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실존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 23057-0216

6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일원(一圓)의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의 심인(心印)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을: 서양의 도는 허무의 학설에 가깝고 그 학문은 한울님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우리의 도(道)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守心正氣].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보기

- ㄱ. A: 종교적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행해져야 한다.
- ㄴ. B: 사회 변혁을 통해 새로운 세계[後天]를 열어야 한다.
- ㄷ. B: 신분 질서를 철폐하고 현세에서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ㄹ. C: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8]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칠정(七情)과 기(氣)의 관계는 사단(四端)과 이(理)의 관계와 같다. 발하는 데 각각 혈맥이 있으므로, 주(主) 되는 것에 따라 분속시킬 수 있다. 사물에 감촉되어 동(動)하는 것은 사단도 칠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것일 뿐이다.
 을: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七情包四端]. 측은은 사랑[愛]에 속하고 수오는 미움[惡]에 속하고 공경은 두려움[懼]에 속하고 시비는 기쁨[喜]과 노여움[怒]의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아는 것에 속하니, 칠정 밖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 23057-0217

7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갑: 칠정은 사단과 달리 기가 발한 감정이다.
- ㄴ. 을: 사단과 칠정은 연원이 서로 다른 대립적 감정이다.
- ㄷ. 을: 형태가 없는 이는 만물에 두루 통하지만,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된다.
- ㄹ. 갑과 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緒]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218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이름은 일을 실행한 뒤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고 이르며,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인이라는 이름은 성립하지 않는다. 안연(顔淵)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라고 하였으니,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한 덩어리의 인을 만들어 사람의 마음속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려 할 때 어찌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① 인간의 본성에 인의예지가 본래 내재해 있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인의예지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③ 인의 실천과 측은지심의 형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인간은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 ⑤ 인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23057-0219

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적 행복에 비례하는 도덕적 덕 외에도 초자연적 행복에 비례하는 신학적 덕이 있다. 도덕적 덕은 행위를 자주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나, 신학적 덕은 오직 신으로부터 주입되는 것이다.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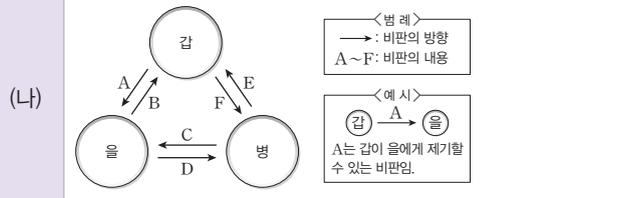
을: 자연에는 우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은 아니며, 신을 벗어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 ① 갑: 최고선은 신과의 합일을 통해 현세에서 실현 가능하다.
② 갑: 완전한 행복의 실현에 이성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③ 을: 신은 인간과 달리 자연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④ 을: 행복은 유일한 실체인 신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적 만족이다.
⑤ 갑과 을: 신은 인간과 달리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23057-0220

10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적 욕구들 중 일부는 필수적이거나 일부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유지를 위해 욕구에 대해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을: 자연의 이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자연 안의 모든 것이 미리 예정된 것임을 깨닫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병: 탁월성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것을, 알맞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목적을 위해, 알맞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 ① A: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인간이 지닌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쾌락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 아님을 간과한다.
③ C: 모든 덕은 참된 삶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④ D, F: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절제의 덕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E: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이성적 사고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23057-0221

1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도덕적 감정, 지성, 느낌과 상상력 등의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얻는 쾌락은 단순 감각 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우월하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을: 도덕적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다. 낯선 사람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인간에게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것이 선이다.

보기

- ㄱ. 도덕 판단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해야 하는가?
ㄴ. 도덕 판단의 기준을 마련할 때 경험을 배제해야 하는가?
ㄷ.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유용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
ㄹ. 타인의 행복에 대해 느끼는 쾌락은 고등한 능력을 발휘한 상위의 쾌락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222

12 중국 사상이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신의 앎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사람의 신령스러운 마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존재한다. 이치가 미처 탐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그 앎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오래도록 힘을 쏟으면 하루아침에 확 트여서 모든 것의 이치를 관통하게 될 것이다.

을: "사물에 이(理)가 존재한다."라는 말 앞에 마음[心]을 덧붙여 "마음이 사물에 있으면 이가 존재한다."라고 해야 한다. 마음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으면 효도가 되고, 마음이 임금을 섬기는 데 있으면 충성이 된다. 마음과 이는 하나이며,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왕도의 진정한 뜻이다.

- ① 마음에는 이치[理]가 존재하지 않는가?
② 학습을 통해 양지(良知)를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하는가?
③ 도덕적 실천을 위해 격물(格物)과 치지(致知)가 필요한가?
④ 양지를 발휘하기[致良知]만 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가?
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확충하는 것이 격물(格物)인가?

▶ 23057-0223

13 (가)를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악국의 처방전이나 요리책의 요리법처럼 적용해야 할 일련의 규칙도 아니다.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는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다. 도덕은 지성적 탐구를 통해 현존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이는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다듬어 나가는 부단한 과정이다.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나)	학생: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인격신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 ② 불변하는 도덕규범의 가치를 그 자체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 ③ 공동체가 지켜 온 전통적 가치와 관행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 ④ 현실의 삶과 무관한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 ⑤ 지성을 발휘하여 삶을 개선하는 도덕 판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 23057-0224

1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유가 없는 상태는 단순히 간섭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의적 권력에 의해 간섭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자유는 주종 관계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을: 자유가 없는 상태는 한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상태이다.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은 만큼 나는 자유롭다. 자유는 한 사람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보기

- ㄱ. 갑: 법은 개인들을 타인들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다.
- ㄴ. 을: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 ㄷ. 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최소한의 영역이 마련되어야 한다.
- ㄹ. 갑과 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이 아닌 시민 스스로 동의한 헌법에서 형성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7-0225

15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국가는 조세를 통해, 이자율 고정을 통해, 그리고 다른 방법 등을 통해 소비 성향의 방향을 인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전반적인 투자의 사회화만이 완전 고용에 근접한 상태를 달성할 유일한 수단이다.
 을: 국가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유일한 방법이다. 자유로 가는 길로 약속된 것이 실제로는 예측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 ① 갑: 정부는 시장 실패 극복을 위해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화해야 한다.
- ② 갑: 정부는 불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 ③ 을: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공공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유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장의 자율적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23057-0226

1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생명, 자유,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사회에 자신들을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불평등과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 ① 갑: 자연 상태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된 척도인 법률이 부재한다.
- ② 갑: 국가 권력은 자연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개인들이 위임한 것이다.
- ③ 을: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양도받은 입법부에 있다.
- ④ 을: 정치 공동체는 언제나 공익을 도모하는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국가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 23057-0227

17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모든 쾌락의 가치를 합산하고, 모든 고통의 가치를 합산하라. 만약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그것은 그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체로 그 행위의 좋은 경향을 말해 줄 것이다. 만약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면, 이것은 대체로 그 행위의 나쁜 경향을 말해 줄 것이다.

을: 목적 그 자체인 각각의 이성적 존재는 자기 스스로를 동시에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적 존재는 언제나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관점과 동시에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의 관점에서 자신의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

보기

- ㄱ. 갑: 인간은 쾌락 충족과 고통 회피를 위해 행동한다.
- ㄴ. 을: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ㄷ. 을: 도덕 법칙은 행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다.
- ㄹ. 갑과 을: 행위의 결과는 도덕성의 척도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228

18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성인에게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마음이 없다[無常心].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선한 사람은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으로 대한다. 성인은 세상에 있을 때 일체의 분별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어린아이처럼 되게 한다.

을: 군자(君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하늘이 명한 바 [天命]를 두려워해야 하고, 위대한 성인을 두려워해야 하며, 성인의 말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소인은 하늘이 명한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지 않고, 위대한 성인을 함부로 대하며, 성인의 말을 업신여긴다.

보기

- ㄱ. 갑: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 ㄴ. 갑: 본성을 가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克己復禮] 한다.
- ㄷ. 을: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인의(仁義)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 ㄹ. 갑과 을: 도(道)를 기준으로 삼아 시비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7-0229

19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돈오(頓悟)란 범부가 자기의 성품이 참법신[法身]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생각에 문득 마음의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습기(習氣)는 갑자기 단박에 제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차 혼습하는 공덕을 이루고 성인의 태[聖胎]를 기르기를 오래 하여 성인을 이루는 것을 점수(漸修)라고 한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돈오란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	✓		✓	
경전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습기(習氣) 제거를 위한 점진적 수행은 돈오 이전에 필요하다.				✓	✓
마음의 본체인 정(定)과 마음의 인식 작용인 혜(慧)는 함께 닦아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23057-0230

20 그림은 사회사상이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통치이며, 경쟁적 요소는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됩니다. 의사소통의 망인 공론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집약할 뿐만 아니라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 공적 심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① 갑: 민주주의는 정치 지도자가 대중의 승인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제도이다.
- ② 갑: 시민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정을 위임해야 한다.
- ③ 을: 민주주의의 이상은 시민들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④ 을: 시민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기존의 선호들을 수정하여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시민은 정치 지도자보다 공공 정책에 대해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7-023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므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서는 덕에 대해 고찰해야 합니다. 덕에는 지적인 덕과 도 덕적 덕이 있습니다. 지적인 덕과 달리 도덕적 덕은 습관 의 결과로 생깁니다. 도덕적이라는 의미의 '에티케'도 습 관이라는 말인 '에토스'를 조금 고쳐서 만들어진 것입니 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은 먼저 그 능력을 얻고 활동을 전개하지만 덕은 실천함으로써 얻습니다. 집을 지어 봄으 로써 건축가가 되고 거문고를 탐으로써 악사가 되는 것처럼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① 자제력과 실천 의지를 갖춰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 ② 앎과 행함은 일치하므로 도덕적 선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 ③ 인간만이 갖는 이성을 통해 타고난 도덕적 덕을 실현해야 한다.
- ④ 모든 행위와 감정이 과도와 부족의 중간 상태를 겨냥해야 한다.
- ⑤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장하는 실천적 지혜를 가져야 한다.

▶ 23057-0232

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죽음도 괴로움이며, 집착의 대상이 되 는 다섯 가지 무더기인 오온(五蘊) 자체가 괴로움이다. 괴로 움이 소멸하려면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사라져야 한다.
 을: 태어남은 때를 만난 것이고, 죽음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 는 것이다. 성인은 살아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죽 으면 만물의 변화를 따르며, 마음을 텅 비워 조용히 담담하 므로 자연의 덕과 하나가 된다.

- ① 갑: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없애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무아(無我)를 극복하고 사물의 실상을 통찰해야 한다.
- ③ 을: 본심을 이겨 내어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 ④ 을: 도(道)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시비를 분별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내세를 위해 악행을 끊고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 23057-0233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 하지 않아야 국가 안에 지혜, 용기, 절제가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존되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을: 개인이 노예처럼 분업에 예속되지 않고 노동이 생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일차적인 욕구가 되면 개인은 물론 사회 의 부도 흘러넘치게 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 사회가 된다.

- ① 갑: 충분한 자질을 지니고 태어나도 여성은 철학을 할 수 없다.
- ② 갑: 세 부류 사람들은 절제의 덕으로 철인 통치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을: 생산 수단이 공유되는 평등한 국가가 역사의 최종 단계이다.
- ④ 을: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은 노동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 ⑤ 갑과 을: 국가 권력과 철학이 결합해야만 이상 사회가 실현된다.

▶ 23057-0234

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덕에서 발생하는 인상은 호의적이며 부덕에서 발생하는 인 상은 거북하다. 우리는 매 순간 경험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덕은 우리에게 쾌락을 전달하고 고통은 부덕에서 발생한다.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 느껴진다는 것이 적절하다.
 을: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 가운데 하 나는 공동체의 이익이다. 강도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쾌 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하여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 거나 촉진시키는 행위를 해야 한다.

- ① 갑: 이성은 선악을 판단하고 감정은 도덕적 행위를 하게 한다.
- ② 갑: 모든 자연적 성향을 극복하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 ③ 을: 사회 전체 행복은 개개인의 행복을 합한 것보다 훨씬 크다.
- ④ 을: 다수가 아닌 모두의 행복 증진이 도덕의 기본 원리가 된다.
- ⑤ 갑과 을: 사회의 행복에 유용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5~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이(理)와 기(氣)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종래(所從來)에 근거하여 각각 주로 하는 바와 중요한 바를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이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할 수 있다.

을: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 기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동하게 하는 근거가 없다. 발동하는 것은 기이고 발동하게 하는 소이(所以)는 이이다.

▶ 23057-0235

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갑: 사단은 인의예지의 성(性)으로부터 발하는 정(情)이다.
- ㄴ. 을: 이는 기를 주재하고 기는 이가 얹혀서 타는 바이다.
- ㄷ. 갑과 을: 이는 기와 달리 무형무위하여 신묘한 작용이 없다.
- ㄹ. 갑과 을: 칠정은 기에서 연원하기에 악(惡)의 가능성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7-0236

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하늘은 인간에게 덕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본성을 부여하고 나서, 인간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는 고정되지 않고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하늘의 신비로운 권능과 오묘한 뜻이 우뚝 두려워할 만한 것임을 드러낸다. 이제 선을 향해 나아가면 너의 공이 될 것이고, 악을 좇아가면 너의 죄가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 ① 욕망하는 마음을 없애야 일도 공부도 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사단은 사덕과 달리 인성이 본래 갖고 있는 성(性)임을 간과한다.
- ③ 악행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④ 이가 우주 만물의 원리이자 만물에 성으로 내재된 실체임을 간과한다.
- ⑤ 인간의 고유한 성은 기질의 성이 아니라 도의(道義)의 성임을 간과한다.

7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비참한 자연 상태를 떠나 공통의 권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여 그들이 지닌 모든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을: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정치 공동체를 수립하는 길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하는 것이다.
 병: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가 해로운 장애물들로 인해 존속할 수 없게 되자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두었다.

(나)

보기

- ㄱ. A: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의 부정의를 벗어날 수 있는가?
- ㄴ. B: 국가가 정상 운영될 때 최고 권력은 입법부에 있는가?
- ㄷ. C: 입법부는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가?
- ㄹ. D: 국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모든 법은 무효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238

8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수는 더 이상 슬퍼해야 할 불가피한 사건이나 속죄하고 용서해야 할 도덕적 죄가 아니다. 그것은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면서 더 나은 미래의 과정에 관한 가르침이자 개선, 발전, 재조정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목적은 성장하며 판단 기준은 개선된다. 인간은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준과 이상을 양심적으로 사용할 의무와 더불어 가장 발전된 기준과 이상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도덕적 삶은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한다.

- ① 창조적인 지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 ② 지식이나 이론은 문제 해결에 유용할 때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③ 도덕적 탐구로 인간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야 한다.
- ④ 선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
- ⑤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다.

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한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박탈이다.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그러므로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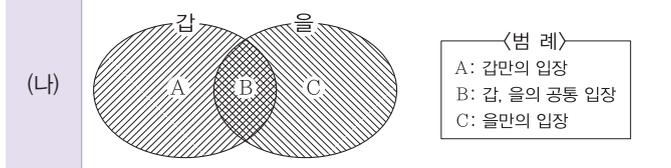
을: 한 개인이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간섭하지 않는 주인의 시나리오에서처럼 간섭 없이도 노예화와 지배는 있을 수 있다.

- ① 갑: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 ② 갑: 간섭이 있어도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
- ③ 을: 실질적 간섭이 사라지면 자유의 손실은 생기지 않는다.
- ④ 을: 법은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는 비지배적인 간섭자이다.
- ⑤ 갑과 을: 모든 간섭과 지배가 사라져야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

11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은 성(性)이고 이미 움직인 것은 정(情)이며 마음은 성과 정을 아우른다. 물에 비유한다면 성은 물이 고요한 것이고 정은 물이 흐르는 것이다.

을: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음이 곧 천리(天理)이니 밖에서 조금도 더할 필요가 없다. 순수한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 데 펼치면 곧 효이니, 마음에서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데 힘쓰면 된다.



<보기>

ㄱ. A: 먼저 올바른 지식을 학습해야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다.
 ㄴ. B: 모든 진리는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공부에만 힘써야 한다.
 ㄷ. B: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본체는 천리이며 천리는 곧 양지이다.
 ㄹ. C: 양지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면 각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천하에 금기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 가난해지고 법령이 많이 발표될수록 도적이 더 많아진다. 성인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無爲] 백성은 저절로 감화되고, 성인이 욕심내지 않으면[無欲] 백성은 저절로 순박해진다.

을: 덕(德)으로 정치하는 것은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린다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 ① 갑: 군주는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어진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 ② 갑: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국가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 ③ 을: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법령과 형벌을 사용하면 안 된다.
- ④ 을: 군주는 모두가 명분에 맞는 덕을 갖추도록 인도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인의의 실현을 위해 도덕성이 높은 이가 다스려야 한다.

갑: 신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경멸함으로써 형성되고, 인간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 신의 국가는 신으로부터, 인간의 국가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다.

을: 신의 섭리에 의해 세계가 지배된다. 곧 신의 마음이 모든 공동체를 지배한다. 신의 마음은 영원한 개념이므로 이로부터 생겨난 법 또한 영원하다. 지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는 영원법이 바로 자연법이다.

- ① 갑: 최고선인 행복은 최고의 덕인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 ② 갑: 인간은 남을 사랑하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
- ③ 을: 인간은 자연적 성향을 통해 영원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 ④ 을: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은 신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다.
- ⑤ 갑과 을: 악은 순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 남용으로 생겨난 실체이다.

▶ 23057-0243

13 중국 불교 사상이 갑, 한국 불교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미혹한 사람이 깨달으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다.

을: 돈오돈수가 최상의 근기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지만 여러 생 동안 깨달음에 의지해 닦아 오다가 현생에 이르러 깨달음과 닦음을 마친 것이니 실상을 말하자면 이것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것이다.

- ① 갑: 경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갑: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
- ③ 을: 부처 마음인 선(禪)과 부처 말씀인 교(敎)는 본래 하나다.
- ④ 을: 지혜는 본체에 의거한 작용이므로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모든 중생의 마음에 자성(自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 23057-0244

14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이 모두 긍정할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내가 동(東)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天道)이나 학인즉 동학(東學)이다.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었으니 서를 어찌 동이라 이르며 동을 어찌 서라고 하겠는가?

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바뀌어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 ① 시대적 혼란을 극복하는 데 유교적 가치가 기여할 수 있다.
- ② 서양의 과학 기술과 군사 제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③ 주체성의 회복을 위해 척양(斥洋), 척왜(斥倭)에 힘써야 한다.
- ④ 후천(後天) 개벽을 통해 백성의 열망이 실현되게 해야 한다.
- ⑤ 신분을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 질서를 개혁해야 한다.

▶ 23057-0245

15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근대 서양 사상이 을, 현대 서양 사상이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신에게 복종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한다. 자연의 질서를 가장 지혜로운 이성이 이끄는 섭리로 믿어야 한다.</p> <p>을: 신 안에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의 관념이 존재한다.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어 있다.</p> <p>병: 신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 곧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신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p>
(나)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쾌락과 달리 슬픔은 이성을 방해하는 정념임을 간과한다.
- ② B: 인간은 신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실체임을 간과한다.
- ③ C, E: 이성만으로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D, F: 신이 자연의 모든 존재자가 있게 된 근원임을 간과한다.
- ⑤ E: 신 앞에 홀로 선 존재일 때에만 실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23057-0246

16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민주적 과정이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유 경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문자 의미대로 국민이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통치이다.

을: 민주적 절차나 정치적 공론장들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담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은 타당한 규범으로서 담론 참여자 모두 비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① 갑: 민주 정치는 매 순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 ② 갑: 당선된 정치가의 국정 활동에 시민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을: 공론장의 심의 내용을 고려한 정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 ④ 을: 담론 참여자 다수가 동의하면 포괄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
- ⑤ 갑과 을: 시민 모두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 23057-0247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명예에 대한 경향성이 공동체에 유익하고 의무에 합당하며, 운이 좋아 그만한 명예를 가지게 된 경우 그 경향성은 칭찬과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최고의 가치를 갖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성의 핵심, 즉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행위 준칙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기

- ㄱ. 의무에 맞는 행위에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 ㄴ. 개인의 의지에 따른 행위 규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다.
- ㄷ.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다.
- ㄹ.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7-0248

1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요임금과 순임금은 타고난 본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한 사람이고 탕왕과 무왕은 후천적 노력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회복하였다.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의예지이다.

을: 요임금과 우임금과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켜 예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예의를 쌓은 것은 도공이 찰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든 것과 같다.

보기

- ㄱ. 갑: 군자는 좋은 맛을 원하는 것을 본성이라 하지 않는다.
- ㄴ. 을: 성정을 따르면 형과 아우도 더 가지려고 싸우게 된다.
- ㄷ. 갑과 을: 군자와 보통 사람의 본성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 ㄹ. 갑과 을: 도덕적 수양으로 성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7-0249

19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가장 대화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것이나 쾌락을 뜻합니다.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됩니다.



갑



을

- ①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 ② 양과 무관하게 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쾌락이 존재하는가?
- ③ 도덕 감정을 발휘하여 얻는 정신적 쾌락은 질 높은 쾌락인가?
- ④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최대한 충족하며 살아야 하는가?
- 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 23057-0250

20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시장 경제는 문명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로서 성장과 변영의 기반이 되는 방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유통하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이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의 기획이나 의도가 아닌 역사 과정에서 스스로 생겨난다.

(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공익을 사적 이윤보다 우선하는 체제로 대체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생산을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해 계획하지만 모든 생산 수단의 공공 소유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 ① (가):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 ② (가): 국가가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
- ③ (나): 국가의 경제 목표는 전체주의적 계획으로 실현될 수 있다.
- ④ (나): 생산 성과는 모두 기본적 필요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
- ⑤ (가)와 (나):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동등하게 혼합해야 한다.